

2

주체104(2015)

문학예술출판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기관지

주체104(2015)년 제2호

(루계 제808호)

《우리는 올해에 백두의 혁명정신과 기상으로 적대세력들의
도전과 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사회주의수호전과 강성국가건설
의 모든 전역에서 승리의 포성을 높이 울려 조국해방과 당창건
일흔돐을 혁명적대경사로 빛내여야 하겠습니다.》

김 정 은

..... 차 례

고향집(시)	정 서 촌(4)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4)
흰눈덮인 고향집(가사)	오 영 재(5)
불세출의 탄생(시)	차 승 수(5)
단편소설 보 화	김 혜 영(6)
주체문학의 대강	(19)
푸른 산 푸른 들! 외 1편(시)	리 연 희(20)
영생—추억의 단편들(수필)	리 명 순(21)
위대한 애국, 애족의 세계(시)	김 경 남(22)
◦ 매후과 위인청송의 노래	주 옥(23)
평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론 조선의 미래는 창창하다	김 용 부(27)
◦	
내 한생이 모자라(시)	류 길 성(26)
김정은장군 백두산기슭을 걸으신다(시)	김 정 순(32)
《우리 인민군대 만세!》	허 수 산(33)
총서 《불멸의 력사》 장편소설 《열병광장》중에서	정 기 종(34)

《〈모두다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최후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서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전
체 군대와 인민이 10월의 대축전장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
나가야 합니다.》

김 정 은



보 습 산 오 광 철(40)

민아카시아 주 설 웅(65)

불멸의 글발속에 안겨오는 영원한 메아리 (단평) 차 명 철(37)

조선의 꿈(서사시) 최 련(57)

◇ 조국이여 말해다오 옥 성 일(26)

가 포구의 자랑 박 진 명(31)

◇ 명포수, 명사수의 영예 떨치리 리 명 학(32)

시

원수님과 미래 홍 민 식(56)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 오 정 로(62)

고향에서 부르는 노래 장 선 국(63)

딸에게 주는 시 박 영(64)

강철전선은 새 주로를 차지하였다 위 명 철(64)

불타는 여름이여 외 1편(단시) 김 철 혁(79)

별과의 이야기 김 경 석(80)

위대한 수령님의 추억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다음과 같이 쓰시었다.

《빨찌산의 아들로 태어나 포연에 절은 옷을 입고 군대밥을 먹으며 돌격구령소리와 함께 성장한 그의 인생은 첫시작부터가 남다른것이였습니다.

김정일이 어려서부터 대가 바르고 배짱이 센 품성을 지닐수 있는것은 선천적인것이라고도 볼수 있겠지만 중요하게는 그가 세상에서 가장 정의롭고 신념이 강한 투사들의 품에서 투쟁과 생활의 참다운 진리를 배우며 아무런 구김살도 없이 씩씩하게 살아왔기때문입니다.

김정일이 어린 나이에 비해 정신적으로 조숙한것도 빨찌산의 물을 먹으며 자랐기때문이라고 봅니다. 빨찌산들이 지니고있던 고결한 감정정서는 풍부한 자양이 되어 그의 뇌속에 그대로 흘러들었고 백두산의 뒤편처럼 억센 그들의 기질은 그의 남아다운 성격에 피와 살을 보태주었습니다.》

고 향 집

정 서 촌

햇병아리들이
아장아장 걸어가며
한종일 트랙에서 모이를 쫓고
문열고 나서면
풍년새 너울너울 들에 춤추는
그러한 집이 아니노라

트락에는 사립문도
설한풍 가려줄 울바자도 없는
너무나 수수한
백두밀영의 고향집

바라볼수록
생각은 깊어지고
다시 우러를수록
스스로 머리 숙어지는 집

항일의 포성이
천지의 얼음장을 깨뜨리며
삼천리강산에 메아리치던
준엄한 그날에

아, 그날에 백두광명성이 탄생하였을제
베틀에서 짠 무명이 아닌
투사들의 피어린 군복자락으로
강보를 누비며 잠 못이룬 력사의 집이어

위대한 아들이 여기서
백두의 풀뿌리 씹었노라고
여기서 장수의 칼을 버렸노라고
사람들의 심장을 울리며
조국의 지도는 통나무벽에 걸려있는가

운명의 별처럼
신념의 등대처럼
밀림의 긴긴밤 창가에 꺼질줄 모르던
그 등잔은 오늘도 황황 가슴에 불을 지펴주는가

집이어 밀영의 귀틀집이어
너는 백두령봉의 수천산악으로
울바자를 두르고
성벽을 쌓아
눈바람 불바람을 다 막아내고
미래의 태양을 안아올린 영광의 집

정녕 너는 끊어진 조선의 혈통을 이으려
일찌기 만경대를 떠나신 수령님께서
백두의 충암절벽을 깎아내고
백두의 천고밀림을 찍어내어
폭풍의 언덕에 일떠세운 혁명의 집이거니

생각하노라
으리으리한 대리석층계를 밟으며
우리 사는 락원의 화려한 집들이
하얗게 내린 눈속의
이 귀틀집과 처마가 잇닿아있음을

생각하노라
흰눈 정갈하게 쌓인 이 트랙에
전설처럼 새겨진 위인의 자욱이 있어
인간사랑의 해빛을 뿌리며
승승장구하는 우리 사회주의조국이 있음을

이 시각 망망한 대양의 한복판으로
도도히 굽이치는 자주시대의 거창한 흐름도
백두의 만년설이 녹아내리는
바로 이 고향집 뜰아래
한줄기 맑은 시내물에서 시작됨을 생각하나니

그렇다, 보석을 다듬어 지붕을 얹고
진주를 트랙에 깔은들
어찌 너처럼 보배로울수 있고
너처럼 찬연히 누리에 빛을 뿌릴수 있으랴
아, 조선의 고향집이어!

주체80(1991).

가 사

흰 눈덮인 고향집

오 영 재

아득한 밀림은 눈에 덮이어
하늘땅 저끝까지 눈부신 광야
아 하얀 눈속에
봄빛을 안은 고향집이어

꽃들은 피어서 눈속에 웃고
별들도 내려앉아 꿈을 지킨 집
아 조선의 봄을
따뜻이 키운 고향집이어

송엄한 정일봉의 기상을 안고
사나운 눈보라를 휘여잡은 집
아 천고의 밀림에
백두가 세운 태양의 집이어

아 김정일동지
세기를 밝힌 고향집이어

주체76(1987). 2.

불새출의 탄생

차 승 수

이 순간을 기다려 반만년
백두는 머리가 희도록 고르고 또 골랐으리
1942년 2월 16일
새시대의 새벽을

그 요람을 마련하러 백만년
지구는 끓이고 또 끓인 용암을
세상밖으로 분출시켰으리
백두의 주춧돌에
고향집기둥을 세우려고

하늘땅이 열리어
억만년
태어난 명인들은 별처럼 많아도
이런 탄생 이런 요람 그 어디에 있었던가

그이 호흡하신 첫 공기는
천년밀림이 뿜어낸 정기였고
그이 목을 추기신 첫 샘물은
하늘높이 떠올린 천지물이었어라

그이의 자장가는 천지를 진동하는
항일전의 총포성
그이의 놀이감은 지구우의 모든 원썬들을
눈앞에 당겨놓고 겨냥한
한자루의 권총과 망원경

그이는 성장하시였어라
신화속의 장수마냥
빨찌산대장 아버님과 함께
격전장을 달리시는 어머님의 말안장우에서
폭풍의 세월을 헤쳐나가며
뜻도 마음도 나래펼치며

백두의 정기를 피와 살로 체현하시고
백두의 정신을 뒀으로 불태우시며
백두의 기상을 안팎에 담으시어
백두산을 닮으신 우리 장군님

그 지성에서 빛발쳐올라
말씀의 마디마디 혁명의 등대로
세기를 밝히시여라
그 담력에서 용솟아
한마디 음성에 천만대적이 기절초풍하여라
그 기상 뻗치어
한번 손길에 산악이 옮겨지고 바다가 메워지여라

오, 위대한 김정일동지
흘러가는 세월과
마중오는 세월이 손을 잡고
하늘과 땅이 얼싸안고
인류의 태양을 받들어올린 력사의 날이어

주체95(2006). 2. 17.

보 화



김 혜 영

1

4년전...

그날도 장군님께서는 달리는 야전차안에서 집무를 보고계시었다.

어느 한 문건을 점도록 들여다보시던 그이께서는 피로운 마음으로 눈길을 드시었다. 차창밖으로는 어디서나 볼수 있는 산촌풍경이 흘러가고있었다. 높고낮은 산발들, 멀리로, 가까이로 끝없이 파도쳐오는 산 또 산...

우리 나라엔 산이 많기도 하다! 령토의 약 80프로가 산인 나라도 지구상에 쉽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새삼스럽게 드신다.

많고많은 그 산... 산은 무엇으로 이루어져있는가?

그이의 시선은 산발마다 절경을 이룬 기암괴석과 산기슭을 둘러감은 석벽들, 산밑으로 흐르는 계곡의 하얀 돌들에로 차례차례 향하였다.

그렇다. 돌, 어디나 보이는것이 돌이다. 이 나라에 가장 흔한것이 바로 돌이다.

그런데...

장군님께서는 가슴을 태우는 의분을 느끼시며 손에 드신 문건을 다시금 내려다보시었다.

어느 한 중요대상건설을 맡은 단위에서 올린 문건이었다. 빨간색연필로 밑줄을 그은 부분이 두드러지게 안겨왔다. 수도를 현대적인 도시로 꾸리기 위하여 건물마감자재로 유럽의 돌제품을 들여다 리용하려 한다는 내용이였다.

(나라의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그 어느때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한 때에 돌까지 외화를 주고 사야 하는가?)

파연 돌이 많은 우리 나라가 남의 나라 돌을 사

다써야 하겠는가?)

장군님께서는 가슴이 답답하시여 차창밖으로 다시금 시선을 돌리시었다.

저 멀리 거대한 산악의 천연바위에 새겨진 《김정일장군 만세!》의 대형글발이 서서히 다가온다. 깎아지른듯 한 수백미터의 절벽, 저 높은 곳에 매달려 암반을 쪼아 한자한자 글을 새겼을 석공들의 모습을 그려보느라니 눈곱이 찢릿이 젖어드셨다. 그들이 저 글을 새기면서 과연 무엇을 생각했을까? 가는 곳마다에 새겨진 이런 글발들을 보실 때마다 이 나라 군대와 인민의 절절한 념원과 기대가 실려와 어깨가 무거워지고 그 중대한 사명감에 힘겨움도 피로도 잊게 되시는 그이이시였다.

그렇다, 하루빨리 우리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럽없는 유족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한다.

돌가공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무르익히시는 그이의 눈앞에 선히 떠오르는 모습이 있었다.

적동색얼굴에 코날이 두드러져 날카롭고 강직해 보이는 인민군대좌 리명준...

그이께서 리명준을 처음 아시게 된것은 몇해전 초여름 어느 한 군부대를 찾으셨을 때였다.

아담하게 꾸린 병영주위로 빨간 앵두알이 구슬알처럼 뒤덮인 생울타리가 인상적으로 안겨오는데 그 밑을 따라 하얗게 뻗어간 돌포장길이 산뜻한 대조를 이룬것 또한 이채로왔다.

병영뒤의 산기슭을 층층계단으로 깎아 돌각담을 쌓고 여러가지 과일나무들을 심은 풍경이며 병영앞에 운치있게 펼쳐진 양어못과 갖가지 동물상이 늘어선 휴식터 등을 돌아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알뜰하고 깐진 일솜씨가운데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하나의 특징을 발견하시었다.

그것은 돌을 다루는 놀라운 솜씨와 특이한 재간

이었다. 자를 대고 잘라낸듯 직각직선으로 정교하게 쌓은 하나하나의 돌각담들에서, 보도블록을 무색케 할 정도로 넘죽넘죽한 막돌들의 모양과 크기를 조화롭게 맞추어 일매지게 깔아놓은 돌포장길에서, 큰 바위돌들을 갖가지 모양으로 묘하게 다듬어 조각상처럼 장식해놓은 휴식터에서 그 재간은 뚜렷이 느껴졌다.

《돌곰이구만.》

장군님께서서는 허리를 굽히시고 몸을 형상한 돌상을 만져보시었다. 큰 돌을 곰모양으로 깎아세우고는 정으로 쪼아 움푹한 두눈을 새기고 거기에 반짝이는 동자까지 박아놓았는데 그것도 가만 보니 새까만 돌조각이었다.

조형예술적감각이 뛰어난 재간둥이의 솜씨가 분명했다.

그이께서는 곁에 선 부대장에게 물으시었다.

《부대 장병들중에 조각가출신이 있지 않소?》

《예? 아니, 저… 없습니다.》

웬일인지 부대장은 못내 당황해하는 눈치였다.

부대정치일군이 대신 대답을 드렸다.

《사실 이군 부대장동무가 직접 만든겁니다.》

《부대장이?》

장군님께서서는 사뭇 놀라시며 부대장을 다시 돌아보시었다. 그러고보니 바위처럼 듬직해보이면서도 이목구비가 날카롭게 생긴것이 돌을 가지고 재간을 부리게끔 생겼다는 느낌이 드신다.

《동무의 창작품이었구만. 정말 신통하오. 대단해.》

부대장은 별치 않은 솜씨가 뜻밖의 높은 평가를 받게 된것이 황송하여 몸둘바를 몰라했다.

장군님께서서는 대견하신 눈길로 그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시었다.

《동문 군인보다도 조각가가 되어야 할걸 그랬소. 이런 재능이 누구에게나 있는진 아니거던.

혹시 아버지가 미술가였던건 아니요?》

《아닙니다. 군인이였습니다.》

《음, 아버지도 군인이라. 그럼 할아버지는?》

《저… 할아버진…》

부대장은 입술을 깨물며 슬며시 눈길을 떨구었다. 무슨 말 못할 사연이 있는 모양인가?

잠시후 힘들게 대답이 흘러나왔다.

《사실 할아버진… 돌쟁이였습니다.》

《돌쟁이?》

장군님께서서는 귀에 선 말이어서 자신도 모르게 받아외우시었다. 돌쟁이라… 돌쟁이… 그럼 석공이란 소린데…

결국 돌쟁이란 돌을 다루는 사람에 대한 천시감의 표현이 아닌가?

부대장은 모름지기 할아버지가 돌쟁이였던것을 부끄럽게 여기는것 같았다.

장군님께서서는 그런 부대장에게 긍지감을 안겨주고싶으시었다.

《격세유전이라더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좋은 재간을 물려주었구만. 얼마나 좋소? 내 나라의 흔한 돌로 이렇게 훌륭한 걸작품을 만들어놓았으니 말이요. 이만저만한 재간이 아니야.

그래, 부대장동무한테는 자식들이 몇이나 되나?》

《아들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자 수행하던 총정치국 박철수부장이 말씀드렸다.

《장군님, 명준동무 아들도 어려서부터 취미가 남달랐습니다. 다른 애들이 나무나 수지로 만든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 영훈이는 매번 돌을 가지고 놀곤 했습니다. 어디서 묘하게 생긴 돌을 주어오기도 잘하고 그것으로 별의별 모양을 다 만들어보기도 하면서 돌을 가지고 못하는 장난이 없었습니다.》

《그래? 석공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이 분명하구만! 응, 하하…》

장군님께서서는 호탕하게 웃으시었다.

명준은 당황한듯 얼굴을 붉히며 떠들거렸다.

《아니, 저… 그 애는 사실…》

입술을 깨물며 더 말을 잇지 못하는 그의 얼굴에는 언뜻 고뇌가 비끼는듯싶었다.

《그 애가 지금 몇살이나 됐소?》

《평양제1중학교 졸업반입니다.》

《음, 공부도 잘한다는 소린데. 됐소. 부대장동무, 그 애를 잘 키우라구!》

《고맙습니다, 장군님!》

현지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차안에서 장군님께서서는 곁에 앉은 박철수에게 물으시었다.

《부장동문 어떻게 저 부대장의 가정에 대해 알아보오?》

《예, 제가 부대생활할 때 한채에서 한마당을 쓰고 살았습니다.》

《음, 그랬었구만.》

장군님께서서는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다가 혼자 말씀처럼 뇌이시었다.

《아까 그가 아들에 대해 말할 때 보니 무슨 고충이 있는것 같던데…》

박철수는 좀 주저하다가 자기의 짐작을 말씀드렸다.

《아마 그 애 할아버지때문일겁니다.》

《명준동무 아버지때문예? 그도 군인이라고 하지 않았던가?》

《예, 락동강건너까지 갔다온 로병인데 지금 여든이 넘었습니다. 그 할아버지가 손자애를 끔찍이 귀해하면서도 돌가지고 장난하는것만 보면 별스레성을 내곤 했습니다.》

장군님께서서는 박철수의 이야기를 주의깊이 들으시었다.

한번은 박철수와 리명준이 퇴근해서 집마당에 들어서는데 다섯살짜이 영훈이가 망치로 돌을 깨뜨리며 놀고있었다. 그때 방문을 열고 나오던 백발의 로인이 대뜸 달려들어 망치를 뺏으며 무서운 욕설을 퍼부어댔다.

《야, 이녀석아! 하필 장난질할게 없어서 돌을 가지구 놀아? 두눈이 멀정한게 원썩같으니. 이녀석! 배우라는 바이올린은 안 배우구... 엉?》

그런데 아이는 할아버지의 욕설이 무섭다기보다 리해되지 않는다는듯이 두눈을 울퉁하니 뜨고 대꾸하는 것이었다.

《할아버지, 돌아가고 놀면 왜 안되나요? 돌루 집두 짓구, 랍두 쌍구 재미나는데...》

《재미? 어허이구, 이녀석아! 이 칠부지야! 돌을 만지면 손이 거칠어지는줄 모르느냐? 악기다루는 사람은 동자질도 안시킨다는데... 어휴, 어린것하구 싱갱이질하는 나두 어리석지.》

로인은 욕하다말고 혼자 탄식하더니 마침 들어서는 명준을 붙잡아세우고 한바탕 신칙하는 것이었다.

《아에비한테 내 그만큼 말했는데 아이가 잠만 있으면 돌아가고 장난질이니 어쩌면 좋으냐? 음악 공부 시키려면 똑바루 시키든지 해야지 그대로 놔뒀다간 장차 뭐가 될는지 모르겠다.》

리명준이 대꾸할 짬도 없이 손자애의 퇴알진 웨침소리가 울렸다.

《뭐가 되긴? 돌박사 되지! 돌로 뭐든지 다 만드는 척척박사!》

로인은 갈구리같은 두손을 부들부들 떨며 고향치듯 욕했다.

《이녀석, 가만있지 못하겠니. 세상에 돌박사란 게 어디 있어? 수학박사나 기계박사는 있어두, 뭐, 돌박사? 아에비야, 들었니?》

명준은 늙은이의 노여움부터 풀어드리고봐야겠기에 얼른 타협조로 말했다.

《알았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 교양을 잘하겠습니다.》

《교양만 가지고 되겠냐? 음악에 취미를 단단히 붙여줘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박철수에게는 병적이다싶이 한 로인의 돌에 대한 질시감이 섰듯 리해되지 않았다.

리명준은 지나가는 말처럼 《그럴만한 사연이 있지요.》 하고는 후- 한숨을 내뿜을뿐이었다.

며칠후 로인의 생일날이 되어 두집식구들이 모여 앉았을 때 박철수는 영훈이를 무릎에 앉히고 놓지 못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물었다.

《아버님은 왜 손자애가 한사코 돌을 가까이하지 못하게 하십니까? 천성적인 취미같은데...》

로인은 대답대신 《임자 석수쟁이 눈깜작이부터 배운다는 말이 왜 나왔는지 아냐?》 하고 묻기부터 하는 것이었다.

그때 박철수는 처음으로 로인의 정상이 아닌 눈을 자세히 보게 되었다. 한쪽눈동자가 허열게 풀려있었다.

《내 눈이 왜 병신이 되었겠냐?》

몸이 오싹해왔다. 그러니 돌을 다루면서 돌쪼각이 튀어들어가 상한 흔적이라는 것인가?

그날 로인은 눈물을 흘리며 자기 가문의 력사이야기를 풀어냈다.

리명준의 선조들은 대대로 석공이었다. 허리가 부러지게 무거운 돌을 들어 옮기고 손끝에 피나도록 정대질을 해야 했으며 매캐한 돌가루먼지를 들이키면서 규폐증으로 고통을 받다 죽어야 하는 인생이었다. 고되고 힘들면서도 차례지는 건 피죽뿐이었다. 선조들은 그렇게 돌에 매인 가난의 멍에를 숙명처럼 대물림해주었다.

명준의 아버지 리순호도 잔뼈가 채 굳기도 전인 열두살때부터 부친을 따라 돌광산에 들어가 고역에 시달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정대끝에 불꽃이 튀도록 진종일 합마질을 하고나면 물집터진 손바닥이 견딜수 없게 쓰러난다. 연마작업을 할 때엔 희뽀얀 돌가루먼지가 눈코입으로 사정없이 쓸어들고 튀어난 쪼각돌들이 살에 박혀든다.

그럴 때면 어린 소년은 눈물을 머금고 속으로 빌곤 했다. 돌아! 두부모처럼 칼로 벨수 있게 물려주려마...

결에서 일하는 아버지가 자기의 그러는 모양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삼키는 줄은 모르고...

몇해가 지난 어느날 쿨룩쿨룩 기침을 하며 고열 속에 앓던 아버지가 어느 부자놈의 《송덕비》를 깎는 일에 내몰려 비칠거리며 일터로 나갔다. 아버지의 돌가공솜씨를 대신할 사람이 없다는 것이었다. 순호가 아버지가 앓는다고 사정하는데도 감독놈은 막무가내였다.

그는 아버지의 병이 아무래도 걱정되어 몇푼 안되는 돈을 쥐고 약을 구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그가 약첩을 안고 급히 돌아왔을 때 불행하게도 아버지는 굴러내리는 돌에 치워 마지막숨을 토크고있었다. 피가 랑자한 옷자락, 찢기고 터져 형체를 잃은 얼굴.

《아버지! 아버지! 죽지 마! 눈을 떠요. 아버지!-》

순호는 아버지의 가슴을 잡아흔들며 몸부림쳤다.

혼미한 의식속에서도 아들의 목소리를 알아들었던지 아버지는 간신히 눈을 뜨고 최후의 기력을 짜내어 이런 말을 남겼다.

《애야, 석수쟁이란... 어디에도 갈곳 없는 사람

들이 죽지 못해 하는 일이다. ... 막돌같이 버림받고 짓밟히는게 ... 석수쟁이니라. ... 너는 어떻게든 돌과 인연을 끊거라. ... 인연을 끊어야 해!»

함께 일하던 석공들은 눈물을 뿌리며 고인의 무덤에 세울 비돌을 하나 깎아주었다. 거기에 아들이 정대로 아버지의 이름 석자를 쪼아박았다.

그것이 일제감독놈의 눈에 띄워 《도적》루명을 쓰고 피투성이 되도록 얻어맞았다. 손끝에 피나도록 돌을 다루면서도 제 아버지의 묘비 하나 만들수 없는 신세였다.

그러나 15살의 소년은 울며겨자먹기로 그 저주로운 일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나라없는 노예는 조상의 유언도 지킬 힘이 없었던것이다.

연약한 두팔로 바위같이 크고 무거운 돌을 들어야 하고 해종일 돌가루먼지를 마시며 정대로 돌을 쪼아야 하는 일은 결코 험하지 않았다. 게다가 악독한 일제감독놈의 채찍밑에서 석공들은 말할 권리마저 잃은 한갓 로동도구에 불과했다. 차고 딱딱하고 메마른 돌처럼 순호의 심장도 돌심장이 되고 성격도 거칠어져갔다.

그렇게 몇해가 흘러 해방이 되었을 때 순호는 벌써 30살 가까이 된 로총각이었다. 《돌바우》, 《돌심장》이라고 소문난 석수쟁이총각에게 누가 딸을 주겠다고 하겠는가.

순호는 나라가 해방되자 평양에 찾아가 새 조선 군대의 골간을 키우는 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으며 졸업후야 장가를 들고 아들을 낳았다. 그가 바로 명준이었다.

로인은 추억에서 깨어나 질척해진 눈굽을 씻었다. 나무등걸처럼 시꺼먼 손이 얼굴을 덮는 그 순간 박철수는 왼손 가운데손가락이 뭉그러진것을 보았다. 모름지기 저 손가락도 그 세월 함마에 맞은 흔적일수도 있으리라. ...

박철수는 또 한번 가슴이 찢르르해짐을 느끼며 로인의 거치른 손을 잡아 살펴보았다.

《해방전야야 내 이 손가락들에서 봉대를 풀 날이 없었지. 선친에게서 물려받은것이란 이 손을 때리는 망치와 정대밖에 없었던 이 천덕꾸러기가 해방후 수령님의 은덕으로 좋은 세월을 만나 사람대접을 받아오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은 나도 귀염둥이손자애를 안고 별의별 꿈을 다 없어보는거네. 무엇이든 희망하면 다 꽃피워주는 이 세월에 우리 돌쟁이집안에서도 뒤집에서처럼 음악가가 나올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유치원선생에게 물어보니 우리 애도 음악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그러더군. 물론 머리도 좋구... 헌데 집에 와서는 악기 잡을 생각보다두 돌을 먼저 쥐려구 하니 이게 안타깝지 않나?》

《그래서였군요.》

박철수는 비로소 할아버지의 심정이 이해되어 머

리를 끄덕였다.

박철수의 이야기를 듣고나신 장군님께서서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계시었다.

막돌처럼 버림받아온 한 가문의 해방전생활이 가슴저리게 되새겨진다. 선조들의 피에 젖은 돌, 아버지의 비참한 죽음으로 하여 뿌리깊이 맺힌 어혈이 세월이 흐른다고 어찌 쉽게 풀릴수 있으랴.

그러자 이번엔 그 아버지의 아들인 리명준대좌의 모습이 대조적으로 떠올랐다. 돌과 인연을 끊으라는 할아버지의 유언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의 돌이 귀중하여 거기에 뜨거운 정을 쏟아붓는 인간, 자기의 아낌없는 재능과 노력, 정성으로써 돌의 가치를 새겨준 그의 소행을 생각할수록 심중은 후덥게 달아오르였다.

지금도 그때를 돌이켜보시며 장군님께서서는 새로 일떠서게 될 최첨단돌가공기지의 주인을 생각하고계시었다. 그래! 대대로 천대받아온 석공의 후손이 무인조종화된 현대돌가공업의 주인공이 되는데 응당하지. 세계적인 최첨단돌가공업이 실현될 그날을 그려보시는 그이의 가슴은 벅차오르시었다.

쓸모없이 버림받던 막돌에도 인간의 재능과 넓이 깃들면 황금덩이 못지 않은 보화가 될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에서 돌자원을 개발하는 사람은 애국자라는 뜻깊은 말씀을 주시지 않았던가.

수령님을 생각하니 자연히 가슴은 뜨거워지고 목이 메여오른다.

언제인가 수령님께 말씀드릴 문제가 생겨 그이의 집무실로 가셨을 때였다. 수령님께서서는 뒤집을 지시고 조선자연지도앞에 서계셨는데 존안가득 환한 웃음이 어려있었다.

《수령님, 무슨 좋은 일이 있었습니까?》

《허허, 기뻐서 그러오. 오늘 자원개발성에서 새 광맥을 발견했다는 희소식이 날아왔소.

산천경개 수려하고 자원도 가득한 내 나라 삼천리를 이렇게 한눈에 보느라니 마음이 흐뭇해지누만. 세 면을 둘러싼 바다에는 수산자원이 가득하지, 령토의 약 80프로가 산이지만 지하자원이 풍부히 매장되어있소. 산마다 흔한 돌도 우리의 귀중한 자원이요.

우리는 앞으로 대리석, 화강석과 같은 쓸모있는 돌자원을 끊임없이 개발해서 나라의 모든 산들을 말그대로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야 하요.》

그토록 정깊이 조국산천을 사랑하시던 수령님! 수령님의 그 념원대로 더 많은 돌자원을 찾아내고 현대적으로 가공하여 나라의 재부를 늘여가리라!

절절한 념원과 열망으로 가슴을 불태우시며 차

창밖으로 흘러가는 조국산천을 이윽히 내다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차를 멈추게 하시었다.

별로 돌이 더 많아보이는 산기슭이었다.

차에서 내리신 그이께서는 길옆에 깔린 돌무지속에서 반짝이는 조각돌 한개를 집어드시었다.

《이게 무슨 돌인것 같소?》

장군님께서 돌을 내보이시자 옆에 다가서던 부관은 머리를 기웃하며 자신없이 떠듬거렸다.

《저... 화강석은 화강석 같은데...》

《웁소, 깨알무늬가 촘촘히 박힌게 통강이나 개성의 화강석과는 좀 다른 종류요.

여기 위치를 지도에 잘 표시해야겠소.》

그이께서는 그 조각돌을 손에 쥐신채 승용차에 오르시었다.

차안의 특음기에서는 조국산천의 아름다움을 구가하는 서정가요의 선율이 흘러나오고있었다. 그러고보니 꽃이나 별에 대한 노래는 많아도 돌에 대한 노래는 없다는 생각이 드졌다.

꽃이나 별이 아름다움의 대명사였다면 돌은 멀리와 천시의 대명사였다. 머리가 나쁜 사람을 보고는 《석두》, 《돌머리》라고 하고 감정이 메마른 사람을 보고는 《목석》, 《돌심장》이라고 하는가 하면 성미가 거칠고 무뚝뚝한 사람을 보고는 《돌바우》라고 한다.

그런데 사실 우리 생활에 실지로 많이 쓰이는것이 바로 돌이라는것을 사람들은 왕왕 잊어버린다. 인류의 첫 조상들이 생존의 도구로 리용한것도 돌이며 인류의 10대기적의 하나인 불의 발견도 돌에 의한것이다. 가정의 보금자리인 집도 돌로 지었고 나라를 방비하기 위한 성벽도 돌로 쌓았다. 오늘날 최신건축물도 돌제품으로 마감되며 후세에 길이 전해질 기념비들도 돌로 만들어진다.

그만큼 돌은 견고하고 변색이 없으며 영원하다.

장군님께서서는 또다시 리명준의 모습을 그려보시었다. 바위처럼 억센 모습! 생각만 해봐도 믿음이 가신다.

2

평양에 도착하시자 그이께서는 박철수를 불러 리명준에 대해 알아보시었다.

그런데 박철수의 대답인즉 리명준은 60나이가 지나 제대되었다는것이였다.

《그 동무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단 말ियो?》

장군님께서서는 저으기 서운하시여 한동안 아무 말씀 못하시었다. 누구도 막을수 없는것이 세월의 흐름이고 그 흐름과 더불어 세상만물이 성장과 조락의 끊임없는 순환을 되풀이하는것은 어쩔수 없는 자연의 순리이다.

봄이 있으면 가을이 있듯이 인생에도 어차피 시

작과 끝이 있기마련인것이다.

하지만 장군님께서서는 그토록 근면하고 강의하며 재능도 있던 인민군대의 최소리나는 한 지휘관이 군복을 벗었다는 사실을 응당한 조치로 받아들이기가 괴로우셨다. 제대라는 말을 육체적능력의 한계점과 나란히 놓을수는 없었다.

그이께서는 박철수더러 리명준이 제대되어갔다는 고향을 찾아가 전우와의 회포도 나누는겸 그의 생활을 알아보고 오라고 이르시었다.

리명준에게 갔다온 박철수는 그 정형을 구체적으로 보고드렸다.

...그가 리명준의 집 대문에 들어섰을 때 터밭에서 김을 매던 녀인이 반색하며 호미를 떨구고 일어섰다. 명준의 안해였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부장동지가 어떻게...》

《그새 잘있었습니까?》

명준동무가 제대돼서 어떻게 사는지 보고싶어 왔습니다.》

철수는 반가이 인사를 나누며 뜰안을 둘러보았다. 담장을 따라가며 돼지우리와 토끼우리, 온실까지 지어놓았고 터밭에는 호박, 오이덕대를 그뿐하게 매주었다.

《이거 부업작전이 요란한데요?! 역시 명준동무의 기질은 갈데가 없다니까.》

《집집승이라도 많이 길러 군대를 원호해야 한다면서...》

녀인은 땀흐르는 얼굴을 수건으로 씻으면서 어서 안으로 들어가자고 권했다.

《아버님은 돌아가셨단지요?》

《예, 영훈이가 대학에 입학하는 해에... 손자 대학에 입학하는걸 보니 이젠 여한이 없다면서... 눈을 감으셨답니다.》

《영훈이가 김책공업종합대학에 갔다고 했던가요?》

《예, 전자공학부예요.》

《예술부문 대학에 갈줄 알았는데...》

《그 애는 예술보다 자연과목공부를 더 잘한답니다. 원래는 건설건재대학(당시)에 가고싶어했는데 할아버지가 반대하는 바람에...》

《돌과 인연있는 대학이라고 그랬겠지요? 허허. 그만큼 지난날의 원한이 뼈에 사무쳤으니까요.》

박철수는 로인의 모습을 잠시 그려보다가 말머리를 돌렸다.

《참, 명준동무는 어떨 갔는가요?》

《예, 저 하천제방공사장엘... 요즘 며칠째 거기 돌격대에 나가산답니다.》

《아니, 돌격대엘요?》

《예, 그저 돌다루는 일이라면 극성이 나서 뼈칠

데 안 빠질테 다 빠진다니까요. 젊은 사람들이 그 잔소리에 증이 나지 않겠는지…》

민망스런 어조로 이렇게 말하던 녀인이 문득 박철수를 간절히 쳐다보았다.

《부장동지, 부락인데 오신김에 우리 령감님 제발 자중하도록 말 좀 해주십시오. 괜히 고생을 사서 하지 말라구 말입니다.》

《아니, 제가 하구싶어 하는 일을 내가 말린다구 그만두겠습니까? 허허…》

《그러니 속상하지 않습니까? 누가 시킨다구 글썄, 머리 허연 늙은이가 체신머리없이 젊은이들속에 끼여들어가자구 쫓쫓… 자기 처지두 생각해야지. 아직 군복입은 지휘관인가 하구 생각하는것 같단 말입니다.》

진정으로 속타하는 녀인의 말에 철수는 좀 심중해졌다.

《그래서 돌격대원들이 싫어하는것 같습니까?》

《늙은이 간참하는걸 좋다 할 젊은이들이 어대 있을라구요?》

《알겠습니다. 내 령감님을 만나면 단단히 신책을 하지요.》

《제 그럼 가서 령감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럴것 없이 제가 직접 현장에 나가보지요.》 하며 그는 차에 싣고온 지합을 꺼내주었다.

《어이구, 이걸 뭘 이렇게…》

《마음뿐이지. 별로…》

옛 전우와의 회포를 나누라고 하신 장군님의 다심하신 말씀을 받고 각별히 준비한것이였다.

하천쪽에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여 뚫고있었다.

가까이 가보니 과연 젊은 사람들속에 유독 늙은이 한사람이 끼여 돌췌는 일을 《감독》하고있었다. 농립모를 쓰고 목에 수건을 걸친 그가 입구에 담배대를 꼬나문채 오락가락하며 이래라저래라 혼시하고있었다.

《동무! 그 둘은 놔두게. 따로 쓸데가 있어.》

《파로요?》

《보면 몰라? 빨래돌감이란 말이요.》

《이 빠죽빠죽한걸 어떻게 빨래돌을 해요?》

《거야 다듬으면 되지 않으리.》

이번엔 또 다른 조에 대고 훈계를 내린다.

《이 아까운 둘은 왜 버리나?》

《못쓸거니까 버리지요.》

《못쓸 둘이 어디 있어? 이리 내라구.》

채 못 태운 담배를 발로 비벼고있는 손에 들고 있던 망치로 둥글둥글한 돌을 여기저기 툭툭 까서 모를 세우더니 쌓던 돌벽우에 귀를 딱 맞추어 넣는다.

《히야— 아바인 역시 돌귀신이구만요!》

《뭐야? 돌귀신?》

《아니아니, 솜씨가 기막히다 그 소리에요!

이상하게두 아바이손만 가닿으면 돌이 쓸모있게 변하거던요. 자요! 한대 피우라요.》

젊은이는 싱글거리며 담배에 라이터불까지 붙여 권한다.

《허, 아침할줄 아는데? 다신 못쓸 둘이라구 버리지 말라구.》

《사실이야 하두 많은게 돌인데 그따위 돌 한개가 뭘 아까울게 있나요?》

《그따위 돌?》

기분 좋게 담배를 꼬나물던 명준의 낫색이 돌변하였다.

《동무가 그렇게 생각하니 돌의 쓸모를 찾지 못하지. 그것두 다 나라의 재부인데 하나라두 버리지 말구 써먹을 생각을 해야 할게 아닌가?》

《예?》

《명심하라구! 귀신같은 재간이 따로 있는게 아니라 생각을 어떻게 하는가에 달렸어.》

젊은이는 한순간 굳어져있더니 머리를 기웃한다.

명준은 그의 머리를 한손으로 툭 쳐주고는 또 돌벽쌓는대로 다가간다. 두눈을 쏘프리고 면이 맞는가를 가늠해본다.

그 모습을 지켜보느라니 박철수는 어쩐지 가슴이 훈훈해왔다.

마침내 명준이 그를 알아보고 허둥지둥 달려왔다. 두사람은 뜨겁게 열싸안았다.

《명준동무를 여기서 만나게 될줄은 정말 몰랐소. 편제없는 고문노릇을 한다면서?》

《어찌겠습니까? 공사를 발기해놓구 빠치지 않을 수가 있어야지요?》

변명처럼 하는 명준의 말에 박철수는 놀랐다.

《공사를 발기하다니? 그럼 다름아닌 명준동무가?…》

《허허… 하천에 돌이 잔뜩 널린게 아깝더라니, 제방쪽에 장석을 입히면 보기도 좋구 큰물이 날 위험두 없겠구 해서 리당엘 찾아갔었지요.》

《사람두 원… 동문 여전하구만.》

《어찌겠습니까. 이 불같은 때에 가만히 앉아 허송세월할수는 없는거구… 허허허…》

리명준은 수건으로 목덜미의 땀을 닦으며 시름없이 웃었다. …

박철수의 이야기를 자초지종 다 듣고나신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웃음을 담으시고 고개를 끄덕이시였다.

《역시, 믿음이 헛되지 않았소.》

그이께서는 가슴가득 차오르는 걱정을 느끼시며 창가로 다가가시였다.

겨우내 찬바람을 맞으며 눈서리를 이고있던 정원의 넓은잎나무들이 파스한 봄벌에 파릇파릇 새움을

뛰우며 재생의 기쁨을 수놓고있다. 귀여운 새들이
이 가지 저 가지 날아며 즐겁게 우짖는다....

결심을 굳히신 그이께서는 박철수를 향해 돌아
서시였다.

《부장동무! 명준동무에게 다시 군복을 입힙시
다.》

《예?! 군복을... 말입니까?》

뜻밖의 말씀에 박철수는 깜짝 놀라 뇌이였다.

《그렇소. 나는 빠른 시일내에 세계적인 최첨단
돌가공기지를 하나 건설하자고 하오. 그 일을 인민
군대에 맡기자고 결심했소. 무인조종으로 돌을 자
르고 연마하는 현대적인 공장을 바로 리명준동무가
주인이 되어 일떠세우게 하자는것이요!》

《장군님! 알겠습니다!》

박철수는 환희에 넘쳐 대답을했다.

장군님께서는 명준동무가 나이가 많아 힘들수 있
는데 그대신 젊고 능력있는 정치일군을 보내주어
뒤받침하게 하자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3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리명준이 지배인으로 일하
는 돌가공공장을 찾아가고계시였다.

지난밤 전선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집무탁에 쌓인 문건들을 처리하시다가 참으로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시였다. 외국에서 열린 제8차 국
제석재과학기술전사회에서 우리 나라의 사문석이
단연 1등을 하였다는 소식이었다.

문건에는 우리의 사문석으로 장식한 최신건축물
의 내외부와 사문석으로 만든 가구들을 소개한 사
진첩도 첨부되어있었다. 하나같이 화려하고 현란한
사진들이였다.

장군님께서는 목새기기 힘든 걱정이 가슴뿌듯이
차올라 한동안 방안을 거니시였다. 무겁게 실려오
던 한밤중의 피곤이 금시에 사라져버린듯싶었다.

돌! 다름아닌 우리의 돌이 안아올린 승리여서
그이께서는 그리도 기쁘시였다. 눈물이 나도록 기
쁘시였다.

새로 일떠선 돌가공공장을 찍어온 다매체편집물
을 보신것이 불과 서너달전의 일이다.

그런데 참단애로의 첫걸음을 내디딘 우리의 돌가
공업이 이렇게 비약한것이다.

장군님께서는 하루빨리 리명준을 만나보고싶으시
였다. 하여 오늘 아침 첫시간에 계획된 일정을 뒤
로 미루고라도 돌가공공장을 먼저 찾아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박철수를 부르시였다.

간밤이 새도록 기승스레 불어치던 초겨울의 찬
바람이 신기하게도 조용히 잤아든 청명한 아침이
였다.

장군님을 모신 야전차행렬은 평양을 벗어나 남쪽
으로 뻗은 고속도로우를 달리고있었다.

장군님께서는 좌석등받이에 몸을 기대시고 감회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공장조업소식을 보고받으신 그때부터 못내 가보
고싶던 곳이었으나 좀처럼 시간을 낼수 없으시였
다. 얼마 안 있으면 이해도 다 가고 새해 2012년이
시작된다. 수령님탄생 100돐을 맞는 새해를 강성부
흥의 뜻깊은 해로 되게 하자고 온 나라 인민을 불
러일으키신 그이이시였다.

행복에 대한, 기쁨에 대한 온갖 꿈과 리상을 다
없이 력사의 리정표로 내세워주신 2012년이 하루하
루 다가오고있는것이다.

얼마나 많은 일들이 그이앞에 쌓여있고 얼마나
많은 초소들이 그이를 기다리고있는것이라.

오늘 반갑게도 국제석재전시회소식을 접하여 만
사를 제쳐놓고 돌가공공장을 찾아가시느라니 그곳
지배인 리명준의 모습이 더욱 그리워지시였다.

못 잊을 추억이 파도쳐온다.

...그이께서 두번째로 리명준을 만나신것은 지난
해 장마철의 비내리는 산골길에서였다. 쉬임없이
쏟아지는 비줄기가 야전승용차의 앞시창으로 줄줄
이 흘러내리고 비물뒹개가 부지런히 반원을 그리
고있었다.

차들이 어느덧 최전연을 가까이 하고있을 때
장군님께서는 운전사더러 차를 멈추게 하시였다.

내물이 불어나 길이 막혀버린 오른쪽갈림길로 화
물차 석대가 건너오는것을 띄어보신것이였다.

무섭게 사뭇치는 물결을 헤가르는 자동차들의 적
재함마다에는 통나무들이 산더미같이 실려있었다.
여차하면 잠겨버릴것만 같은 아슬한 생각에 눈여겨
보시니 선두차앞에서 옷옷을 벗은 사나이가 무릎우
에까지 치는 물속을 뒤걸음질하며 손신히로 길안내
를 하고있었다. 그가 먼저 건너보고 얕은 곳을 찾
아낸 모양이였다.

했으나 사람도 차들도 세찬 물살에 휘말려들것만
같아 위태롭기 그지없었다.

장군님께서는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부관을 보
내시였다.

다행히도 차들은 무사히 건너왔다.

뒤미처 부관의 말을 듣고 자기들때문에 장군님께서
타신 야전차행렬이 떴어섰다는것을 알게 된 지휘관
이 깜짝 놀라며 이쪽을 돌아본다.

그 순간 장군님께서는 리명준의 얼굴을 알아보
시였다.

그이께서는 환한 웃음을 지으시고 차에서 내리
시였다.

리명준이 군복단추를 채우며 헤덤비는데 어느새
차에서 내린 세명의 운전사들이 뒤따라 달려왔다.

《장군님!》

감격하여 목메인 부름소리를 내고는 너무도 뜻밖의 영광에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장군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다정히 잡아 주시며 수고한다고, 물속으로 차를 모느라 힘들었겠다고 넘려해주시었다.

이어 대좌견장을 단 리명준을 보시고 무슨 일로 이런 모험을 하게 되었는가를 물으시었다.

명준은 공장건설에 필요한 원목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 강원도에 왔다가는 길이라고 보고드렸다. 밤중에 내린 비로 갑자기 물이 불었는데 줄 때까지 기다리느라 공사가일을 보장할수 없어 이렇게 강행도하를 하게 되었다는것이였다.

오직 앞으로밖에 모르는 공격정신과 자기희생적인 담력을 지닌 인민군지휘관다운 결심이였다.

드물지 않는 바위처럼 굳세여보이는 대좌의 모습이였으나 60고개를 넘어선 나이의 흔적만은 얼기설기한 주름살로 새겨져있었다.

장군님께서는 공사형편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시고 나서 너무 무리하지 말라고 간곡히 당부하시였다. 차에 오르시다말고 그이께서는 문득 생각난듯 물으시었다.

《참, 아들은 어떻게 됐소?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다녔다고 했지?》

《예. 대학을 졸업하구 국가과학원에 배치받았습니다.》

《정말 잘됐구만! 자, 그럼 건강하기 바라오.》

장군님께서는 한결 가벼운 마음으로 차에 오르시었다.

그러나 차츰 아릿해지는 심정을 어쩔수 없으시었다. 방금 만나본 리명준의 모습이 자꾸만 되살아오시었다.

바위처럼 억세던 모습이 지금은 눈에 띄게 수척해졌다.

제대된 그에게 다시 군복을 입혀 큰일을 맡겨놓았으나 그의 건강이 마음에 걸리시었다. 앞으로밖에 모르는 강직하고 결바른 성격, 주저와 후퇴를 모르는 그 기백과 정신력은 여전하지만 그래도 육체적힘의 한계야 어디 가겠는가.

그를 뒤받침해주라고 젊은 당비서를 보내주긴 하였으나 그것만으로는 마음놓이지 않으시었다.

무엇을 더 해줄수 있을까?

...

며칠후 전선시찰을 마치고 평양으로 돌아오신 그이께서는 돌가공공장건설장에 내려가있는 박철수를 부르시었다.

몇시간후 박철수장령이 집무실에 들어섰다.

《어떻소? 일이 잘되오?》

장군님께서는 자리를 권하시며 따듯이 물으시었다.

《예. 건물공사가 거의 마감단계에 들어서고 설

비조립전투도 동시에 밀고나가고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전경을 찍은 사진들이 있습니다.》

박철수가 서류가방안에서 사진들을 꺼내어 책상 위에 놓아드렸다.

장군님께서는 그것을 유심히 들여다보시다가 말씀하시었다.

《건물을 현대감이 나게 지은건 좋은데 어쩐지 규모가 눈에 차지 않누만. 우리 나라에 무진장한 돌을 가공해야 할 공장인데 지을바에 통이 크게 지어야지 왜 이렇게 소극적으로 규모를 잡았소?》

박철수는 머뭇거리다가 나직이 말씀드렸다.

《사실 부지면적을 최대한 잡는다고 잡았는데 뒤에는 돌산이고 앞에는 주민구역이다보니...》

《더 넓힐 자리가 없었나?》

잠시 생각에 잠겨 사진을 들여다보시던 장군님께서는 손을 들어 공장앞쪽을 가리키시었다.

《여기 이렇게 넓게 자리잡은 단층살림집구획을 대담하게 철수시키고 저 산기슭쪽으로 현대적인 다층살림집을 지어주면 어떻겠소? 그러면 이 자리에 지금의 3배이상 되는 대규모공장을 지을수 있을텐데.》

박철수는 갑자기 막혔던 물목을 터치듯 환성을 올렸다.

《그렇습니다! 장군님! 세배로 확장할수 있습니다!》

잠시 동안을 두시고 장군님께서는 강조하시었다.

《건물이나 설비도 중요하지만 기본은 사람들을 준비시키는거요. 오늘날 돌을 보화로 만드는 이 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돌가공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을 바로가지도록 하는것이요.

다른 나라에선 돌가공력사가 30년, 50년이 되었다는데 우린 이제 시작해서 몇십년 가야 세계적수준에 이르겠는가고 신심없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데 우선 우리 사람들의 시야를 넓혀주어야겠습니다.

지배인동무와 당비서, 기술일군들로 대표단을 무어 돌가공업이 발전된 나라들에 파견합시다.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우리의 돌제품을 몇십년이 아니라 단 몇해안에 개발할수 있는 안목과 기술을 터득하도록 말이요.》

《알겠습니다.》

박철수는 장군님의 말씀을 수첩에 적으며 신심에 넘쳐 대답올렸다.

《참 리명준동무 아들이 국가과학원에 있다고 했지. 영훈이라고 했던가? 그를 이번 기술대표단에 별도로 넣도록 하시오.》

한순간 박철수는 자기가 잘못 듣지 않았나 해서 눈을 깜빡거렸다.

《예, 영훈이를... 전자공학연구사를 맡입니까?》

《그렇소. 앞으로 최첨단돌가공설비를 갖추고 운영하자면 자동화나 전자공학분야의 기술자들이 절실히 필요할거요. 영훈이가 아버지의 일을 과학기술적으로 뒤받침해주게 하자는거요.》

《장군님! 그게 좋겠습니까!》

박철수는 말씀의 뜻을 비로소 알고 환성을 지르듯 대답을렸다.

4

차창을 스칠듯 날아지나가는 리정표를 얼핏 띄여보신 장군님께서서는 곁에 앉은 박철수를 돌아보시었다.

《참, 부장동무 고향이 해주라고 했지?》

희멀끔하게 잘생긴 박철수의 얼굴에 대뜸 웃음이 번글서 어린다.

《예, 정말 이름처럼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입니다. 북으로는 경치좋은 수양산에, 남으로는 푸른 파도 설레이는 바다, 동서로는 오곡백과 무르익는 논밭들...》

《허허, 자랑이 이만저만 아니구만. 옛날부터 해주는 돌 많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했지.》

《예. 아닌게 아니라 걸음마다 밭에 걸리는게 돌입니다. 산이 많아 그런지, 옛날 지각운동의 후과 인지...》

《아무쨌든 오늘날 해주땅이 돌 많은 덕을 톡톡히 보게 되지 않았나, 하하...》

장군님께서서는 저르기 기쁜심 마음으로 호탕하게 웃으시며 등받이에 몸을 기대시었다.

몇달전 새로 일떠선 돌가공공장을 소개한 다매체 편집물을 보시던 일이 선히 되살아왔다.

수만평방미터부지의 대규모공장, 특색있게 건설된 수직동의 건물들, 분홍색벽체우에 궁륭식으로 올라앉은 지붕들마다에서 붉은기가 펄펄 나뭇긴다.

건물안엔 최첨단을 자랑하는 현대적설비들이 짝들어왔다. 집채같은 통돌을 한번에 고속으로 30개의 판석으로 잘라내는 대형30다단톱, 130줄화강석 대형판석절단기, 란주, 란간, 공예품을 자유자재로 깎아내는 컴퓨터곡면체가공기, 판석들이 콘베아를 타고 유리처럼 매끈하게 가공되어나오는 자동연마반, 연마된 판석들이 자동흡반식기계손에 의해 척척 옮겨지고 지게차에 실려 물동적으로 운반된다.

광산에서의 채석작업은 또 얼마나 희한한가? 레루를 타고 자행하면서 고속으로 돌아가는 거대한 원형톱, 수직으로 잘리운 원석의 밑면을 수평으로 잘라나가는 금강석쇄바줄톱, 마침내 바른6면체모양의 집채같은 원석들이 차례로 두부모 들리우듯 기증기에 의해 떠 옮겨진다.

장군님께서서는 흥분을 금치 못하시었다. 참으로

이것은 로동이 아니라 아름다운 물동의 예술이며 창조의 유희이다.

《석수쟁이노릇이란 어디에도 갈곳이 없는 사람들이 죽지 못해 하는 일이다...》

홀려간 세월의 언덕너머에서 울려오는 목소리...

그 할아버지가 환생하여 오늘의 이 희한하고 멋스러운 장면을 본다면...

그날에 보신 록화화면들을 돌이켜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박철수에게 말씀하시었다.

《공장을 조업했을 때 꼭 가보자고 했었는데 이제야 가게 되누만. 조업식날 리명준이 꽤 기뻐했겠지?》

《예. 그런데 그후 설비운영에서 곡절을 좀 겪었습니다.》

《그래?》

박철수는 조업식날로부터 있는 일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 그의 이야기가 영화의 화면처럼 펼쳐졌다.

산천에 진달래꽃, 살구꽃이 활짝 핀 봄날이었다.

희한하게 일떠선 공장안팎을 돌아보며 모두가 야야 환성을 지른다. 최첨단설비들이 갖가지 석재가 공품들을 쏟아내는 광경은 모두의 넋을 잃게 하고 입을 다물지 못하게 한다.

박철수가 데려온 촬영가들이 공장의 모습과 생산 실태를 록화하느라 떠들썩 돌아가는데 리명준은 감격에 두눈을 습벅이며 묻는것이였다.

《부장동지! 이게 정녕 꿈은 아니겠지요?》

《허허... 눈을 편히 뜨고 꿈은 웬 꿈이요?》

《언젠가 부장동지도 우리 집에 와서 들으신 아버지의 이야기가 생각나서 그렇습니다. 돌이 굳은게 원썩갈아 두부모처럼 칼로 썰수 있게 물러달라고 애원했다던 아버님의 그 말씀이...》

그래서였던가? 리명준은 어느날 꿈에서 칼로 돌을 썰어 갖가지 모양을 도려내는 희한한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그것은 말그대로 꿈이었다. 세상에 그렇게 무른 돌이 어디 있으며 칼로 썰수 있는 돌이 있다 하면 그런 돌을 무엇에 썰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런데... 허황하다고만 생각했던 그 꿈이 오늘 이렇게 현실로 펼쳐질줄이야...

눈을 편히 뜨고도 그냥 꿈같기만 했다.

하나... 그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조업한지 며칠 안되어 공장의 핵심부라고 할수 있는 18축자동연마반이 갑자기 동음을 멈추었다.

PLC조종체계프로그램이 파괴되었던것이다. 뜻하지 않았던 정황이였다.

명준은 기계와 함께 자기의 심장도 벗어버리는 것만 같았다.

공장의 기술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거듭했으나 암호를 채워놓은 프로그램을 되살릴 방도

가 나지지 않았다. 빠른 시일내에 설비를 살려낼 수 있는 길은 외국에서 암호전문가를 초빙해오든가, 프로그램을 수입해오든가 두 길중 하나뿐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리명준은 주먹으로 책상을 치며 수입안주장자들을 추상같이 꾸짖었다.

《무슨 소릴 하는거요? 그럼 조종체계가 고장날 때마다 계속 수입해오겠다는건가? 장군님께서 왜 돌제품수입을 두고 그토록 가슴아파하셨는지 그레 동무들은 모르겠소?》

더는 수입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침묵... 무거운 침묵...

사실상 그 침묵은 리명준에게 쏟아지는 항변의 목소리같았다.

《그럼 지배인동지에겐 수입하지 않고 기계를 살릴 방도가 있습니까? 예?》

리명준은 와락 머리를 싸쥐고싶었다.

그때 푹푹 문두드리는 소리가 울렸다.

열린 문가에 나타난 사람은 뜻밖에도 아들 영훈이었다.

명준은 순간적으로 흠칫 놀랐으나 반가움을 표시할 경황도 없었다. 얼굴을 찡그려보이며 손짓으로 회의중임을 알렸다. 나가 기다리라는 뜻인데 들어오라는 뜻으로 알았는지 부진부진 들어섰다.

그뒤로 40대의 젊은 당비서가 따라들어왔다. 칼칼하게 생긴 강철빛얼굴에 유난히 흰 이가 드러나도록 웃으며 말했다.

《지배인동무, 위대한 장군님의 은정깊은 조치에 따라 국가과학원 전자공학연구소 연구사 리영훈동무가 우리 공장 기사로 임명되어왔습니다.》

《아니... 뭐라구요?》

리명준은 자기 귀를 의심하며 천천히 일어났다. 얼떨름해서 당비서를 보다가 아들에게로 눈길을 옮겼다. 처음 보기라도 하듯 눈박아보았다. 회색양복을 단정히 입고 안경을 낀 젊은 연구사! 이제 정말 내 아들이 맞긴 맞는가싶다. 회고 가름한 얼굴, 리지적으로 빛나는 두눈, 알파한 입술사이로 덧이박이가 드러나며 눈에 익은 웃음이 비낀다.

분명 내 아들 영훈이다! 헌데... 어려서부터 돌을 사랑해왔고 자라면서는 돌가공을 현대화할 꿈을 지녔건만 가문의 피뎠힌 원한으로 하여 돌과 멀어지지 않으면 안되었던 영훈이가... 오늘 부지불식간에 여기로 왔단 말인가? 어떻게? 혹시 내가 꿈을 꾸고 있는건 아닐까?

명준은 꿈만 같은 생각에 그냥 얼빠진듯 서있는데 그 의혹을 풀어주듯 당비서가 말했다.

《장군님께서 바로 오늘을 내다보시고 전자공학전문가인 영훈동무를 돌가공이 발전된 나라들에 참관실습을 보내주셨던것입니다. 영훈동문 우리가 PLC프로그램을 살리는 문제때문에 협의한다는걸

알고 때마침이라면서 회의에 참가하겠다고 하는군요.》

명준은 입이 얼어버린듯 했다.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 장군님께서 아들이 김책공업종합대학 전자공학부에 다닌다는 자기의 말을 들으시고 잘됐다고 하시던 말씀의 의미가 비로소 깨달아지는 듯싶었다.

명준은 아들을 멎어선 기계앞으로 데리고갔다.

《영훈아, 난 긴말은 하지 않겠다. 장군님께서 언제 공장을 찾아주실지 모르는 이때 멎어선 이 설비를 살려내는데 우리 삶의 의의가 있다는것만은 명심하거라.》

《알겠어요, 아버지! 장군님께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우리 나라 돌가공업의 주인이 되라고 저를 보내주셨는데 그 믿음에 보답해야지요!》

《애야! 영훈아!》

명준은 격려하듯 아들의 두어깨를 꼬당겨안았다.

그날부터 낮에 밤을 이은 탐구의 수습일이 흘러 드디어 성공의 순간이 왔다. 원상회복이 아니라 그 어떤 고장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우리 식의 조종체제프로그램이 태어난것이다.

박철수의 이야기를 걱정속에 들으신 장군님께서는 그윽한 미소를 지으시며 리명준과 그의 아들을 눈앞에 그려보시었다.

5

공장은 서해기슭에서도 막바지산골안에 위치하고있었다.

야전차들은 경사급한 도로를 한참이나 올라 드디어 공장정문에 이르렀다.

차가 몇자 대기하고있던 공장지배인과 당비서가 감격에 넘쳐 달려왔다.

《장군님! 안녕하십니까!》

리명준은 목이 꺾 메여 더 말을 잇지 못했다.

장군님께서서는 전보다 더 살갓이 타고 관골이 두드러진 리명준의 얼굴을 정겹게 바라보시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오래간만이요, 대좌동무.》

《장군님, 정말 뵈고싶었습니다.》

명준은 울먹거렸다. 경련이 이는 얼굴로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도 보고싶었소. 막돌을 황금으로 만든 동무들을 말이요.》

장군님께서 이번에는 절도있는 군인의 체취가 풍기는 젊은 당비서의 손을 힘있게 잡아주시었다.

《당비서동무도 공장을 일떠세우느라 고생이 많았겠구만. 언제부터 만나보고싶었는데 오늘에야 만났소.》

자, 이제 동무들이 만들어낸 창조물을 한번 돌아봅시다.》

《고맙습니다! 장군님!》

두사람이 합창하듯 웨쳤다.

《허허, 고맙다니. 인사야 수고한 동무들에게 내가 해야지.》

리명준은 아버지를 따라서는 어린애마냥 기쁨에 들떠 연혁소개실로 장군님을 안내해드렸다.

장군님께서는 여러 종류의 돌을 엿섞어 병풍식으로 장식한 벽체며 각이한 색깔의 돌로 문양을 짜넣은 바닥을 유심히 들여다보시었다.

《우리 나라에서 나오는 천연석재들을 용도에 맞게 시범적으로 잘 장식해놓았소. 이렇게 하면 어떤 건재를 어디에 어떤 형식으로 붙이는것이 좋은가 하는것이 직관적으로 안겨오기때문에 수요자들의 인기를 끌어당길수 있거던.

그러니 이것은 상품광고를 낸것이나 같다고 볼수 있지.》

《상품광고》라는 말씀에 리명준은 눈이 번쩍 뜨이는듯 했다. 공장의 주인인 자신들도 미처 생각지 못했던 문제였던것이다. 장군님께서 돌제품의 판매 실현문제에까지 관심을 돌려주신다고 생각하니 더욱 가슴뜨거웠다.

종합시령실에 들어섰을 때 박철수가 컴퓨터앞에 마주앉아있던 젊은이를 장군님께 소개해드렸다.

《이 동무가 리명준동무 아들입니다. 이번에 18축자동연마반의 조종체계프로그램을 우리 실정에 맞게 훌륭히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곤색양복속에 붉은색바탕의 넥타이를 단정히 받쳐맨 30대의 청년이 정중히 일어나 깊숙이 머리숙여 인사를 드렸다.

《장군님, 기사 리영훈... 장군님은덕으로...》

영훈은 말을 맺지 못하고 어깨를 들먹이였다.

장군님께서는 준수하게 생긴 젊은이의 용모를 대견한 눈길로 바라보시며 기쁨을 금치 못하시였다.

《정말 용해! 리명준동무 아들답소! 우리 돌가공업에 최첨단기술로 장비하는데서 과학자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수행했을뿐아니라 할아버지, 아버지의 대를 과학기술로 굳건히 이어나가고있단 말이요. 정말 기쁘오!》

그이께서는 리영훈의 어깨를 다정히 두드려주시더니 일행을 향해 유쾌히 말씀하시였다.

《조상의 유언으로 돌과 인연을 끊었던 사람들이 우리 나라 현대돌가공업의 창시자가 되었소!

얼마나 좋소? 그 옛날 막돌처럼 버림받던 석수쟁이의 자손들이 오늘 선군시대에 와서 그 돌과 함께 첨단문명의 선구자가 되었던 말이요.

아마 땅속에 잠든 할아버지도 돌과 다시 인연맺은 손자, 증손자를 뵈하지 않을거요. 하하...》

모두가 감격에 겨워 눈물을 머금고 따라웃었다.

리명준은 꿈을 꾸는것만 같아 자꾸만 젖은 눈을 스며이며 장군님을 우러렸다.

현장으로 향하시던 그이께서 문득 의아한 표정을 지으시였다.

《기계들이 왜 서있는게 드문한가?》

리명준은 당황해서 곁에 선 당비서쪽을 돌아보며 머뭇거렸다.

《저... 소음이 세서 당분간...》

장군님께서는 리해할수 없어하시였다.

《그럼 내가 멎어서있는 기계를 보러 여기까지 왔단 말이요?》

당비서가 황급히 나서서 말씀드렸다.

《장군님, 같은 부류의 기계들인 경우에는 한대씩만 돌리게 했습니다.》

《어서 기계들을 돌리오. 동무들이 밤낮 듣는 소리를 나도 한번 들어보지요.》

지배인의 무선전화지시에 따라 공장안의 기계들이 일제히 동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기관총부대의 일제사격과도 같은 거세찬 음향이였다.

잠시 서서 무엇인가를 생각하시던 장군님께서는 가공현장안을 둘러보시였다. 아스라하게 높은 천정을 머리에 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기계설비들이 육중하게 자리잡았는데 돌아가는 기세와 동음 또한 굉장했다. 확실히 록화화면으로 보실 때와는 느낌이 달랐다. 여기는 거인, 힘장사들이 일하는 곳이라는 인상이 강하게 들었다.

하지만 실지 거대하고 육중한 기계를 다루는 노동자들은 거인도 힘장사도 아니였다. 그들은 기계설비와 떨어진 조종실의 유리간막이안에 앉아 단추로 기계를 움직이고있는것이다.

장군님께서는 록화화면에서 인상깊게 보셨던 30다단톱앞에 걸음을 멈추시였다. 세찬 동음속에 가로세로 휘뿌려지는 뽀얀 물줄기, 고속으로 회전하며 집채같은 통돌속을 파고드는 원형톱날들...

더 구체적으로 보고싶으시여 기대가까이로 한걸음 다가서시였다.

리명준이 황급히 막아나섰다.

《장군님! 가까이 가시면 위험합니다!》

장군님께서는 그에는 개의치 않으시고 기계의 작업모습을 한동안이나 들여다보시였다. 세차게 뿜어나는 돌가루물보라가 그이의 야전솜웃에 들썩위치는것만 같아 리명준은 속이 한줌만 해졌다.

다음순간 그의 눈은 더욱더 놀라 흡뻘졌다.

장군님께서 이번에는 장갑을 벗으시고 통로옆에 쌓아놓은 판석들을 손으로 일일이 만져보고 쓸어보시는것이였다. 아! 저 차디찬 돌제품들을 맨손으로 직접 쓸어보아주시다니... 형언 못할 충격이 가슴을 찌른다. 술한 일꾼들이 내려와 공장을 돌아보았지만 눈으로 보고 감탄하기나 했지 일일이 손으로 만

저분 사람이 누가 있었던가. 지배인인 그자신도 이렇게까지는 못해보았었다.

송구스러움을 어찌지 못하는데 장군님께서서는 환한 미소를 지으신채 바닥에 낮추 쌓아놓은 경계석들까지 허리굽혀 만져보시는것이 아닌가! 누구나 스쳐지나는, 거리의 도로에서 흔히 보는 경계석을... 그 경계석마저 것처럼 대견하여 살펴보아주실줄 알았더라면 장군님께서 허리를 굽히시지 않게 높이 쌓아놓기라도 했을걸... 생각할수록 눈곱이 뜨거워나고 목이 짝 메어왔다.

아, 차고 딱딱한 그 돌이 뭐라고...

수년간 돌을 다루어온 자기들도 돌이야 그저 돌이지 무슨 다른것인가 했는데 장군님께서서는 마치도 피를 나눈 살붙이처럼 그 돌에 뜨거운 정을 부어주시는것이다.

이윽고 밖으로 나오신 장군님께서서는 심중한 안색을 지으시고 누구에게라없이 말씀하시였다.

《소음이 높아. 물론 돌을 가공하는 공장이기때문에 소음이 어느 정도 불가피하다고 볼수도 있겠지만 대책을 세워야겠소.》

그 대책에 대해 한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일군들은 누구도 시원한 대답을 드리지 못했다.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장군님께서서는 간곡한 어조로 이르시였다.

《지금조건에서 소음을 당장 없애기 곤란하면 기대공들에게 귀막이라도 해결해줍시다.

옛날부터 석공들은 돌가루먼지와 소음을 피할수 없는 숙명으로 여겼지만 나는 오늘 우리 돌가공로동자들에게 가장 신선하고 문화적인 로동조건을 마련해주고싶소.》

순간 리명준은 불덩이를 안은듯 가슴이 뜨거웠다. 이처럼 현대적인 돌가공기지를 마련해주시고도 부족하시여 누구나 자연스럽게 여기는 소음문제에까지 그토록 마음을 쓰시니 정녕 돌 다루는 사람들에 대한 장군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다.

《아, 저기가 돌전시장이로구만.》

장군님께서서는 록화화면에서 보셨던 전시장건물을 띄여보시고 그리로 향하시였다.

산뜻한 화강석벽체에 연록색사문석으로 창문모양을 형상한 건물의 외형이 이채롭게 안겨왔다.

현판문으로 들어서자 현란한 무리등빛속에 안겨오는 내부가 마치도 전시장이 아니라 눈부신 보석궁전을 방불케 했다.

《이게 이번 국제전시회에서 특등했다는 사문석이요?》

장군님께서 반색하시며 사문석전시대앞에 멈춰서서자 박철수가 궁지롭게 말씀올렸다.

《예. 우리 사문석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대단합니다.》

《정말 아름답소! 말그대로 보화요!》

장군님께서서는 푸른색 바탕에 갖가지 모양의 흰 무늬가 새겨진 여러 종류의 사문석견본들을 돌아보시며 감개무량함을 금치 못하시였다. 어쩌면 자연이 선사한 색깔과 문양들이 이렇듯 유능한 미술가의 손으로도 만들어낼수 없을 정도로 조화로운 형상을 이루고있는것일까?

천천히 걸음을 옮기시는 장군님앞에 화강석전시대가 다가왔다.

박철수가 어느 한 판석을 가리키며 말씀드렸다.

《장군님, 이 화강석이 바로 4년전 장군님께서 전선길에 찾아주신 그 돌을 가공한것입니다.》

장군님께서서는 이름 못할 충격을 느끼시며 그 자리에 멎어서시였다.

거울처럼 알뜰거리는 그 판석을 한참이나 못박아보시였다.

4년전... 그때 길옆에 덩굴던 한조각의 돌이 생생히 기억되였다. 채취공업성일군에게 주어 탐사를 해보게 했던 그 돌... 정말 그 돌이란 말인가?

희푸름한 바탕에 깨알모양의 검은 무늬가 촘촘히 박혀 독특한 광채를 발산하는것이 아무리 보아도 돌이 아니라 진주보석같다.

그이께서는 장갑을 벗으시고 판석을 살펴보시였다. 손바닥에 마쳐오는 차고 산뜻하면서도 유리처럼 매끈한 촉감...

몇번이고 쓸고 또 살펴보시였다.

잇줄수 없는 그 조각돌... 4년이 지난 오늘 이렇듯 눈부시게 가공된 판석을 보시니 감개가 새로우시였다.

평범한 돌을 진주보석처럼 만들어준 이곳 돌가공로동계급에 대한 고마움이 뜨겁게 사무쳐드시였다.

이어 돌로 만든 공예품들과 생활필수품, 건재류들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져보고 들어보기도 하시는 그이의 안광에는 시종 웃음이 떠날줄 몰랐다.

《이 꽃병이 정말 돌로 만든게 옳긴 옳아? 하긴 무게를 봐선 분명 돌인데...》

장군님께서서는 검은색과 진록색반점들이 황홀하게 어우러져 반짝거리는 꽃병을 이리저리 둘러보시며 감탄을 금치 못하시였다.

《예. 휘장휘록암으로 우리 공장에서 만든것입니다.》

리명준의 대답이였다.

《색깔도 진기하구만. 돌이니까 퇴색될 념려도 없겠구 견고하겠지?》

《그렇습니다.》

《그렇지. 그러니 영원한 기념품이라 할수 있겠소.》

《예. 공장종업원결혼식때 폐장에 넣어보냈었는데 소문이 어떻게 났는지 전국각지에서 요청주문이 들어옵니다.》

말해놓고도 쑥스러운듯 얼굴을 붉히는 리명준을 보시며 장군님께서서는 즐거운 미소를 지으시었다.

《거 정말 좋은 일ियो. 사람들의 발길에 채우던 막돌이 오늘은 금반지나 보석목걸이와 같은 배장감이 되었으니 이보다 기쁜 일이 또 어디 있겠소? 내 한생에 기쁜 날이 많았어도 오늘처럼 기쁘기는 처음이요!

수령님께서 이걸 보셨으면... 얼마나 기뻐하시겠소.》

장군님의 음성은 젖어드시었다.

수령님에 대한 추억으로 장내는 숙연한 걱정애 잠겨있었다.

이윽고 전시장안을 다 돌아보신 장군님께서서는 말씀을 이으시었다.

《수령님께서서는 일찌기 우리 나라에서 돌자원을 개발하는 사람은 애국자라고 하시었소. 돌이 결코 금이나 은보다 값이 비싸서가 아니요. 제 나라의 한덩이 돌도 보석처럼 귀중히 여길줄 아는 그 마음이 바로 애국이라는 뜻이 아니겠소?

그런 의미에서 이 공장사람들은 모두가 애국자들이라고 할수 있겠습니까!》

순간 격랑파도 같은 감격의 열파가 온 장내에 굽이쳐갔다.

리명준은 터져나오는 오열을 삼키며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장군님! 막돌을 황금으로 빛내주신분은 바로 장군님이신데 도리어 저희들을 애국자라 하십니까!)

상상도 못했던 너무나 과분한 평가에 가슴이 터질것만 같았다.

눈물이 샘솟아 앞이 보이지 않는데 돌과 쓰라린 인연 맺었던 가문의 력사가 한순간 떠오른다. 돌로 하여 치욕과 원한을 새기었던 석공가문이 오늘 돌로 하여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은것이다!

밖으로 나오신 장군님께서서는 《돌전시장》이라고 쓴 현관을 가리키시며 또다시 말씀하시었다.

《여기는 그저 돌전시장이 아니라 애국돌전시장이요!

공장의 명칭도 〈애국돌가공공장〉이라고 고쳐야겠습니까.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애국돌전시장을 배경으로 사진 한장 찍읍시다. 지배인동무, 당비서동무, 어서 가까이 오시오!》

꿈만 같은 행복에 눈물을 금치 못하는 그들을 불러 사진을 찍으신 장군님께서서는 문득 공장뒤로 바라보이는 산밭들에 시선을 주시었다. 서로 어깨를 겨루며 연줄연줄 줄지어선 산봉우리마다 희끗희끗한 돌바탕이 드러나보였는데 첫 봉우리의 한쪽귀퉁이가 수직으로 깎이워있었다. 화강석광산이 생겨

수십년동안 깎아먹은 자리가 저 정도라면...

선뜻 믿어지지 않아 리명준에게 물으시었다.

《그래, 저 산들이 모두 돌이란 말이요?》

명준이 그렇다고 대답드리자 장군님께서서는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멋있소! 이 공장이 돈더미를 타고왔소. 저 산들은 돌산이 아니라 돈산이요!》

손세를 쓰시며 열정에 넘쳐 하시는 장군님의 말씀은 또 한번 모두의 가슴을 세차게 흔들었다.

《자, 그렇다는 의미에서 저 산을 배경으로 또 한장 찍지요!》

뜻밖의 말씀에 모두가 다시금 놀랐다. 절승경계를 자랑하는 명산도 아닌 돌투성이산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자고 하실줄이야...

이번에는 장군님께서 리명준의 팔을 다정히 끼고 찍으시었다.

명준은 행복의 무아경에 꿈같이 잠겨있었다.

두번째 사진을 찍고나신 장군님께서서는 감회깊은 시선으로 공장의 전경을 둘러보시더니 선언하듯 말씀하시었다.

《나는 앞으로 애국돌가공공장과 같은 돌가공기지들을 몇개 더 건설하여 우리 나라를 세계적인 천연석재생산국으로 만들자고 합니다.

여기서 애국돌가공공장이 기치를 들고 나가야 합니다.

지배인동무! 공장종업원들을 모두 불러오시오.

온 세상이 다 알고 부러워하게 사진을 찍읍시다!》

리명준은 끝내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았다. 억대 우같은 두어깨가 세차게 물결쳤다.

(아, 장군님! 저희들이 한 일이 무엇이라고 이렇게까지 내세워주십니까? 흐흑...)

해빛따사로운 하늘아래 한없이 위대한 어버이를 모시고 세번째로 영광의 기념사진을 찍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서 행복의 눈물, 감격의 눈물이 끝없이 샘솟아 흘렀다.

장군님께서서는 떠나시면서 리명준의 손을 뜨겁게 잡아주시었다.

《나는 오늘 애국돌가공공장에 빈손으로 왔다가 억만재부를 안고가는 심정이요. 정말 고맙소.

앞으로도 건강해서 일을 잘해주기 바라오.》

《고맙습니다! 장군님! 부디... 건강하십시오! 장군님의 건강이야말로 가장 귀중한 이 나라의 재부입니다.》

리명준은 진정 무릎꿇고 엎드려 절을 드리고싶었다. 장군님의 손을 꼭 부여잡은 그의 거친 손등에 뜨거운 눈물이 후두둑 떨어졌다.

장군님께서서는 차를 타고 떠나시면서도 오래도록 손을 흔들어주시었다. 무엇인가 못다 주고 가시는 듯 마음이 허전하시었다.

주체문학의 대강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주체문학론》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작가는 독자를 가르치는 사람이다. 사람들을 가르치자면 그들보다 아는것이 많아야 한다. 작가는 백을 알고 하나를 가르쳐야지 하나를 알고 하나를 가르치려 하여서는 안된다. 아는것이 많으면 인차 밀천이 드러난다.

많이 아는것만 가지고는 안된다.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여 다 지성이 높은것은 아니다. 풍부한 지식은 사상문화적인 높은 수양과 결합되여야 한다. 아는것이 많고 수양이 높은 작가는 작품을 써도 지성이 있는 좋은 작품을 쓴다.》

《부장동무, 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을 당적으로, 국가적으로 높이 표창해줍시다. 빈터우에 이처럼 훌륭한 돌가공기지를 일떠세운 지배인동무는 능히 로력영웅이 될수 있소.》

이날은 2011년 11월 25일...

그때로부터 20여일이 지나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의 보호안경과 마스크, 귀막이일식을 받아안고 온 공장이 감격에 설레이던 그날, 천만뜻밖에도 어버이장군님께서 달리던 열차에서 심장의 고동을 멈추시였다는 청천벽력같은 비보가 전해졌다. 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이 나라의 가장 귀하고 값진 재부는 장군님의 건강이라고 그리도 간절히 축원하였건만...

믿을래야 믿을수 없는 절통한 현실앞에 땅을 치고 가슴을 치며 통곡하던 리명준은 저도 모르게 일어나 공장건물쪽으로 허겁지겁 달려갔다.

장군님께서 일일이 만져보시던 판석들이 거기에 있었다. 아, 그것이 불과 20여일전의 일이라는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 그토록 무거운 중병을 안으시고 그이께선 여기 바람세찬 서해기슭에까지 오셨단 말인가? 그토록 불편하신 몸으로 허리굽혀 이 경계석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셨단 말인가? 이차디찬 판석들을 장갑까지 벗으시고 맨손으로 일일이 쓸어보셨단 말인가? 얼마나 돌이 귀하셨으면... 그 많고많은 돌제품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쓸고 또 쓸어보시며 자신의 아픔은 속에 물어두신채 그리도 기쁘시여 환히 웃으시던 그 영상...

(아아! 장군님! 장군님! 흐흐흐...)

쏟아지는 눈물의 무게에 못이겨 어푸러지듯 주저앉은 명준은 두팔을 벌려 판석들을 그러안고 쓸고 또 쓸었다. 그런데 어인 일인가? 차디찬 판석들이 손으로, 가슴으로 뜨겁게 마쳐오는것은... 무정하다고 생각했던 돌들이 살벌이처럼 정겹게 느껴지는것은...

리명준은 소스라치며 깨달았다. 우리 장군님의 손길에 닿은 돌이었다! 장군님의 체온으로 덥혀

진 돌이었다!

후두둑! 눈물이 어룡진다. 그가 흘린 눈물인가, 돌이 흘린 눈물인가. 돌이 눈물에 젖었다! 말 못하는 돌도 자기를 그토록 사랑해주신 장군님을 그러 흐느껴우는것이다!

(장군님! 이 나라의 한조각 돌도 소중히 품에 안아 열을 주고 정을 주어 보화로 빛내여주신 장군님이시야말로 이 세상 애국자중의 애국자, 절세의 애국자이십니다!)

×

그로부터 몇달후, 첫 광명성절을 맞으며 애국돌가공공장에서는 세인을 놀래우는 대경사가 있었다. 30여명의 종업원들이 한날한시에 조선로동당원이 되었고 로력적위훈을 세운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김일성**훈장, **김정일**훈장, 로력영웅칭호를 비롯한 높은 급의 국가수훈이 안겨졌다.

리명준기사에게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광명성절에 즈음하여 전국의 로력혁신자들에게 보내주신 사랑의 선물이 아름답게 안겨졌다.

장군님을 모시지 못하고 2월의 명절을 맞는 절통함과 피타는 그리움이 하늘땅에 사무치던 때에 또 한분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은**동지의 대해같은 사랑을 받아안은 사람들의 얼굴마다에서는 장군님을 다시 뵈는듯싶은 감격과 함께 애국충정의 더운 눈물이 끝없이 흘러내렸다. 그들가운데는 가슴에 로력영웅메달을 단 리명준지배인도 있었다.

모두가 장군님께서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평양의 하늘을 목매며 우러르고있을 때 어디선가 흐느끼는듯 한 바이올린소리가 울려오기 시작했다.

영혼이가 켜는 바이올린소리였다.

사과꽃 피워놓고 아뢰면 또 오실가
비날론 폭포소식 아뢰면 또 오실가
...

푸른 산 푸른 들! 외 1편

리 연 희

송이송이 흰눈이
소리없이 내리는 강산
어디선가 그 어디선가
이 마음에 울려오는 음성
—푸른 산 푸른 들!

저 멀리
철령넘어 최전연인가
감나무중대 황철나무중대...
그 이름 정을 담아 불러주시던
그이의 심중에 울리던
조국의 푸른 산 푸른 들

여기저기 굴곡많은 포전들
번듯하게 밀어낸 사회주의대지
사과꽃 만발한 백리청춘과원우에
노래처럼 즐거이 울리던 그 음성이어

안고가시었구나
오늘도 산처럼 솟아오르는 주체비료
우리의 자랑이며 궁지인 주체비날론을 위해
위대한 변혁을 안아오시려 달리고달리시던
인민행렬차의 차창에 비껴흐르던

이 나라의 산과 들이어

내 알았던가
최첨단을 돌파하며 세계로
저 하늘높이 인공지구위성을 솟구쳐올리던 그날에도
우리 장군님
시련의 흔적 력력한 이 땅의 높낮은 산발들
그 얼마나 소중한 품어안으셨는지

아, 그래서
아직은 애어린 나무모들 설레는
푸른 양묘장을 바라보시며
그리도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천만일새 무성할 숲의 설레임소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삼천리금수강산을 그려보시였던가

송이송이 흰눈이 내리는
2월의 이 강산에 울려오누나
가는 곳마다 사회주의 푸른 숲으로 설레일 이 땅
천만군민의 가슴가슴에 메아리치는
위대한 심장의 부름소리
오, 푸른 산 푸른 들!

연 산 사 람 들

산에 산을 이어
산많은 교장이라 연산
굽이굽이 끝지나 또 지나
내 들어선 황대골

여기에 솟았구나
인적드문 산촌에 소문도 없이
기적처럼 일떠선
연산군민발전소

—그 무슨 소문낼 일이겠소
크지 않은 발전소를 두고
처음엔 자체의 힘으로 해낼수 있을가
근심도 걱정도 많았다는 솔직한 그 목소리

—그 무슨 자랑할 일이겠어요
제 교장 제 살림을 꾸리는 일이어서
힘겨워도 제 힘으로
어려울수록 있는 지혜를 다 모아
자신의 행복을 창조한 사람들

한치 또 한치
마지막돌격전을 부르며
언제의 정점을 향해 솟구쳐오르던 그날
횡포한 폭풍이 휩쓸어
폭우속에 모든것이 잠겨버린 강물우에
물러설수 있었던가
주저앉을수 있었던가

억척의 그 신념 그 배짱으로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언제가 없는 강물우에
불굴의 산악
인간의 성새로 일떠섰던 사람들

오늘은
일만산악이 머리속어
고요히 비껴내린 물결우에
하많은 가슴속의 이야기
저 동음속에 묵묵히

영생 — 추억의 단편들

리 명 순

모자란 사람들 누구나 다 일상적으로 쓰는 생활용품이라고 할수 있다.

모자가 출현하여 사람들은 그 모자의 덕을 많이 입고있다. 각이한 용도의 모자들을 각이한 환경에서 효과적으로 쓰고있다.

바람을 막고 햇빛을 가리우기도 하고 고공작업과 굴간작업에서 안전상 리유로 쓰기도 하는 이 평범한 모자의 사명에 대해서 새삼스럽게 생각하게 된 계기가 바로 평범한 어느날에 있었다.

얼마전 위대한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들을 애국자로, 영웅으로 키워주신 불멸의 업적을 담은 화폭들을 수록한 기록영화상영이 끝났지만 나는 자리에서 일어설수가 없었다.

눈앞에 어느 광산의 굴길을 걸으시는 우리 장군님의 숭엄하신 영상이 자꾸만 안겨왔던것이다.

그이께서는 짜리안전모를 쓰고계시였다.

바로 그 안전모가 나에게 상념의 한조각을 가져다주었고 인민의 추억속에 깊이깊이 새겨진 못 잊을 사연을 세월을 거슬러 나에게 실어다주었다.

우리 조국의 북변땅에는 령이 하도 높아 거기에 오르면 하늘에 닿는다고 하여 마천령이라고 부르는 험한 령이 있다.

수십년전 바로 우리 장군님께서 그 하늘아래 첫 령을 넘으시여 검덕광산을 찾아주시였다. 생산만 생산이라고 내밀다나니 잘 정비되지 않은것은 물론 군데군데 석수가 떨어지는 곳도 있는 4.5갱, 위험한 그곳으로 들어가시려는 위대한 장군님을 일군들이 간절히 만류하였지만 그이께서는 웃으시며 말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적이 깃들어있고 우리 노동자들이 매일 드나드는 곳인데 나라고 왜 못 들어가겠는가고, 여기까지 왔다가 그냥 돌아간것을 알면 광부들이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고,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들어가자고... 그러시면서 장군님께서 누군가 가져다드린 수수한 짜리안전모를 쓰시고 스펀지없이 인차에 오르시였다.

인차는 한시간도 넘게 캄캄한 굴속을 덜커덩

거리며 달렸다. 그 인차를 타고가시면서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인차에 조명등을 설치해주자고,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인차를 타고가면서 신문이랑 보게 해주자고 조용히 말씀하시였다.

인차가 막장에 도착했을 때 광부들은 너무도 뜻밖의 일에 놀라고 당혹하여 그리고 너무도 감격하여 목청껏 눈물로 짹 목메인 만세를 불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노동자들의 돌가루 묻은 손들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막장에서 일하는 광부들이 보고싶어서 왔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앓는 사람은 없는가 물어도 주시며 막장을 둘러보시던 장군님께서서는 속보판에 막장에서 떠나지 않고 혁신하고있는 노동자들을 소개한 글을 보시고 일군들에게 광석이 아무리 귀해도 노동자들보다 귀중하겠는가고, 다시는현장에서 침식하는것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엄하게 지적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짜리안전모를 다시 써보기도 하시고 가스등을 어깨에 걸쳐보기도 하시면서 좀 편리하게 할수는 없겠는가고, 손에 들지 않고 안전모에 고정시키면 어떤가고 일군들의 궁냥도 토크워주시였다.

이날 장군님께서서는 광부들과 똑같은 짜리안전모를 쓰시고 광부들과 허물없이 어울리시여 많은 이야기를 나누시였다. 그러시고는 점심시간도 펍 지나서야 광산을 떠나가시였다.

친부모도 들어와보지 못한 막장에까지 들어와보신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이 수십년세월이 지난 오늘까지도 그 짜리안전모와 더불어 광산의 력사에 길이 새겨져있다.

그날에 우리 장군님께서 쓰셨던 짜리안전모, 그것은 자신을 수령님의 전사로, 평범한 공민의 한사람으로 여기시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장군님의 위인적풍모를 뚜렷이 보여주는 산 증거물이다. 령도자와 인민의 혼연일체의 참모습이 구현된 력사의 자취이다.

이 나라 북변의 제철소에 가면 용해공이 되시여 쇠물을 들여다보신 보호안경이 남아있고 국경도시

끝없이 듣고있는 사람들

이것이 우리의 불이라고
자신이 안아온 불빛속에
아니 그자신 빛을 뿜으며
궁지높이 뿜뿜이 웃고 선 사람들

우리는 결심하면 한다
자신의 힘을 굳이 믿으며
선경의 거리 선경의 마을
태일의 자기 고향을 마음껏 그리는
이들이 바로 애국자들
조국이 자랑하는 연산사람들이다

의 자그마한 초물생산협동조합에 가면 그이께서 써 보셨던 농립모가 남아있다. 그 자그마하고 평범한 물건들에 어려있는 우리 장군님의 생생한 체취를 우리 인민은 세월이 가고가도 정녕 잊지 못한다.

한평생 자신을 인민의 심부름꾼으로 여기시며 이것은 수령님의 좌우명이자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생전에 그리도 자주 뜨겁게 말씀하시던 우리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늘 생의 시작이 아름다웠으면 마감도 아름다와야 참된 인생이라고 하시면서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조국과 인민을 위한 삶을 불태우시었다. 그렇게 한생을 타오르는 불길로 사시며 우리 조국을 세상에 둘도 없는 사회주의강국으로, 인민이 주인된 주체의 락원으로 꾸려주신 그 빛나는 업적을 우리 어찌 한시인들 잊을 수 있으랴.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분을 령도자로 모시고있었는가를, 얼마나 위대한분을 어버이로 모시고있었는가를 수천마디의 말보다 더 뚜렷이 확증해주는 그 날의 못 잊을 싸리안전모.

그와 더불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어려온다.

오늘은 우리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사랑을 그대로 이으시여 수수한 농립모를 쓰시고 건설장으로, 농촌으로 가고 또 가신다. 군인들과 똑같이, 건설자들과 똑같이 폭우에 옷자락을 흠뻑 적시시며 최전연섬초소로, 훈련장으로, 건설장으로 이른새벽이건 깊은 밤이건 눈이 오고 바람이 불어도 가시고 또 가신다.

찾으시는 곳마다에 인민의 행복의 웃음꽃을 피워놓으시고 세상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시며 온 나라 인민을 영웅의 대부대로 키워가신다.

대를 이어 누리는 수령복속에 날마다 변모되어가는 이 땅, 이 하늘.

모자란 정말 너무나 평범한 생활용품이다. 그러나 그 평범한 생활용품이 얼마나 깊은 사연을 안고 우리의 가슴을 치고있는것인가!

기록영화의 화면들은 흘러가버렸으나 나의 눈앞에는 아직도 그 싸리안전모가 보여온다.

위인의 인간적품모의 증거물인 그 싸리안전모는 우리 인민의 마음속에 길이길이 영생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못 잊을 그리움, 못 잊을 추억이다.

위대한 애국, 애국의 세계

김 경 남

내 잠시 명산을 향해 사색의 나래퍼면
명산중의 명산 묘향산이 말하더라
묘향산등산길 찾아오르시던 장군님
남쪽하늘 바라보시며 어서빨리 조국을 통일하여
남녘겨레들도 이 경치 보게 하자 말씀하셨다고

내 깊은 밤 소쩍새울음소리에 귀기울이면
분계연선 그밤의 소쩍새가 전설로 전하더라
분계연선 찾으신 우리 장군님 소쩍새소리에
남녘겨레 생각나 잠 못이루셨다고

그렇더라
우리 장군님 심중에 어느 하루 한순간도
백두와 한나 재령벌농민과 호남벌농민
따로 있는적 있었던가

조종의 산 백두산에 오르시면
북남삼천리를 한가슴에 안으시고
사색의 심연을 달리시는 깊은 밤에는
남해가의 파도소리 창가에 당겨들으시며
조국통일의 대강 부르익히셨나니
조선아, 너는 둘이 아닌 오직 하나
하나의 유기체로 장군님심중에 자리잡고있었어라

민족의 어버이 우리 장군님
조선, 하나의 유기체를 한생 안으시고
저 남해의 한방울 물에도
락동강기슭 한줄의 모래에도
남해의 어촌마을 소년의 가슴에도
열혈의 정과 사랑을 부어주시며
그것을 위해 한생을 다 바치셨나니

장군님의 애국은
북과 남을 모두 안으신 사랑
온 겨레를 품안으신 어버이사랑
아, **김정일**애국주의는
겨레의 삶의 터전 삼천리 이 강토
하나의 피줄로 형제를 이룬 7천만겨레에 대한
위대하고 숭고한 정과 사랑의 세계여라

민족의 어버이 겨레의 마음속에 영생하시여
그이 안겨주신 애국애족은 영원불멸하고
민족의 구성 우리 원수님 그 정과 열 더해주시거니
겨레여 그 정과 열 용암처럼 부글부글 끓이자
활화산으로 활활 터치자
하어 랭혈의 반통일역적무리들
불사르자 짓부시자
통일되고 강성번영하는 조국 받들어올리자

매혹과 위인칭송의 노래

주 옥

경사로운 광명성절을 맞으며 이 땅우에 위인칭송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이 노래는 불러 다함이 없고 흐르는 세월도 지우지 못할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의 노래이다. 이 열화같은 매혹과 흠모의 노래,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위인칭송의 노래를 부르며 한생토록 심장을 뚫어온 작가들속에는 시인 오영재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은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인 충실성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을 지니시고 오로지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령도자이시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십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남다른 사랑속에 시인으로 성장하여온 오영재는 훌륭한 위인칭송의 시들을 써서 우리 문단에 널리 알려졌다.

오영재의 시들에서는 우선 위대한 장군님의 탄생이 가지는 역사적의의와 위대한 장군님은 주체혁명위업의 위대한 계승자,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이시라는것을 격조높이 노래하였다.

그러한 작품들로서는 서정시 《위대한 탄생》과 《조선의 기쁜 날》을 들수 있다.

서정시 《조선의 기쁜 날》은 위대한 장군님을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장에서 만나뵈은 전민족적인 환희와 감격을 밤하늘에 솟구쳐오르는 축포에 비기여 노래하였다.

모든 사람들의 눈은

하늘을 본다

기쁜 날이다

오래인 인민의 소원이 풀리어

조선이 기쁜 날이다

땅우에만 새겨둘수 없어

오색령롱한 빛갈로

하늘에 새긴

우리의 자랑

우리의 감격

불꽃으로 퍼진 마음의 글발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영상을 비읍는것은 우리 인민의 소원이었다. 그 소원이 풀린 조선의 기쁨이 다름아닌 하늘에 터져오른 축포라고 감수한 여기에 시인의 형상적뒀이 있다. 정녕 우리 인민은 그날의 자랑과 감격을 《땅우에만 새겨둘수 없어 오색령롱한 빛갈로 하늘에 새긴》것이다.

시인은 다음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영광찬란한 혁명활동로정을 포괄하면서 그 로정우에 아로새겨진 불멸의 업적을 칭송한 작품들과 우리 당을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한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러한 작품들로는 서사시 《조선은 빛나라》와 《위대한 우리 당에 영광 드린다》가 있다.

서사시 《위대한 우리 당에 영광 드린다》는 우리 당을 영원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위대성을 칭송하는것을 기본형상과제로 내세웠다. 서사시에서는 우리 당의 창건자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지 못하고 당창건 50돐을 맞이하는 10월의 아침 더욱더 사무치게 그리워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우리 인민의 절절한 그리움의 세계속에서 《ㄷ. ㄷ》로부터 시작된 근한세기에 걸치는 우리 당의 붉은기의 력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를 폭넓게 일반화한데 이어 우리 당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 주체의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령도의 위대성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자기의 독창적인 정치철학으로

일심단결의 혁명철학으로

혁명은 성분을 가지고 하는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사상을 가지고 한다시며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시고

길고긴 나날 우리 당을 이끌어오신 위대한

령도자

이처럼 작품에서는 우리 당을 영원히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존엄높고 권위있는 당으로, 가장 로숙하고 세련된 당, 위대한 어머니 당으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감명깊게 노래하고있는것이다.

이 작품은 일관한 사건줄거리가 없이 흠모와 총정의 열정속에 우리 당의 50년력사가 아로새겨진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품모와 업적의 풍부한 내용들을 장별로 형상구획을 뚜렷이 단락 짓고 시공간적제한성이 없이 폭넓고 심오한 시적 일반화를 실현하고있다. 작품에서는 반영되는 하나의 력사적사실, 사건이나 하나의 일화도 객관적인 라렬이나 설명으로가 아니라 두분의 위대한 수령의 위대한 인간세계, 철학세계가 생활정서적으로 뜨겁게 안겨오도록 심오하고 감동깊게 서정화하고있다.

그리하여 작품의 구성은 력사의 흐름 그대로 광활한 진폭을 가지면서도 규모모가 아니라 사상정서적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으로 형상의 폭과 심도를 훌륭히 보장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을 칭송한 오영재의 송가들에서는 다음으로 장군님께서 지니신 인민에 대한 한없이 자애로운 사랑과 인자하고 겸허하신 품모를 형상하는데 깊은 창작적관심을 돌려 새로운 사상예술적경지를 보여주고있는것이다.

그러한 작품들로는 서사시 《인민의 아들》, 장시 《인민찬가》, 서정시 《위대한 믿음의 글발》 등을 들수 있다.

서사시 《인민의 아들》은 레사로이 흘러가는 평범한 나날의 하루동안에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온갖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는 감동깊은 이야기로 폭넓은 서사적화폭을 창조한 작품이다.

작품은 통일거리 3만세대살림집건설에서 7천세대분을 다음해로 넘기게 해달라는 일군들의 제의를 받으신 위대한 장군님께서 결론을 미루어오시다가 몸소 통일거리건설장에 나가시여 그 해결방도를 찾아주시는 이야기를 사건줄거리로 하고있다. 사건 이야기는 비록 간단하지만 서사시에서는 평범한 하루의 한순간한순간을 오로지 조국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바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정신세계, 위대한 인간세계를 생동한 시적화폭으로 보여주는 감동깊은 생활일화들을 적극 받침하여 다면적으로 파고들어 깊이있게 시화하는 방식으로 폭넓은 시적형상을 창조하였다.

서사시에서는 시인이 부관의 시점에 서서 위대한 장군님의 하루의 일과를 따라서며 그이의 내면심리세계를 파고들어 진실하게 서정화하기도 하고 장군님의 위대한 품모를 생동한 생활적화폭으로 인상깊게 시화하기도 하였으며 위대한 인간상에 매혹된 정서적느낌을 열정적으로 주정화하기도 하였다. 여기에 이 서사시의 형상구성상 특성과 높은 사상예술적품격이 담보된 중요한 비결의 하나가 있다.

인민의 기쁨과 아픔
인민의 념원과 지향을
그이만큼 잘 아시는분 없고
그이만큼 인민위해
몸바쳐가시는분 없기에
나는 그이를 잘 안다

그이에게도 단란한 가정이 있어
가족들과 함께
일요일의 산책길을 거닐어보고도싶고
고요한 호수가에 낚시대를 드리우시고
밀려드는 그 모든 생각에서
잠시 벗어나보고도싶으시건만
그런 휴일을 내지 못하시여라

그이도 우리와 다름없는 인간이기에
때로 끼니를 건드릴 때에는
느껴오는 시장기를 참아야 하셨고
밤이 깊을 때에는
남들처럼 잠자리에 드셔야 하셨다
그러나 그이 언제 주무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라

인민에게 주실수 있는 영광과 행복은 다 안겨주시고 인민을 위해 끝없는 심혈과 로고를 다 바쳐가시면서도 언제나 인민을 스승으로, 선생으로 여기시며 인민의 총복이 되시여 인민에게 보다 큰 영광과 미래를 안겨주시려고 가슴불태우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인간세계를 진실하고 깊이있게 서정화한 이 뜻깊은 장면은 실로 사람들로 하여금 숭엄하고 친근한감을 자아내게 할뿐더러 커다란 격정에 목메이게 한다.

체현한 감정정서를 자그마한 가식도 꾸밈도 없이 소박하고 진실하게 형상한 이러한 감동깊은 장면들로 형상전반에 소박하고 친근하면서도 숭고하고 승

엄한 정서가 풍만하게 흘러넘치게 함으로써 작품의 사상예술적품격은 그만큼 더욱더 생동하고 심오하게 부각되고있다.

위대한 장군님의 광폭정치, 인덕정치를 노래하고 지식인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아 따듯이 보살펴주신 그 은덕을 감명깊게 펴친 작품들도 창작되었다.

그러한 작품들로는 서정시 《위대한 심장을 주다》와 장시 《영원한 동행자의 노래》도 있다.

이 시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문학창작사 전체 성원들에게 보내주신 회답서한을 받아안고 시인이 터친 걱정 of 노래이다.

시 《위대한 심장을 주다》는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드눌지 않으며 역경도 순경으로 만들며 무진장한 활력을 낳은 우리 당의 위력, 세월의 파동이 심할수록 오직 당만을 믿고 따르며 생기넘치고 혈기왕성해지는 우리 인민의 량만에 넘치는 약동하는 힘이 과연 어디서 생겨나는것이며 어디에 그 원천을 두고있는가 하는것을 높은 시형상으로 밝혀내고있다.

그것은
굴발이 아니다
말도 아니다
우리 당이 인민에게
심장을 준것
자기를 다 준것이다

당이 준 심장을 가지고 당을 영원히 따르는 길이 《력사의 진리, 혁명의 생명선》임을 시대의 녀트로 체득하고 심장의 철학으로 깊이있게 노래한 여기에 이 시의 높은 시형상이 있다.

시인은 다음으로 강철의 의지와 담력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앞장에서 헤쳐나가시며 승리를 안아오신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령도업적을 칭송한 작품들과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을 담은 작품들을 창작하였다.

그러한 작품들로는 서정시 《수호자의 선언》, 《선군의 태양》, 《선군의 총소리》, 《그리운 장군님》 등을 들수 있다.

서정시 《선군의 총소리》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피눈물의 해인 주체83(1994)년 12월의 마지막날에 사격장에서 선군의 총성을 울리신 감동깊은 이야기를 시화하였다.

총대만이 사회주의를 지키고 혁명의 붉은기를 더 높이 추켜들게 할수 있음을 온 세상에 선언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철의 의지, 철의 결심을 담은 총소리라는 시인의 철학적사색이 깃든 이 시는 우리 인민에게 큰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

서정시 《그리운 장군님》은 고향방문단으로 서울로 간 시인이 위대한 장군님을 그리며 그 품속에서 사랑과 믿음을 받아안은 지난날을 돌이켜보는 감정으로 엮어진 시이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

칼로도 가를수 없고 분렬의 높은 장벽으로도 막을수 없는것이 혈육이며 부모형제에 대한 그리움인것이다.

그러나 그에게는 부모형제의 정을 초월하는 그것이 있었으니 바로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그리움이였다.

...

사람들 그 누구나 그리워하고 가고싶은 고향
못 잊을 추억들이 따뜻한 훈향으로 풍겨와
못견디게 나를 부르고
품을 벌려 자애로이 웃음짓고있는 고향
그 고향은 진정한 나의 고향은
장군님이시여 당신의 넓고 위대한 품입니다

...

돌아가겠습니다
장군님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영원한 내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

그렇다! 작가 오영재가 메마른 가시밭을 헤치며 거친 길 에돌며 삶의 닳을 내린 곳은 장군님품이였다.

그 길에서 그는 품은 정 식지 않게 덤혀주고 지닌 뜻 번치 않게 깨우치며 보살피는 우리 당의 품에 안겨 장군님식술, 장군님민족이 된것이다.

그의 시에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고마움의 서정이 짙 차흐르고있었다.

시인 오영재는 심장이 가리켜 자기의 고백을 꾸밈없이 적어나갔다.

그는 우리 시인들에게 오늘도 말하고있다.

훌륭한 태양찬가를 쓰기 위해서는 먼저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과 품모에 완전히 매혹되어야 한다고...

매혹된 심장은 아름다운 송가를 낳는다고...

내 한생이 모자라

류길성

내 한생토록 더듬어 새겨보면
다 안아볼수 있으랴
이 나라 조국땅 그 어디라없이
인민사랑의 한길에 정깊이 남기신
아버이장군님의 한생의 자옥자옥

인정도 남달리 많으신분
그이께선 한가정의 가장이시건만
자신의 집을 떠나 멀리
하많은 그 나날들에 묻어두시던
애틀한 그리움은 얼마이시였으랴

그 모든 정과 그리움의 가지가지들
인민이라는 무성한 숲속에 두시고
온 나라 가정의 아버지가 되시여
인민의 집집에 함께 계신분

자신의 꿈과 리상도
뜻도 숨결도 인민에게 두시고
기쁜 일이 생겨도 슬픈 일이 생겨도
그저 우리 인민 우리 인민 하시며 사신분

그이께도 하루는 스물네시간
그이께도 일년은 삼백예순다섯날
인간이 한생토록 걸을수 있는 길 만리라면
그 만리에 천만리를 이어놓으시고
하루를 백날천날로 일하신분

내 다는 모른다
인간이 한생토록 높힐수 있는
심장의 박동수 그 얼마인지
하지만 나는 안다
우리 장군님처럼 그렇게 불철주야
초인간의 의지로 심장을 높뛰우고 불태우신분
세상에 없다는것을

정녕 눈물겨워라
천사람 만사람 꺾을수 없는 고생 다 꺾으시며
천사람 만사람 할수 없는 일 다 해내시며
가꾸시고 지켜주신 행복의 천만년을
인민의것으로 되게 하여주신
한없이 고귀한 아버지의 한생앞에

아, 한생이라 하기엔
너무도 위대한 그이의 한생
베푸신 사랑을 보아도 쌓으신 업적을 보아도
인민이란 말과 함께
인민의 심장속에 끝없이 이어지는
그이의 한생

모자라 진정 모자라
부강찬란한 내 조국강산에 뜨겁게 어려있는
위대한 헌신의 그 자옥자옥 다 새겨안기엔
내 한생이 모자라
모시고 따르며 바치고싶은
내 한생의 모든것이 모자라!

가사

조국이어 말해다오

옥성일

홀려온 세월을 영광으로 빛내온
조국이어 말해다오 그대는 우리에게 무엇이던가
아, 백두의 붉은기는 말하여주네
조국은 조국은 빛나는 그 기폭에 인민을 안으시고
수령님 바치신 한생의 전부라고

뜨거운 추억들이 령길마다 어려있는
조국이어 말해다오 그대는 우리에게 무엇이던가
아, 선군의 총대는 말하여주네

조국은 조국은 뜨거운 정을 다해 이 땅을 품어안고
장군님 불태우신 애국의 넓이라고

백두산대국의 존엄으로 영원한
조국이어 말해다오 그대는 우리에게 무엇이던가
아, 태양의 력사는 말하여주네
조국은 조국은 그 위업 빛내여갈 한마음 신념이 된
원수님 따라나선 천만의 대오라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여 조국의 미래는 창창하다

—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에 대하여 —

김 용 부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기상이 나래치고 그이의 뜨거운 정으로 가득찬 선군조선에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려는 천만군민의 걱정의 웨침이 천지를 진감한다.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구마다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결고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노도와 같이 전진하는 천만의 대오에는 그이의 위대성에 탄복하고 인정의 향기에 매혹된 당의 문필전사 우리 작가들도 서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로동계급의 수령을 형상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수령의 위대성을 잘 그리는것이다.》

지난해 문학예술출판사에서선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작가들이 자기의 뜨거운 심장이 내뿜는 피방울을 충정의 불태로 한점 한점 찍어 창작한 주옥같은 단편소설들을 묶어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을 내놓았다.

《불의 약속》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한 단편소설들을 묶은 첫 단편집이라는데서 또 사상예술성이 비상히 높다는 의미에서 그 의의가 비할바없이 크다.

《불의 약속》에 비친 위인의 숭고한 철학세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안아올리신 승리의 축포가 품고있는 뜻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주체사상탑을 배경으로 펼쳐진 아름다운 불보라, 승리의 축포에는 김정일애국주의의 최고체현자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념과 의지, 뜻과 정이 다 어리어있다. 선군조선의 하늘높이 터져오르는 축포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김정일애국주의, 숭고한 철학세계의 응결체이다.

여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개척하시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주체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충정의 세계, 신념과 의지, 담력과 배짱의 최고화신, 군대와 인민을 자신의 동지, 전우라고 부르시며 뜨거운 믿음과 정을 쏟아부으시는

도덕의리의 위대한 귀감, 지략과 통솔력이 뛰어나고 군사에 능통할뿐아니라 문무를 전면적으로 겸비하고계시는 다재다능한 백두산형의 장군의 숭고한 모습이 그대로 비껴있다.

선군조선의 밤하늘가에 펼쳐진 아름다운 불보라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주체혁명위업을 최후의 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충정의 맹세가 불의 언어로 력력히 새겨져있다.

단편소설 《불의 약속》(김일수)이 이를 예술적으로 확증해주고있다.

《불의 약속》에는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이어 선군조선을 세계에 우뚝 솟은 강성국가로, 대원수님들께서 맡기고가신 우리 인민을 사회주의만복을 누리는 행복한 인민으로 만드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충정의 세계가 맥박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김형직선생님께서 아들대에 못하면 손자대에라도 혁명을 끝까지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혁명은 증손자대에도 계속해야 한다고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이 매일 매 시각 울리고있다.

전승열병식장의 주석단에서 내리신 그길로 강남요업공장을 찾으시고 돌아오시는 길에 대동강가에서 전승의 축포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폐허로 된 이 땅에 저 하늘의 빛나는 축포의 불꽃들을 다 내리워 온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라원을 일떠세울 결심을 굳게 다지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고난의 행군시기 전선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시는 길에 불꺼진 평양의 거리를 가슴아프게 바라보시며 《한줄기 밝은 빛이라도 더 해줄수 있다면》라는 시구절을 외우시면서 자신의 한몸을 깡그리 태워서라도 우리 인민에게 밝은 빛을 주리라 굳게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선 그날의 결심대로 준엄한 선군의 길에 무수한 땀방울을 뿌리시면서 한생을 불같이 사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바라시던 그 모든것을 기어이 실현하시려는 굳은 맹세를 종이우에다가 쓰신것이 아니라 무변광대한 저 하늘에 불의 언어로 새기시였다. 그러한 의미에

서 축포야회 《강성대국의 불보라》가 펼쳐놓은 아름다운 축포는 어버이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께서 선군장정의 천만리길에 바치신 헌신의 자욱이 빛 뿌리는 것이며 강성국가의 대문을 두드리는 조선의 통쾌한 웃음소리이며 미래를 향하여 돌진하는 조선의 기상이며 우리의 밝은 미래를 비쳐주는 휘황한 빛줄기라고 말할수 있다. 그 헌신의 정화, 그 통쾌한 웃음소리, 그 불굴의 기상, 그 미래를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불의 언어로 세계에 선언하시였다.

단편소설 《미소》(랑호신)역시 백두에서 날리던 위대한 수령님의 붉은기, 사회주의수호전의 준엄한 격전장들에서 세차게 휘날리던 위대한 장군님의 붉은기를 통일된 조국강산, 강성국가의 높은령마루우에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나뭇기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계속혁명사상을 건군절정축공연의 설화시창작지도를 통하여 의의있게 밝히고있다.

선군조선의 밤하늘가에 펼쳐진 아름다운 불보라에는 탁월한 군사적지략과 비범한 평군술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굴의 신념과 의지, 강철의 담력과 배짱이 비껴여있다.

단편소설 《하늘과 땅, 바다》(정기중)가 이를 무게있게 립증하고있다.

최대의 애국은 조국수호에 있다. 조국수호전의 최전연에는 언제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서계시였다.

2009년 4월 5일을 전후로 이 땅은 미제침략자들과의 준엄한 결전장이였다. 시험통신위성 《광명성-2》호 발사를 《신의 주먹으로 짓부셔버릴것》이라는 오바마의 악청은 조선반도의 정세를 극도로 첨예화시켰다. 《신의 주먹》이란 곧 핵무기를 의미한다. 이것은 곧 핵전쟁을 말한다.

그러나 철의 의지와 담대한 배짱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대답은 오직 한가지였다. 만약 적들이 기어이 우리의 위성을 요격하면 그것은 곧 전쟁을 의미한다, 선제타격은 적들에게만 있는 선택권이 아니라고 불같이 언명하시였다.

우리 원수님의 선언은 결코 빈말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한세웅련대장의 503항공련대를 출격시켜 조선동해 공해상에 있는 적의 기동분함대에 모의습격을 단행하도록 조직하시였다. 하늘에서 진행된 모의습격, 잠수함들의 출격, 미군의 전략적대상들을 겨누는 우리의 미싸일발사준비, 립체전으로 진행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작전앞에서 초풍기절한 오바마는 겁에 질려 《데프콘3》작전을 즉시 중지하라고 다급히 소리질렀다. 결국 백두산형의 장군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탁월한 군사적지략과 담대한 배짱앞에서 허장성세하던 오바마는 서리맞은 배추잎의 신세가 되고말았다.

선군조선의 밤하늘에 펼쳐진 아름다운 불보라

에는 일심단결의 사랑의 화원을 가꾸어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영상이 비껴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사랑과 정을 바쳐 가꾸어오신 일심단결은 선군조선의 가장 위력한 무기이다. 혁명의 천하지대본인 일심단결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에 기초하고있기에 그 어떤 퇴성벽력에도 드물지 않는 가장 공고하고 영원한 단결인것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대원수님들의 광폭정치를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신다.

단편소설 《들꽃의 서정》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펼치시는 광폭정치의 심오한 철학을 담고있다. 조국을 배반하였다가 인권의 불모지에서 쓴맛을 다 보고 다시금 조국의 문을 두드리는 한 녀성이 있다. 일군들은 조국을 한번 배반한 인간은 두번, 세번도 배반할수 있다는 기성관념에 사로잡혀 안타까이 두드리는 문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것은 옳다고 우리모두는 생각한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달리 생각하신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정을 다 바쳐 키우신 자신의 피와 살점같은 인민을 원썬들의 편에 넘겨버릴수 있는가, 없다. 그를 데려와야 한다. 이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단호한 결심이시였다.

일군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앞에 머리를 숙이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일찌기 우리 당의 정치는 광폭정치라고 하셨는데 허물이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버리려고 하였다가 그이께 죄스럽게 말씀드리였다.

순간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광에서 번뜩이는 빛이 뿜어나오셨다. 사람들이 가지고있는 허물을 탓하지 않는것이 광폭정치란 말인가? 관대성?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왔다. 그러나 애국, 애민의 사상을 가장 숭고한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광폭정치의 본질을 달리 생각하신다. 허물을 탓하지 않는것만이 아니다. 그 허물을 씻어주어야 한다. 진정 어머니처럼 누구보다 그 허물을 가슴아파하며 하루빨리 씻어주자고 더 정을 쏟아붓는것이 우리 당의 광폭정치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이렇듯 크나큰 사랑과 믿음에 받들리어 비행기가 하늘중천에 날아올랐으며 원수님의 인간사랑의 향기가 풍기는 꽃다발을 들고 일군들과 가족들이 비행장에 나가 그를 따듯이 맞아준다. 이처럼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광폭정치의 본질을 철학적으로 심오하게 파헤친데 이 작품이 거둔 성과가 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뜨거운 동지애와 전우애를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시니 일심단결의 위력을 더욱 공고하게 다져나가신다.

전쟁을 해도 큰 사랑을 안고 해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전쟁관이다. 조국수호의 성전에 나선 병사들에게 적들에 대한 무자비한 징벌과 증오심만 심어줄것이 아니라 동지들과 전우들, 조국과 인민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심어주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상이다.

단편소설 《하늘과 땅, 바다》에서는 것처럼 엄혹한 순간에 본인도 친아버지도 생각지 못하던 안해의 심장수술을 놓고 것처럼 마음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물결치고있으며 단편소설 《성전의 나팔소리》(리동구)에서는 **김일성**군사종합대학 연구사 엄남용의 톤문을 지도하시면서 혁명전쟁의 본질을 단순히 적들에 대한 무자비한 증오와 징벌만으로 일면적으로 규정한 오류를 두고 우리의 혁명전쟁은 어디까지나 조국과 민족에 대한 사랑과 믿음으로 벌리는 전쟁이라는것을 뚜렷이 부각하도록 연구사를 이끌어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지니신 숭고한 전우애는 단편소설 《붉은 감》(김영희)에서 뜨겁게 노래되고 있다.

아버이수령님께서 내세워주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애모른 정으로 사랑하시고 애면글면 키워주신 감나무중대의 녀병사들을 자신께서 말아안으셨다는 가슴빠근한 책임감으로부터 나의 병사들을 과연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져야 할것인가를 늘 가슴속에 묻어두고 사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이시였다. 그이께서는 몸도 체소하고 가냘프고 해말썽한 나 어린 처녀병사, 노래부르기도 신통치 않고 악기도 자신있게 타는게 없고 체육은 더욱 난감한 애 어린 병사, 근무서던 날 수천메터앞에 있는 바위섬 극도를 적구축함으로 잘못 보고 너무도 급하여 《할머니!—》하고 찌지는 비명을 지르던 어린 병사도 사랑의 품에 안아 일당백의 어엿한 녀성병사로 키워주시고 자신의 전우라고 높이 내세워주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매 병사들 한사람한사람을 개별적으로 기념사진을 찍어주시는 감동적인 화폭에서 독자들은 동지애, 전우애의 위대한 귀감이신 우리 원수님의 뜨거운 인정에 목이 메여 눈물짓는다.

단편소설 《일곱번째 상봉》(최봉무)에서도 한 병사가 갖고있는 미술적재능을 찾아주시고 그에게 따뜻한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모습을 뜨겁게 형상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군민단결의 확원도 아름답게 꽃피워주시어 억년 드물지 않는 일심단결을 마련해주시었다.

단편소설 《감사》(윤경찬)는 모순아닌 《모순》을 아름답게 그리고있다.

로동자들이 리용할 강성원전설에 동원된 부대의 어느 한 중대에서 《벌치식혜사고》가 났다. 청진에서 입대한 신대원이 독감에 걸려 식사도 제대로

못하는것을 안타까이 바라보던 중대장 강철호는 애인인 유치원교양원에게 식혜가 없는가고 얼핏 스친적이 있었다. 그것은 곧 원장, 지배인, 경리과장에게 전달되어 멀리 동해기슭의 어느 한 마을에 가서 벌치식혜 한단지를 구해다 중대에 주었다. 이것이 사달이 되였다. 한것은 생활이 펴이지 못한 그곳 인민들에게 절대로 부담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령을 받았기때문이었다. 공기와 물만 마실것! 이것이 부대병사들에게 내린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이렇게 놓고보면 이것은 큰 사고였다.

강철호는 즉시 자격정지처벌을 받고 병사생활을 하게 되였다. 공장지배인, 당비서, 이곳 로동자들은 부대지휘관에게 몇번이고 간청하였다. 이것은 애매한 처벌이니 벗겨달라고... 그러나 지휘관들은 요지부동이었다. 할수없이 이 문제는 도당에, 도당에서는 중앙당에 도와달라는 요청으로 올라갔다. 이것은 아름다운 《모순》이었다.

소설은 이러한 모순아닌 《모순》이 많을수록 우리의 일심단결은 더욱 강해질것이며 강성국가의 령마루에 힘있게 떠올려주는 력사의 원동력으로 될것이라는 사상을 강하게 주장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을 잃은 피눈물속에서도 민족애의 뜨거운 정을 부으시여 민족대단결의 아름다운 력사를 창조하시었다.

아버이장군님을 너무도 일찌기, 너무도 갑자기 잃은 민족의 대국상을 오히려 《북의 붕괴설》로 이어간 놈들은 민족의 아픈 상처에 칼질을 하면서 비상경계령을 내리고 《체제전복》의 기도를 드러내었다. 어떻게 할것인가. 이런 엄중한 정세앞에서 남조선조문단이 들어올 남쪽대문을 열어놓아야 할것인가, 막아야 할것인가. 문제는 심각하게 제기되였다. 막아야 한다는것이 일군들의 일치한 제기였다. 그러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인민이 흘리는 저 눈물을 안고 혁명을 할것이며 저 눈물로 한평생 가슴을 적시며 장군님께서 걸으신 길을 이을것이라고 하시면서 자신께서는 이번의 눈물속에서 더욱 강해질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시었다.

12월의 눈물, 그것은 위대한 장군님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영원히 받들어모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충정의 눈물이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시려는 맹세의 눈물이었다.

이것이 바로 단편소설 《12월의 그이》(황용남)가 해명한 12월의 눈물이 가지는 철학적의미이다.

여기에는 민족대단결의 의미도 진하게 깔려있다. 놈들의 북행길차단속에서도 리희호녀사의 북행길이 열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김대중일행을 맞이할 때처럼 똑같이 그를 마중하고 숙식조건을 보장하여

주도록 보살펴주시었으며 집전시에는 《할머니》라고 다정하게 불러주시었다. 《할머니》라는 이 한마디의 부름속에 친혈육사이에만 통하는 육친의 정이 흐르고 민족의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진리가 깔려있다.

선군조선의 밤하늘에 펼쳐진 아름다운 불보라에는 조국의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다 자기 품에 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덮혀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가장 숭고한 **김정일**애국주의가 비껴있으며 숭고한 후대판, 미래판도 응축되어있다.

단편소설 《푸른 강산》(백보흠)은 위대한 장군님의 발자취가 어려있는 양묘장을 찾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나라의 흙 한줌,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도 귀중히 여길줄 아는 사람이 참된 애국자라는 높은 평가를 주시었다. 그러시면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일은 후대를 사랑하는 애국자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내 나라의 푸른 하늘을 맑은 공기로 가득 채우고 우리 나라의 산들을 나무숲이 우거진 사회주의선경, 황금산, 보물산으로 만들어 후대들에게 넘겨주자고 뜨겁게 호소하시었다.

양묘장을 단지 나무모만을 키우는 식물재배장이 아니라 애국자들을 키우는 인간양성의 원종장으로 만들어야 한다는것이 이 소설이 주장하는 열렬한 호소이다.

이외에도 단편소설 《스승》(김삼복)은 교육자들을 조국의 미래를 키우기 위하여 자신의 량심을 묵묵히 바쳐가는 애국자들이라고 높이 평가하시면서 내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만드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후대판을 감명깊게 그리고있다.

이상에서 보는바와 같이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은 **김정일**애국주의의 최고체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위대성을 불멸의 화폭으로 형상한 주옥같은 단편소설들로 가득차있다.

형상의 견인력과 감정정서적충격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에 오른 단편소설들의 사상예술적성과는 비할바없이 크며 그 품위로 하여 주체문학의 귀중한 재보로 된다.

단편소설집에 오른 소설들의 예술적성과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수 있다. 짧은 단편에 사실자료를 밀어넣어 격을 높이고 작품의 무게를 보강한것, 기성관념을 뒤집어엮고 새로운 철학적문제를 제기하는 식으로 뒤집기수법을 적극적으로 리용한것, 대비적수법으로 작품의 주제사상을 강조한것, 심리분석적인 묘사로 위인의 숭고한 정신세계를 부각시킨것, 생활적인 대사의 창조로 위인의 체취가 확 풍기게 형상한것 등 그 성과를 이야기하자면 끝이 없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강한 감정정서적충격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형상을 어떻게 최상의 경지에 올려세웠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서만 언급하려고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제9차 전국예술인대회에 보내신 서한에서 군인들과 인민들에게 우리당의 사상과 정책, 의도를 생동한 예술적형상을 통하여 감정정서적으로 파악시키고 깊이 심어주어야 한다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우리 작가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미학사상을 심장에 정으로 쏘아박듯 새기고 수령형상주체의 소설창작에서 독자들에게 수령의 위대성을 생경하게 인식시키려고 할것이 아니라 생활적으로 진실하게 감정정서적으로 뜨겁게 파악시키고 깊이 인식시켜야 한다. 독자들에게 강한 정서적충격을 안겨주어야 수령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되고 경탄하며 한생을 바쳐 모시고 따르려는 충정의 결의가 한가슴 차고넘치게 된다.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에 오른 작품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새로운 예술적경지에 오르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은 강철같은 의지와 신념을 지니고계실뿐만아니라 다감하고 섬세하고 부드러운 인정의 세계를 지니신 위인중의 위인이시다.

단편소설 《하늘과 땅, 바다》에서 특색있게 그린바와 같이 불과 불, 철과 철이 맞서야 할 격전 전야에서도 어느 한 공군련대장의 부인이 심장병으로 고통받는것을 아시고 남편도 아버지도 아직 모르는 수술과정을 친히 지도하시는 모습, 철쭉꽃을 그토록 사랑하시던 어머니와 심중의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은 독자들을 뜨거운 걱정 of 세계에 파묻히게 한다.

단편소설 《12월의 그이》에서 주는 정서적충격은 강렬하며 그 세기가 높다.

...이윽고 그는 자식들의 부축을 받으며 **김정은**동지의 앞에 나섰다. 두손을 마주 내미시는 **김정은**동지의 림름한 모습을 바라보는 순간 리희호는 느닷없이 마음이 편안해지는것을 느끼였다.

《부위원장님! 국방위원장님에 대한 도리를 이렇게밖에 지킬수 없는 저희들을 부디...》

그는 남조선민중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김정은**동지께 사회의 말씀을 올렸다.

《할머니!》

그 순간 리희호는 흠칫 몸을 떨었다. 전신에 짜르르 전류가 흘렀다. 그래 그래, 이진 친혈육사이에만 통하는 육친의 정이 내 몸에 흘러드는거야. 피줄은 감출수 없는 법이지.

그이께서 리희호의 두손을 따뜻이 감싸주시었다. 아, 그 포근함이란...

녀사가 아니라 《할머니》라고 부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속에 위인중의 위인이 지니신 뜨거운 인간의 정, 혈육의 정이 다 응축되어있다. 《할머니》라고 다정히 불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말씀이 리회호만 올린것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 인민을 울리고 무한한 인정의 바다로 이끌어간다.

여기에 바로 정서적충격의 거대한 힘이 있으며 그 무엇으로도 막을수 없는 견인력이 있다.

단편소설 《붉은 감》이 주는 정서적충격도 크다.

쌍둥이형제중 동생의 눈물에 젖은 대사가 우리를 걱정의 파도속에 밀어넣는다.

《사실 우린 쌍둥이이지만 아버지도 우릴 랑옆에 세워놓고 사진을 찍어준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원수님께서 우리가 쌍둥이자매라는것을 아시고 언니와 나를 랑옆에 세우고 기념사진을 찍어주셨답니다. 그래 동무들중엔 아버지하고 단둘이 사진찍어본 동무가 있니?》

《없어.》

모두가 입을 모아 대답하는 말이였다.

사실 눈물이 나도록 뜨겁고 환성이 터쳐지는 이 행복하고 정넉친 장면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명장면중의 명장면이다.

작가는 섬세한 화가의 눈으로 이 장면을 포착하고 이야기흐름의 절정우에 올려놓은 후 명장면으로 그려놓았다.

대조의 수법으로 정서적충격을 강하게 주는 소설도 있다.

단편소설 《들꽃의 서정》에서는 조국을 배반하였다가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속에서 평양에 자리를 잡는 한 녀인과 평양을 떠나 조국수호전의 최전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인민군군관의 형상을 대조적으로 보여주어 경애하는 원수님의 광폭정치의 새로

운 본질적의미를 증폭시키고있다.

상봉이라는 근거있는 감정조직으로 정서적충격을 강하게 주는 소설도 있다.

단편소설 《일곱번째 상봉》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선시찰과정에 소묘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병사를 찾아내시고 그를 위대한 장군님앞에 내세우려고 친부모처럼 마음을 쓰시는 감동적인 화폭을 보여주고있다.

꿈결에도 그리워하던 뜨거운 상봉은 본인의 부대이동, 제대, 외국출장 등으로 매번 성사되지 않는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도 속을 태우시고 독자들도 애간장을 태운다. 일곱번째 상봉은 조선인민군 미술전시회장에서 그의 그림과 위대한 장군님과의 상봉으로 이루어진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그의 그림을 보시고 높은 평가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마련해주신 상봉은 이렇게 행복의 절정우에 올랐다.

이처럼 일곱번째 상봉에 이르기까지의 감정정서는 팽배하게 이어지며 그의 정서적느낌은 강렬하다.

×

단편소설집 《불의 약속》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형상한 첫 단편집으로서 그 의의는 비상이 크며 그로 하여 주체문학사의 귀중한 재부로 된다.

우리 작가들은 명작폭포로 당의 령도를 충정으로 받들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늘 그리워하고 꿈속에서도 뵈고싶어하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형상을 더 품위있게, 더 뜨겁게, 더 절절하게 창작하여야 한다.

가 사

포구의 자랑

박진명

동서해라 어절씨구 동이 트며는
포구마다 출항의 배고동소리
바래우는 사람마다 똑같은 마음
부탁도 만선이요 약속도 만선
배머리 높이 들고 떠나간다오
(후렴)
아헤 우리네 포구엔 자랑도 많아
만복이 꽃피나는 내 나라의 자랑일세

포구라 어절씨구 별이 뜨며는
기다리던 귀항의 배고동소리

가공장 처녀들의 고운 꽃수건
풍어기 반기며 기쁨에 한들
만선의 기쁨이 차넘친다오
(후렴)

넘쳐나네 어절씨구 포구의 자랑
온 나라에 바다향기 풍겨간다오
원수님 모시여 꽃피는 행복
물고기풍년에 웃음도 풍년
풍어기 사시절 문제없다오
(후렴)

김정은장군 백두산기슭을 걸으시다

김 정 순

즐거줄기 비쳐드는 밀림의 해살에
걸음걸음 이슬젖은 어깨는 번쩍이네
오랜만에 다시 찾는 고향길인듯
뜻깊은 감회속에 그이는 걸으시네

우리 장군 걸으시네 백두산기슭을
머리우에 술렁이네 푸르른 이깔숲

누리에 환하신 영상
후리후리한 키에 정기 넘치신 눈빛
젊으신 수령님과 장군님을 다시 뵈는듯
백두밀림은 씩－ 설레는데

어디선가 어깨에 총을 추스르는 소리
저벽저벽 가까워오는 행군의 소음
문득 빨찌산척후대가 나타날듯 해
장군은 잠시 귀를 기울이시네

썩－아 썩－아
높아가는 천리수해의 설레임소리
힘준한 세월의 격풍을 박차며
장엄한 열병대오가 파도쳐 달려오는듯

우리 장군 걸으시네 백두산기슭을
못 건디게 정다웁네 그림던 옛 전장처럼

들려오네!
머리우에 반일인민유격대 첫 군기의 퍼덕임
김일성광장의 찬란한 대통로우에

조선인민군 군기종대의 벽찬 발걸음소리

보여오네!
훈훈한 새벽안개속 저기－
송진내 구수한 사령부귀틀집
아, 귀틀집문이 열리면 활짝 열리면

벽에 걸린 작전지도앞에서 돌아서시는
백두산호랑이 김일성대원수님과
빨찌산의 아들 김정일대원수님
우리 장군 왔는가 반가이 마중해주실듯

우리 장군 걸으시네 백두산기슭을
밀림우에 떠오네 성산의 붉은 노을

오, 돌아보면 저 백두의 하늘아래
얼마나 준엄하고 위대한 시대가 따라섰는가
장백산 즐기줄기 피어린 자욱
백두산 즐기내려 금수강산 삼천리...

백두산 백두산 기슭에서 기슭까지
주체의 혈통 이어 성스런 한세기 달려왔네
또 한분의 백두장군 높이 모신 내 조국
통일강국 대문가에 발걸음 더욱 높네

우리 장군 걸어가네 우리 조선 나아가네
김정은장군따라 세계의 한복판으로!

주체100(2011). 1.

가 사

명포수, 명사수의 명예 떨치리

리 명 학

멸적의 조문안에 원수들을 걸어놓고
서리발 포신에선 불줄기 쏟아진다
명중 명중 그 언제나 명중만 아는
우리는 원수님의 명포수 명사수이다

보이는 목표판은 제국주의물골이다
불타는 증오를 재워서 날려보내리

명중 명중 그 언제나 명중만 아는
우리는 원수님의 명포수 명사수이다

판가리 결전장에 명령만 내려지면
단방에 원수의 아성을 부셔버리리
명중 명중 그 언제나 명중만 아는
우리는 원수님의 명포수 명사수이다

《우리 인민군대 만세!》

허 수 산

내 여섯살때이리라
해방맞아 세해후
마을어구 술대문에 써붙인 구호
《우리 인민군대 만세!》

아직 글자도 다 모르던
짚신발의 소년
그러나 우리에게 또 하나
큰 명절이 생겼다는
그 기쁨으로 들쭉던 가슴

우리 동무 철이 형님도
인민군대 나갔대
3대로 풀머슴 하던
김침지로인의 손자도
인민군대 나갔다는 소문 짝악—

우리 군대 인민군대
얼마나 장한 이름인줄
그때 내 몰랐다
할아버지 할머니
일제놈들 총구아래
나라없는 백성으로
피눈물 흘렸다는 이야기

저기 백두산에서 큰별 하나
전설적위인 **김일성**장군님께서
우리 군대를 무으시고
강도 일제를 때려부신다는 이야기
끝내는 해방을 가져오셨다는
총대력사의 의로운 이야기여!

참으로 얼마나 가고싶던
우리 정규무력 총대이던가
우리 수령님께서
백두산에서 키워오신
항일유격대원들을 골간으로
정규무력의 강화발전을 온 세상에 선포하신
아, 2월 8일이여

그날부터 우리는
무섭지 않고 마음 든든하였다
인민군대 위문공연 가던
2월 8일은
날씨도 푸근한 명절이었다

우리 수령님
2월 8일 그날을
이 땅에 안아오시지 않았다면
우리 어찌 2년후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제를 때려부실수 있었으랴

총대이자 민족의 생명임을
가르쳐주신 전설적영웅 우리 수령님
또 한분 백두령장 **김정일**장군님께 의해
우리는 무적필승 선군정치로 나라로
세계의 면전에 쏙— 나섰다
우릴 누가 감히 건드릴수 있다더냐

4.25와 어깨나란히
정규무력으로 강화발전된 2월 8일
오늘 내 나이들어 다시 외우니
가슴이 그날처럼 설레인다
오늘은 또 한분의 백두령장 모시여—

분명히 이날은 경축의 날이다
승리의 전통을 계승한 우리 군대의 력사

오늘 제아무리 미제와 그 주구들
우리를 없애버리려 하건만
멸망을 면치 못하리

이 땅의 누구나
《우리 인민군대 만세!》
소리높이 웨친다
이는 우리가 영원히 자주적인 나라로
영원부강하리라는
우리 천만군민의 철석의 신념의 퇴성이여라

◇역사의 산화폭, 생동한 묘사◇

—총서 《불멸의 역사》 장편소설 《열병광장》중에서—

정 기 중

...

바야흐로 혁명적인민투력의 건설을 선포할 그날이 다가오고있었다. 보안간부훈련대대부 문화부사령관 김일은 열병식준비사업으로 눈코뜰새없이 바빠 돌아왔다.

안길은 열병식까지 견디어내려고 안간힘을 다 쓰고있었다. 그러나 끝내 쓰러짐으로 병치료를 가는데 동의하였다. 병치료가 아니라 사실상 꺼져가는 생명의 불꽃을 가능한 연장하기 위한 비상조치라는것을 그는 알고있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김일성**동지께서 전날에 벌써 리학을 불러 비행기로 후송할데 대한 임무를 주시였었다. 그러나 그날 비행기는 뜨지 못했다. 흐린 날씨에 눈까지 내리기 시작했던것이다.

안길은 말했다.

《눈이 내릴 때면 왜 그런지 늘 어릴 때 일들이 추억되면서 까닭없이 즐거워집니다.》

김일성동지께서는 혹시 그가 판생각을 품고있지 않나 하여 우정 다짐을 두시였다.

《눈이 멎으면 밤이라도 비행기를 띄우겠소. 이번엔 꼭 간다고 약속했다는걸 잊지 마시오.》

《알고있습니다.》 안길이 대답올렸다. 《저때문에 너무 마음쓰지 마십시오. 꼭 갑니다.》

《오늘 황철에서 3호용광로 출선식이 있는데 같이 가보지 않겠소?》

《아닙니다. 장군님, 전 열병훈련장에 나가있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오. 말은 타지 말고.》

《알았습니다, 장군님!》

류달리 패활해진 안길이었다. 쓰러짐으로 가는것이 무척 기쁜듯 한 인상이었다.

정오까지 그이께서는 황해제철소에 나가계시였다. 3호용광로 출선식에서 황철로동계급에게 동방에서 제일가는 부강조국건설을 위하여 매진하자는 내용의 축사를 하시였다. 돌아오시는 길엔 **김일성**종합대학 새 교사건설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한편 평양혁명자유가족학원 교사건설에서 제기되는 문제도 풀어주시였다.

밤이 왔다. 눈이 계속 퍼부어지고있었다. 낮동안 일시 뜸해지더니 저녁부터는 함박눈이 쏟아져내렸다. 안길이 말한것처럼 눈이 내리면 마음이 즐거워지는 법이다. 하얀 눈, 소리없이 내리는 정결한 눈... 춤추듯 하늘거리며 퍼부어지는 눈송이들을 맞을 때면 늘 어린시절의 홀려간 나날의 못 잊을 추억들이 가슴가득 쌓여지며 오늘과 래일의 기쁨과 희망이 꿈결처럼 안겨지곤 한다.

그러나 이밤 **김일성**동지께서는 그 눈송이들이 불러주는 정겨운 음향에도 불구하고 어인 일인지 눈시울이 떨려나는 심정이시였다.

안길은 돌아오지 않았다.

밤 10시가 넘었다.

전화종소리로 울리지 않았다.

모든것이 잠들었다. 눈송이들만이 끊임없이 사룩사룩 고요히 속삭이며 대지를 덮고있을뿐... 누가 맨 처음 함박눈이 펄펄 쏟아진다고 했던가, 펄펄... 그것은 무엇을 뜻한것일까. ... 그이께서는 더 이상 기다리고만 있을수 없으시였다. 문수비행장으로 차를 달리시였다. 열병식을 준비하는 구분대들이 지금 그곳에 전개해있는것이다.

전조등빛이 하늘가득 쏟아져내리는 눈발을 헤치며 앞서갔다. 눈송이들의 하염없는 속삭임소리로 들려오는듯... 모든것이 흰눈을 맞으며 고요히 잠들어있다. 낮추 드리운 하늘, 키높이 자란 길가의 백양나무들도 묵묵히 명상에 잠겨 서있었다.

흰눈에 덮여있는 문수벌에서 잠들지 않고있는것은 안길뿐이였다. 비행장 한끝에서 말고삐를 잡고 서있는 안길, 전조등빛에 비쳐진 안길은 웬일인지 말에 오르지 못해 모지름쓰고있었다. 한손엔 고삐를 쥐고 다른 손으로는 안장을 잡으며 등자에 발을 꿇고 몸을 숙구치곤 하였으나 번마다 무너지듯 떨어져내리곤 했다. 공꿀말이 다리를 저저디디며 눈덩이들을 걷어챘다. 그리고는 대가리를 숙이고 안길의 손잔등을 허로 활는것 같았다. 열병대오의 지휘관인 참모장에게, 래일의 총참모장에게 제발 힘을 내라고 격려하는듯싶었다.

안길은 자기에게로 비쳐진 전조등빛을 무심히 힐끗 돌아보고는 (아마도 열병식을 위해 준비한 대렬차려니 했을것이다.) 또 헛되이 안간힘을 썼으나 끝내 허우적거리며 눈속에 쓰러지고말았다.

《불을 끄오.》

그이께서 아픔에 겨워 힘들게 하신 말씀이였다. 더이상 그 정경을 보기가 피로우시였다. 불현듯 신음소리를 삼키며 눈을 감으시는것과 동시에 전조등이 꺼졌다. 그러나 다시 눈을 뜨셨을 때 안길은 또 일어나있었다. 흰눈의 세계에서 홀로 유령처럼 움직이고있다. 말머리를 토닥거리주고 또 등자에 발을 꿇고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차에서 내리시었다. 문짝을 소리없이 밀고는 거의나 무릎까지 빠지는 눈속을 걸어가시었다.

《안길동무!》

이렇게 소리쳐부르셨으나 안길은 듣지 못한듯 했다. 아니, 들을수 없었을것이다. 목이 콕 메인 그 음성, 그이자신께서도 그것을 듣지 못하셨으니 그것은 다만 마음속에만 터쳐진 웨침이였는지도 모른다.

그이께서는 퍼붓는 눈발속으로 막 달려나가시었다. 두렵게 쌓인 눈속에서 장화발소리가 빠르게 거리고 눈가루들이 그이의 외투앞섶에 허영게 불렀다.

《안길동무!》

비로소 안길이 머리를 돌렸다. 첫순간엔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한듯 굳어져있었으나 다음순간 《장군님!》 하고 부르짖으며 마주 달려왔다. 아니, 달려오려고 했다. 김일성 동지께서는 눈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를 잡아일으켜주시었다.

《안길동무, 여기서 혼자 뭇하는거요?》

《장군님!》 안길의 목소리는 신음소리에 가까웠다. 《마지막으로... 열병대오를 돌고... 장군님께 보고드리고싶었습니다. 열병식에서처럼... 제식대로 한번 해보고싶었습니다. 그런데... 인젠 그만... 힘이 진했는지...》

《...》

그이께서는 목이 잠겨 아무 말씀도 하실수 없었다. 천천히 안길의 옷에 뒤덮인 눈을 털어주시었다. 어깨와 가슴 그리고 모자의 눈과 바지무릎의 눈까지 아무말없이 털어주시려니 눈굽이 저려드는 것을 참을수 없으시었다.

이 사람을 보내야 하다니, 열병식을 앞두고... 것처럼 건군사업에 몸과 맘 다 바쳐온 이 사람들... 진정 그의 생명을 잠시나마 더 연장하기 위해 떠나 보내야 하는가. 그의 몸과 마음에까지 수술칼을 들이대어야만 하는가. 그의 마지막기쁨을, 눈물의 행복을 빼앗고나면 무엇이 남겠는가. 그렇게 연장된 삶이 이 안길에게 과연 무엇이란 말인가?... 마침내 그이께서는 뜨거운 숨결을 퍼붓고있는 안길의 어깨를 짊어잡으시었다.

《안길이, 그런데... 이번엔 왜 때를 쓰지 않았소, 응?!... 죽어도 못 가겠다고 왜 뻔대지 않았는가 말이요!》

안길은 흐느끼는듯 했다.

《장군님, 장군님께서 것처럼 괴로워하시니... 견딜수 없었습니다. 제 고집만 부리면서... 그렇게 뻔대면 장군님께선 어찌하시겠습니까. 아니, 그렇지... 할수가 없었습니다. 배를 찢구 심장을 도려낸다 한들 그보다야... 눈을 편히 뜨구 장군님께서 가슴아파하시는걸 보기보다야 더 괴롭구 아프겠습니까!...》

눈송이들이 눈앞에서 세차게 사물거렸다. 그것들의 눈물겨운 속삭임소리가 밤하늘에 짹 들어왔다. 고요한 밤을 흔들고 뜨거워진 가슴을 흔들며 하염없이 쏟아져내리는 그 눈송이들의 흐느낌소리, 정녕 대자연은 바로 이 시각을 위해 숨겨두었던 눈송이들을 아낌없이 죄다 퍼붓고있는것이냐 아닌지?... 그이께서는 말고삐를 꼬당겨 자신의 손에 감으시었다. 그리고는 말머리를 돌려 그의 옆에 붙여세우시었다.

《자, 오르오, 내가 도와줄게.》

《장군님, 이러시면...》

《오르라니까. 자, 힘을 내오. 등자를 딛고... 그렇지, 하나, 둘... 셋!》

그이께서는 안길을 힘껏 들어 말잔등에 올려주시었다. 그가 편히 자리잡고 앉는것을 보자 말고삐를 당기며 걸음을 옮기시었다. 자신께서 말을 끌어주시려는것이였다.

안길이 놀라서 부르짖었다.

《장군님, 안됩니다. 그러시면... 안됩니다.》

《일없소, 가만히 앉아있소.》

《장군님, 그럼 저는... 저는 뭐가 됩니까. 네?!》

《뭐가 되긴. 총참모장이 열병부대들의 보고를 받으러 나가고있지 않소.》

《장군님!...》

《가만 있으라는데.》 그이께서는 마치 어린 소년을 타이르듯 하시었다. 《자 안길이, 저길 보오. 광장에 열병종대들이 쭉 나와 정렬해있소. 지금 다들 말을 탄 총참모장을 바라보고있지 않소. 안길동무랑 애써 키운 우리 당의 혁명적무장대오요. 총참모장의 인사말을 기다리고있소. 어쩔소, 안길동무. 그날의 열병식장이 눈에 보이지 않소?》

《예, 보입니다. 장군님, 환히... 보-보입니다.》

끝내 터져나오는 오열을 참지 못해 안길은 어깨를 마구 떨었다. 그의 어깨우에 쌓이던 눈송이들이 소리없이 흐트러지며 떨어져내렸다. 그리고는 또 내려쑤인다. 어둠을 밀어내며 끊임없이 내리고 내리는 눈송이들, 그이께서도 걸음을 멈추지 않으신다. 공골말도 두귀를 쫓긋거리며 무엇인가를 엿듣고있다. 펄펄 내리는 눈송이들의 속삭임도 그치지 않는다.

안길은 어느덧 허리를 굽히고 말갈기를 잡고있었다. 눈물에 젖은 얼굴을 돌리는데 뜨거운 입김이 눈송이들을 날렸다. 그는 말했다. 꺾꺾 숨이 막혀 헐떡이면서 목메인 갈린 음성으로 속삭이였다.

《장군님, 전... 행복합니다. 인제는 편히 눈을 감을수 있을것 같습니다.》

《무슨 소리요, 안길이.》

《장군님, 제 말을 막지 말아주시시오. 전... 말하고싶습니다. 꼭... 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전...

제 한생을 자랑합니다. 장군님을 모시고 싸워온 한생이어서… 행복합니다. 제 생명은… 장군님께서 주신것입니다.》

그는 한동안 숨을 돌리느라고 가쁘게 허덕이었다. 그이께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말꼬삿을 더 힘껏 감으시었다. 그가 하고싶었던 말이, 지금 하고있는 그 말이 자신께 남기는 마지막말임을 너무도 잘 알고계시었던것이다.

《이제 세월이 흘러》 하고 그는 또 말을 이었다. 《우리의 후대들이 오늘을 돌이켜볼 때 뭐라고 하겠는지…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들은 나를… 일찌기 눈을 감은 나를… 불쌍히 여기진 않을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부러워할겁니다. 장군님을 모시고 싸워온 한생이었다고… 장군님총대가 되어 싸워왔다고… 부러워할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장군님!…》

총대!… 그렇다, 안길은 우리 혁명의 자랑스러운 총대였다. 뜨겁게 사랑하고 무섭게 증오하며 온몸을 불덩어리처럼 달구어온 총대!… 이 귀중한 혁명의 총대를 잃게 되다니… 어이하여 죽음은 제일 귀중한 전사들만 먼저 골라가는것인가?…

안길이 또 속삭이였다.

《장군님을 모시고 오래오래 살고싶었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고…》

《안길이, 동문 죽지 않소. 절대 죽지 않소.》

《예, 압니다. 장군님, 전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장군님을 모시고… 장군님결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현듯 눈굽이 쿵 쑤시고 목이 잠기는것을 참고 견딜수 없으시었다. 다음순간 찼찌레한 눈물이 입안으로 흘러드는것을 느끼시었다.

《안길이, 그 마음을》 하고 가까스로 말쑤를 이으시었다. 《그 마음을 왜 모르겠소. 안길이, 솔직히 말해서 나도 동물 보내고싶지 않았소. 한시도 떨어지고싶지 않았단 말이요. 그건 지금도 같소. 보내지 않을테요. 안길이, 절대 보내지 않아!》

《장군님, 장군님!…》

《견뎌내야 돼. 안길이, 열병식때 말을 타기 힘들면 차를 타도록 하자구. 참모장, 그게 더 좋지 않겠소?》

《아닙니다. 장군님!… 말이 좋습니다. 지금껏 말을 타고 싸워왔는데… 일없습니다. 걱정마십시오, 장군님!…》

《좋소. 그럼 정식으로 한번 사열해보오. 나는 여기 있겠소. 혼자서 일없겠소?》

《일없습니다, 장군님!》

벌써 비행장구내를 한바퀴 돌아 그이께서 타고오신 승용차앞에 이르렀다. 그이께서 고삿을 넘겨주시자 안길은 허리를 쭉 펴며 발로 말의 배를 가볍게 쳤다. 순간 그이께서는 보시었다. 전혀 뜻밖의

믿을수 없는 일이 그이께서 고삿을 잡고 지나오신 그 눈판우에 펼쳐져있었다. 어느새, 어떻게 알고나왔는지 전체 열병구분대들이 총을 메고나와 정렬해있었던것이다. 새로 제정된 군복을 입고 선 열병종대들, 하얀 눈판우에 규정대로 엄청나게 큰 새까만 두부모처럼 네모반듯 정렬하여 숨을 죽이고있었다. 그들의 모자와 어깨우에도 눈이 가득 쌓여있었다. 종대지휘관들도 대오옆에 군기수들과 나란히 서있었다. 군기만이 없을뿐… 군기수여식은 열병식 직전에 하기로 되어있었다. 누가 그들을 불러냈는가. 종대의 지휘관들은 거의다 항일빨찌산출신들, 안길의 전우들이다. 하지만 저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소리도 없이 나와섰는가?…

안길도 놀란듯 했다. 잠시 주춤거렸으나 곧장 말을 몰아갔다. 천천히 평보로, 이어 속보로 달려가다가 종대들앞에서 또 속도를 죽였다. 이윽고 대오앞에서 벗어섰다. 그리하여 모든것이 정지되였다. 퍼붓는 눈송이들만 아니라면 이 모든것이 믿어지지 않을수도 있었다.

드디어 안길이 말을 타고 종대들앞을 지나갔다. 그러나 규정의 인사도 답례도 없다. 안길이 목이 메어 규정의 인사말을 웨칠수 없었을것이다.

이윽고 안길은 돌아섰다. 구보로 말을 달려 그이 계신 곳으로 달려왔다. 말발굽밑에서 눈가루들이 뽀얗게 흩날렸다. 활주로바닥을 울리는 말편자소리가 눈내리는 이밤의 엄숙한 고요를 깨뜨리고있었다.

말발굽소리가 멎었다. 안길이 거수경례를 올렸다.

《장군님!… 저는 보았습니다. 새로 태어난… 장군님군대의 자랑찬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규정에도 없는 보고였다. 청높은 웨침도, 자랑높은 부르짖음도 아니였다. 목메인 감사의 인사, 눈물어린 감사의 속삭임이였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손을 들어 답례하시었다. 그순간 전체 열병종대들이 일시에 우뢰처럼 합성을 터쳤다.

《만세!—》

《만세!—》

《만세!—》

눈송이들이 흩날렸다. 고요속에 잠들어있던 문수별이 급작스러운 그 합성에 뒤흔들렸다. 장엄한 탄생의 고고성!… 모든 탄생에는 아픔이 동반된다. 인간의 탄생이나 별들의 탄생에도 극심한 진통이 있다. 아픔을 동반하지 않은 기쁨이란 사소하고 보잘나위없는것들일뿐이다. 진통이 클수록 탄생의 기쁨 또한 크고 격렬한것이다!…

1948년 2월 8일의 평양역전광장 열병식에서는 안길을 대신하여 새로 임명된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이 말에 올라있었다.…”

단 평

별벌의 굴밭속에 안겨오는 영원한 메아리

차 명 철

선행세대가 이룩한 위대한 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것은 후세들에게 맡겨진 영예롭고도 숭고한 사업이며 그것은 의무이기 전에 혁명선배들에 대한 숭고한 도덕의리로 된다.

특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지난 항일혁명투쟁시기 마련된 우리 당의 위대한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계승하는것은 수령님의 후손으로서의 본분을 다해나가며 우리 인민의 민족적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요구이다.

이로부터 새 세대들에게 백두의 혁명정신을 심어주기 위한 혁명전통주제의 훌륭한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는것은 우리 문학의 필수적인 과제로 나선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문학은 수령, 당, 대중의 혁명력사와 그 투쟁과정에서 마련된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형상하여야 한다.》

지난해에 창작된 혁명전통주제의 문학작품 가운데는 시조 《마두산혁명전적지답사시조》(박상민 작, 《조선문학》 2014년 5호)도 있다.

여기에서는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몸소 찾아오시였던 마두산혁명전적지의 구호문헌들을 돌아보면서 시인이 느낀 사상감정을 예술적으로 훌륭히 구가하고있다.

시 《별무리》에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모습이 그대로 어려있는듯 한 구호나무를 태양을 옹위하는 영원한 별무리로 형상하고있다.

시에서는 혁명전적지의 한점한점의 구호문헌들에서 투사들의 눈동자가 빛나고 투사들의 신념의 목소리가 울려나오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있다.

산마루의 깎아지른 절벽은
투사들이 지닌 신념의 메부리인듯
새움 띄우며 불어오는 바람은
나무에 굴밭을 새기던 투사들의 숨결같이
뜨겁게 달아오르는 이 가슴

이러한 시인의 시적환상은 구호문헌의 굴밭에 대한 서정으로 이어지고있다.

《우리는 김장군 받드는 백두산의 별무리》라는 구호문헌에는 백두산을 우러르며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그려보는 투사들의 모습, 태양의 빛을 받아 반짝이는 별의 모습이 어려있다고 시인은 주장하고있다.

또한 《일편단심 조국광복》,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 위하여》라는 굴밭에는 일체가 메워놓은 식민지의 멍에를 단호히 벗어던지고 위대한 태양의 품, 장군님의 품을 찾아온 투사들의 충정의 맹세, 결사의 각오가 그대로 담겨져있다.

그것을 시에서는 꿈속에서도 그리며 달려가 안기고싶었던 조국땅을 기어이 되찾기 위하여 한순간의 향락에도 빠져들수 없었던 투사들의 숭고한 의무를 담은 구호문헌으로 형상하고있다.

항일대전의 눈보라속에서

그리고 안기고싶던 조국땅이건만

이 땅은 아직도 일체의 발굽밑에 신음하거니

찾아야 할 조국과 행복찬란한 미래가

투사들의 어깨우에 무겁게 실려

조국의 훈향에 취할수 없었던 투사들

이와 같은 형상은 보다 승화되어 투사들의 모습과도 같은 구호나무의 굴밭들을 마음속에 새기며 태양을 옹위하는 영원한 별무리들의 넋을 새기며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별이 될 마음을 가다듬는 시인의 결의로 마무리되고있다.

이처럼 시 《별무리》에서는 신념의 그 굴밭들을 새 세대들이 수령결사옹위의 한길만을 걸어나가도록 떠밀어주는 충정의 메아리로 형상하고있다.

한편 시 《뜻깊은 상봉》에서는 위대한 수령을 모실 때 수령과의 상봉은 있어도 리별은 없다는것을 풍부한 시적환상을 통하여 예술적으로 잘 펼쳐 보이고있다.

시인에게 있어서 시적환상은 중요한 형상수단으로 나선다.

시인의 환상이 얼마나 풍부한가 하는데 따라 시

의 사상정서적내용이 예술적으로 잘 형상되었는가 형상되지 못하였는가 하는것이 규제되게 된다.

이렇게 놓고볼 때 시인의 시적환상은 시인의 창작적개성을 특징지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라고 볼수 있다.

시적환상은 시적대상뿐아니라 시인의 머리속에 구상된 사물이나 현상들에 대한 시인의 관점과 립장, 평가에 의하여 펼쳐지고 작품에 구현되는것이 특징적이다.

시초전반형상에서 그러하듯이 이 시에서도 시인의 시적환상이 훌륭히 펼쳐지고있다.

그날

마두산비밀근거지를

경애하는 원수님 찾아주셨을 때

수령님께서 주신 임무에 충실한 항일투사들이

그이를 마중하기 위해 정렬하듯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는 구호나무 구호나무

시에서는 보통날, 보통때에는 범상히 보았던 구호나무들이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신 그날에는 그이를 마중하여 정렬한 항일의 투사들의 모습과도 같다는 시적환상을 펼치고있다.

이러한 시적환상으로 시작된 시는 원수님을 모신 마두산의 환희로운 정경을 대한절기의 추위속에서도 버들개지 움트고 눈속에서도 다롱다롱 달려 향기풍기는 다래와 잣송이, 골안에 가득차흐르는 맑은 공기에 대한 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계속하여 시에서는 마두산비밀근거지창설에 바친 항일투사들의 공적을 만대에 길이 빛내여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모습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성을 형상하고있다.

...

구호문헌 새기던 투사들의 이름

한사람한사람 불러주실 때

수령님명령 받고 백두산을 내리던 그날처럼

씩씩한 대담소리 골안에 메아리치는듯

...

시인은 투사들과 마음속 이야기도 나누시고 그들과 함께 사진도 찍으시는듯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말라》라는 구호문헌앞에서 기념사진을 찍으신 원수님의 불멸의 형상을 창조하면서 마두산을

백두산으로 꾸려온 투사들에게 있어서 원수님을 모신것을 행복으로, 영광으로 그려내고있다.

이처럼 시에서는 간고한 항일투쟁의 길에서 혁명적신념을 굽히지 않고 위대한 수령님의 작전적구상을 실현하기 위해 최후공격작전을 위한 비밀근거지창설에 모든것을 바친 투사들의 삶은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계시여 오늘도 영생하며 수령과의 상봉은 있어도 리별은 없다는 진리를 깨우쳐주고있다.

그런가하면 시 《전적지의 새여》에서는 전적지의 새를 밀영의 안내자, 전적지의 구호나무를 지키는 초병으로 형상하면서 그에 대한 시인의 주장을 펼쳐보이고있다.

시인은 멀리까지 마중나온 전적지의 새를 바라보며 시적사색을 펼치고있다.

새여 너는

투사들과 함께 여기서 살았더냐

오늘도 투사들의 숨결 흐르는 저 숲에서

그들의 발자욱소리 안고왔느냐

밀영의 안내자인양 이 나무 저 나무 옮겨앉으며

답사자들의 발걸음을 재촉하는 딱따구리

너는 수십년세월 여기서

대를 이으며 지켜오고있지 않느냐

투사들의 뉘이며 불굴의 신념

혁명적이며 주옥같은 명문장이 새겨진 구호나무

그 한그루 한그루 지키는 초병인듯

낮이나 밤이나 나태를 접은적 없었으리

시인에게 있어서 전적지의 새는 그대로 밀영의 안내자이며 전적지를 지켜선 초병이었다.

《이 땅 그 어느 숲에서나》 흔히 볼수 있는 새이지만 시인의 시야에 비친 전적지의 새는 단순한 새로 안겨오는것이 아니다.

그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이지만 특히 시대의 사상감정을 주관화하여 펼쳐보여야 하는 시인이 어떤 사상관점을 가지고 사물현상을 보고 대하는가 하는데 따라 대상의 성격적측면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로부터 시인은 마두산혁명전적지를 보금자리로 정하고 깃을 펼친 새들을 밀영의 안내자, 초병으로 형상하고있다.

밀영의 안내자의 길안내를 받으며 구호나무들을 돌아보는 시인의 사상감정은 류다르게 펼쳐진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부락치는 애로
와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완강한 공격정신이며 백번
쓰러지면 백번 다시 일어나 끝까지 싸우는 결렬한 투쟁정
신입니다.》

김 정 은

《조선이 독립되면 김일성장군 대통령》이라는 구호문헌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영원히 우리 혁명의 최고수위에 받들어모시려는 항일선열들의 충정의 사상감정이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시에서 시인은 간고한 항일의 그 나날에 벌써 해방된 조국의 태일을 그리는 투사들의 락관주의의 사상정신적원천을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데서 찾고 그들의 고결한 충정의 세계를 구호문헌의 글발을 통하여 펼쳐보이고있다.

이 구호문헌을 인용하여 수령을 어떻게 받들어모시고 따라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명백한 해답을 줌으로써 전적지를 찾는 사람들로 하여금 《한번 와보면 열백번을 오고싶은 곳》으로 형상하고있다.

계속하여 시에서는 투사들이 남긴 신념의 글발—《마두산을 백두산으로!》라는 구호문헌이 그대로 나래가 되어 손님맞이에 신명이 난 전적지의 새를 앞서달린다고 노래함으로써 시초의 다음시에도 넘어갈수 있는 전제를 제시하고있다.

다음으로 시 《백두산의 눈보라여》에서는 마두산정점에 훑날리는 눈보라를 시적계기로 삼고 마두산과 백두산과의 관계를 정서적으로 훌륭히 펼쳐보이고있다.

시인은 투사들이 남긴 《마두산을 백두산으로!》라는 글발을 다시금 가슴에 새기며 《백마의 갈기인양 하늘을 치뚫고 오르는》 마두산의 눈보라를 백두산의 눈보라로 새겨안는다.

시에서는 마두산의 눈보라가 어떻게 백두산의 눈보라로 안겨오는가 하는 문제에 론리적타당성을 제시하여줌으로써 시인의 주장을 설득력있게 펼쳐보

이고있다.

백두산밀영에서

한자한자 새겨안았던 구호문헌

오늘은 여기 마두산혁명전적지에서 다시 본다

백두산이 마두산으로 옮겨진듯

눈보라도 백두산의 눈보라인듯

이처럼 시에서는 백두산밀영의 구호문헌과 마두산혁명전적지에 새겨진 글발을 서로 련결시켜주면서 백두산과 마두산의 호상련관성을 명백하게 하여주고있다.

계속하여 시에서는 눈보라에 대한 시인의 서정이 펼쳐지고있다.

오, 눈보라여 백두산의 눈보라여

우리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 빛나는 곳에서

선열들이 싸운 곳마다에서

혁명의 녀 백두의 혁명정신을 배우는

천만군민을 그 눈보라속에 세워다오

시인은 이 땅에 몰아치는 눈보라속에서 백두의 눈보라를 그려보며 백두의 혁명정신을 다시금 심장마다에 새겨안은 천만군민의 모습을 생동한 시적형상으로 펼쳐보이고있다.

이어 시인은 천만군민의 발걸음에 나래를 달아주는 백두산의 눈보라로 심장을 달구며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에 날리던 붉은기를 높이 들고 선군혁명의 천만리를 역세계 걸어나가려는 맹세의 사상감정을 잘 노래하고있다.



오 광 철

1

옛날 어느 한 농민이 이름모를 산밑에 불모지로 버림받는 땅을 갈아엎으려고 마음먹었다고 한다. 그 땅은 굳기가 돌같이 도무지 보습을 댈수가 없었다. 그래서 대대로 곡식을 심어먹지 못했다. 그 땅을 갈아엎을수 있는 때는 한해에 꼭 한번뿐이었는데 해토무렵 한 삼일가량 땅이 시루떡처럼 부풀어오르는 때였다. 하지만 이 삼일동안에 그 땅을 죄다 갈아엎지 못하고 한때기만이라도 남겨두면 어찌된 영문인지 갈아놓았던 땅마저 다시 본래의 땅으로 되돌아갔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이 묵어나는 땅이 탐나서 보습을 들이대였지만 다 갈아엎은 사람보다는 갈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 끝내는 곡식을 심어먹을수 없는 불모지로 내버려지고만것이었다.

바로 그 땅을 갈아엎을것을 결심한 농민이 자기 아들에게 야장간일을 배워 굳고 질긴 땅을 갈아엎을수 있는 대보습을 만들도록 하고 자기는 사흘같이논도 단숨에 가는 황소를 키워냈다. 해토무렵이 되었는데 아들이 만드는 대보습이 채 되지 않아서 농민은 소문난 자기 황소에게 보통보습을 메워 그 땅을 갈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대로 묵어나 땅이라 농군도 소도 지쳐버렸다. 그래도 허를 가로물고 설새없이 갈고 또 갈았다. 이제는 정말 한때기가 남았는데 그때 아들이 대보습을 다 만들어냈다는 소식이 왔다. 너무도 지쳤던 농군은 주저앉아 아들의 대보습이 오기를 기다렸다. 그러는 사이에 부풀어올랐던 땅은 다시 내려앉아 돌같이 굳어져버렸다. 농민은 땅을 치며 탄

식했다.

《아, 보통보습으로라도 그냥 갈았더라면 되었을것을…》

농민은 너무도 지치고 한스러워서 그 자리에서 숨이 지고말았고 그때부터 농민이 보습을 놓고 기다렸던 산을 보습산이라고 불려왔다고 한다....

처녀는 공교롭기도 하고 의미심장하기도 한 그 전설을 다시금 돌이키며 보습산중턱에 자리잡은 고굴속으로 한발한발 들어섰다.

캄캄한 굴간 저쪽에서 석수가 흐르는 소리가 야릇하고 나직한 쭈알거림처럼 들려왔다. 처녀는 쭈뼛한 공포와 후회를 느끼며 박아세운듯 서버렸다.

소리쳐 비명을 지르며 도로 뛰쳐나가고싶은 충동이 가슴속을 달려지나갔다.

하지만 그 순간 처녀의 눈앞에는 한 청년의 주의 깊고도 엄격한 눈길이 떠올랐다. 마치도 캄캄한 굴속 어디에선가 바로 그런 눈길을 한 청년이 자기를 말없이 지켜보고있는듯 했다.

알지 못할 힘과 지배감을 풍기는듯 한 그 눈길. 그 눈길앞에 마주섰던 하루전의 일이 눈앞을 흘러갔다.

그날 판리국 앞마당에서는 군민발전전설장으로 떠나는 돌격대원들의 출발모임이 있었다. 나라의 지하자원을 찾아내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있는 판리국은 이번에 어느 한 광산의 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민군군인들과 함께 그곳에 발전소를 건설하기로 한것이였다.

밤바다마냥 설레는 대오앞에 한 청년이 나섰다. 이름은 리명훈. 며칠전에 기사장으로 임명받은

관리국력사에 처음이라는 총각기사장이다. 돌격대원들은 존경과 기대가 어린 눈빛으로 숨을 죽인채 젊은 기사장을 바라보았다. 젊은 기사장은 잠시 할 말을 고르는데 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다.

《동무들, 이제 모두들 자기 사무실이나 작업장들에 가보십시오. 혹시 자기가 빈방에 탁상등이나 전등을 켜놓고 떠나지 않는가, 리용하던 전자설비나 전기설비의 스위치를 안전하게, 정확히 끄고 가는가를 확인하십시오.》

한순간 대오속으로 당황한 술렁거림이 퍼져갔다.

발전소건설장으로 떠나는 자기들에게 고무적인 말을 한마디 해줄줄 알았던 신입기사장이 뜻밖에도 전기스위치소리를 하고있는것이였다.

다소 어병병해진 그 눈길들앞에 젊은 기사장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우리들속에는 자기 방에 낮전등이 켜진줄을 모르고 떠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전기문제를 풀러 떠나면서 낮전등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 과연 일을 잘할수 있겠습니까?》

조용한 말이였으나 대오는 돌을 맞은 물면처럼 설렁거렸다. 처녀의 옆에 서있던 나이지숙한 사나이가 《아차!》하고 이마를 치더니 부리나케 대오를 빠져나갔다. 이번에 돌격대의 후방사업을 맡게된 부과장 안종배였다. 웃음반, 청원반의 웅성거림이 그의 뒤를 따라갔다. 기사장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동무들, 무엇보다도 오늘에 자기가 해야 할 일, 할수 있는 일들을 놓치지 맙시다. 그것이 진정으로 떠날수 있는 준비이고 래일에 일을 더 잘할수 있는 조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거 신입기사장이 만만치 않겠는걸.》

《리론가야.》

《모르는 소리. 세계적인 첨단설비를 만들어낸 사람인데 리론가라고만 할수 있겠어?》

《아무래두 나두 사무실에 한번 가봐야겠어.》

고개를 기웃거리며 대오를 빠져나가는 돌격대원들이 많아졌다.

그 순간 처녀는 저도 모르게 그들을 따라 리명훈앞을 물러났다. 왜서인지 이 순간 자기도 낮전등을 끄지 못한 사람같이 생각되였다.

의미심장한 그 말이 꼭 나에게 한 말처럼 느껴지는것은 무엇때문일까?

문득 자기앞을 막아서는 거북한 그림자를 느끼며 떴어섰다.

부과장 안종배가 그의 앞에 서있었다. 사람좋아보이는 미소가 그의 얼굴에 어려있었다.

《혜선동무, 이거 신입기사장이 날 별나게 주시하기 시작하는구만. 사실 조명을 받으면 더 고와지

는 사람두 있지만 반대로 더 추해지는 사람도 있는 법인데... 어제 밤에 돌격대에 필요한 후방물자들을 챙기느라고 밤을 꼬박 새웠지. 아침에 전기불을 끌 생각을 못하고 그냥 뛰어났거든. 그런데 기사장이 면바루 그걸 볼줄이야.》

안종배는 랑패라는듯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아무래도 저 기사장한테는 나나 혜선동무의 인상이 좀 우스워진것 같애. 우리야 명천지구에서 기사장이 이기리라는걸 뻔히 알면서 경쟁을 한게 아닌가. 사실로 말하면 저를 위해서 놀아준거나 같은데...》

《놀아주었다구요?!》

김혜선은 뼈근한 아픔과 모멸감을 느끼며 날카롭게 부르짖었다. 그러나 부과장은 모든것을 다 리해한다는듯 혼연한 얼굴로 빙그레 웃고있었다.

《어쩌겠소. 이긴 사람은 박수를 받고 진 사람은 손가락질을 받기마련이지. 까짓, 도래떡이 안팎이 있나. 혜선동무, 우리 돌격대에 가서 봉창을 하지요.》

혜선은 모든것이 너무도 무난하고 쉽게만 들어왔는듯싶은 부과장의 얼굴을 다소 실심해서 바라보았다.

관리국사람들은 이 부과장을 두고 흔히 《도래떡》이라는 흔치 않은 별명으로 불렀다. 옛날 잔치상에 올려놓던 크고 둥근 떡을 두고 도래떡이라고 하는데 쓰이는 용도가 많고 특징이 뚜렷치 않은 그 떡과 이 부과장의 성격을 하나로 버무려놓은것이였다.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호인이라는 하나 나무랄데없이 좋은 성격만은 아니고 무슨 일이나 팔을 부르고 나서선 열성과 오랜 사업경력을 믿고 여러가지 일을 맡기기는 하나 눈에 띄는 실적을 내는 형은 못되어서 비판을 받기도 하는데 그때마다 《도래떡이 안팎이 있나?》하고 웃으며 말하곤 하는 그 능청스럽고 밋지 않은 성격때문에 붙여진 별호인지도 모른다. 지금도 그는 명천지구에서의 사업에서 실패하고 돌아왔고 또 대오앞에서 지적을 당한 사람답지 않게 마음편히 웃고있는것이다.

그때 관리국의 한 처녀부원이 혜선에게 다가왔다.

《혜선동무, 기사장동지가 방에서 찾아요.》

그 순간 처녀는 까닭없이 흠칫 놀랐다. 안종배도 긴장해진듯 혜선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두사람은 다같이 알지 못할 압박감을 안겨주는 젊은 기사장의 존재를 느끼며 굳어진듯 서있었다.

《어서 가보라구.》

안종배부과장이 처녀의 등을 떠밀었다. 혜선은 천천히 리명훈의 방으로 향했다.

왜 부르는것일가?

대오앞에서 하던 그의 말이 다시금 귀가에 울려

온다.

혜선은 이 순간 오직 자기만이 그 말속에 스민 깊은 뜻과 사연 그리고 그 말을 하는 리명훈의 심정을 다 알고있는것 같이 생각되었다. 왜냐하면 언젠가도 리명훈은 그에게 그런 뜻의 말을 한적이 있기에 때문이다.

내가 그 말을 처음 들은것은 언제였던가?

문득 연두빛으로 채색되어있는듯 한 추억의 저편 기슭에서 싸움을 거는듯 한 약오른 목소리가 들려왔다.

《남자들만 용감한척 하면서 여자들을 놀리려드는 나쁜 버릇을 고쳤으면 해요.》

《그래야 네가 백석천을 끝까지 건너가지. 넌 자기가 그날 하려다 못한 일을 놓고도 잠이 오니?》

아름인지 즐거움인지 반발심인지 모를 아리송하고 야릇한 느낌.

그 느낌과 함께 혜선은 어느덧 어제날의 그 소년, 신입기사장의 방문앞에 서있는 자기를 깨달았다.

처녀는 자기를 다잡자고 모지름쓰며 그루박듯 천천히 방문을 두드렸다.

《똑 똑 똑.》

...

처녀의 귀전에 그 소리는 크게 들려왔다.

그러나 그 소리는 이미 신입기사장의 방문을 두드리던 손기척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고굴속을 울리는 탐사망치질소리였다. 그 순간 처녀는 저도 모르게 손에 쥔 탐사망치로 굴벽을 치고있었던것이였다. 굴안을 야릇하게 울리는 그 망치질소리와 함께 그때 사무실에서 본 리명훈의 얼굴이 우렷이 떠오르는듯 했다.

처녀는 또다시 가슴속에 솟구치는 모멸감과 반발심을 느끼며 저도 모르게 입술을 깨물었다. 손에 쥔 탐사망치로 굴벽을 힘껏 쳤다. 야무진 망치소리가 괴괴한 굴안을 찌를 울렸다. 그 소리에 떠밀리듯 처녀는 끝없이 캄캄하기만 한 고굴속으로 섣뚱 첫걸음을 떼었다.

2

우리 나라 중부산악지대의 높고 험한 산들중의 하나인 달마산에 새로 꾸려진 야영소는 꿈과 모험심으로 충만한 아이들의 심정과 참으로 잘 어울리는 곳이었다. 달마산은 매일과 같이 갖가지 신비함과 즐거움을 품고 어린 소년, 소녀들을 자기의 품속으로 깊숙이 불러들이곤 하였다. 매일 저녁마다 벌어지는 오락회에서는 그날그날 밝혀진 달마산의 비밀과 그것을 밝혀낸 주인공들의 모험담이 짹짹 그르르한 박수와 웃음속에 공개되곤 하였다. 그런가 하면 자연의 아름다움과 함께 존재하는 엄혹함안에

햇내기들에 불과한 그들이 저지르는 갖가지 실패와 고행들도 웃음속에 공개되곤 하였다. 김혜선과 리명훈은 바로 이 야영소에 온 서로 다른 학교의 학생들이였다. 그때 김혜선은 중학교 3학년이였고 리명훈은 6학년생이였다.

달마산에는 물밀의 돌이 하얗게 보인다고 하여 백석천이라고 부르는 자그마한 강이 흘러지나가고 있었는데 그것은 성미사납고 능청스러운 산골의 강이였다. 물밀에 엉금엉금 기는 가재가 판히 들여다 보일만큼 맑기도 하였지만 들어서면 통채로 풍덩 빠져드는 깊은 곳이 많았고 유정한 물소리를 흘리며 흐르기는 하였지만 물고기도 그 흐름을 거스르지 못할만큼 물살이 빠르고 세찼다.

어느날 혜선은 이 백석천을 건너 갖가지 새소리와 웅웅깊은 바람소리로 가득차있는 건너편 수림속으로 들어가보기로 작정했다. 거기서 식물표본집을 더 다양하게 완성하고싶었던것이였다. 하지만 엉큼하고 성미사나운 백석천은 용기와 호기심만 충찬한 어린 소녀를 우습게 혼썰내우고말았다. 미끄러운 돌을 짚고 넘어간 소녀는 강물에 휘말려 물을 삼키고 덩굴었으며 가지고가던 식물채집표본집은 물론 신발마저 잃어버렸다.

간신히 헤어나온 소녀는 강물에 대고 욕을 퍼부을새도 없이 천막으로 도망쳐버렸다. 그를 지켜보던 혜선의 동무들은 허리가 아프도록 웃고나서 혜선의 그 실패를 비밀에 붙이기로 하였다.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오락회시간에 리명훈이라고 자기를 소개한 다른 학교의 남학생이 야영생들앞에 바로 그 식물표본집과 신발을 내놓았다.

《우리들중에는 백석천을 건너가다가 넘어져서 얼마나 혼이 났는지 이 표본집과 신발을 내던지고 달아난 녀동무가 있습니다.》

녀학생의 실패로 좌증을 기쁘게 해주려는 그 6학년 남학생의 시도는 명백히 성공하였다. 아이들은 즐겁게 웃었고 백석천에 혼썰이 난 그 녀주인공이 어서 나와 표본집과 신발을 찾아가라고 와와 소리쳤다.

《끝까지 못 건너가겠으면 아예 들어서지 말든지 일단 들어섰으면 남부끄럽지 않게 건너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식물표본집과 신발은... 여기 놓아두면 아마 남들이 다 잘 때 가져갈겁니다.》

그 말도 역시 떠들썩한 웃음의 호응을 받았다. 혜선은 입술을 꼭 깨물었다.

그 6학년생을 야멸차게 쏘아보았다. 그날 저녁 오락회장소에 놓여진 그 식물채집표본집과 신발은 없어지지 않았다. 대신 다음날 아침 혜선은 동무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끝내 제발로 백석천을 건너고말았다. 그때 혜선은 맨발이였다. 혜선의 동무들이 그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날 저녁 오락회에서는 맨발로 백석천을 정복한 어린 녀학생의

이야기가 떠들썩한 화제로 되었다. 도담하고 용기백배한 처녀애로 아이들속에 우뚝 솟아오른 혜선은 식물표본집과 신발을 가져가며 명훈에게 쏘아붙였다.

《남자들만 용감한척 하면서 여자들을 놀리려드는 나쁜 버릇을 고쳤으면 해요.》

《그래야 네가 백석천을 끝까지 건너가지. 넌 자기가 그날 하려다 못한 일을 놓고도 잠이 오니?》

혜선은 야멸차게 흥 하고 코웃음을 쳐버렸다. 6학년생의 앞을 바람처럼 지나쳐 가버렸다. 그리고는 야영생활 전기간을 그 6학년생을 눈여겨 살피며 아무 일에서나 지지 않으려고 무진 애를 썼다. 그런 공연한 안달복달속에 야영생활은 끝났다. 남은 것은 즐거운 추억과 백석천을 건너가는 모습을 찍은 사진뿐이었다.

혜선은 그 사진을 액틀에 넣어 자기 방 책상위에 올려놓았다. 소리쳐 만류하는 동무들을 돌아보는 그 얼굴에 어린 조마조마해보이면서도 고집스러운 빛이 웬일인지 혜선의 마음에 들었다.

혜선의 아버지도 그 얼굴이 참 인상깊다고 했다.

그리하여 혜선은 그 사진액틀을 늘 책상위에 올려놓고 공부했고 눈에 잘 띄우는 그 사진액틀옆에 일과표라든가 학과목 공식을 적은 마분지표 같은것을 세워놓기를 즐겨했다. 때로는 그 마분지표에 자기만이 알수 있는 말들을 적어넣기도 했다.

《편도선염이 도져도 어머니가 걱정하지 않게 음식을 삼킬것.》

《외국어실력에서 옥영이를 꼭 앞설것, 취침시간 12시.》

자기에게 부족하거나 불만족한것들을 스스로 경계하며 신칙하는 이러한 말들은 수시로 바뀌면서 그가 중학교를 졸업하는 전기간 그 사진액틀옆에 나란히 서있었다.

그 6학년생으로 하여 시작된 자기 완성의 노력은 반발심이나 경쟁심리와의 같은 강렬한 충동에 떠밀려 더더욱 진지하고 목적의식적인것으로 되고말았다. 문제는 그 6학년생이 그후에도 혜선의 생활에 계속 뛰어들었다는 거기에 있었다.

혜선은 그 6학년생을 그해 여름 대동강에서 다시 보았다. 고등중학교(당시) 학생들의 대동강수영경기에서였다. 그때 혜선은 자기가 목청껏 응원한 자기 학교선수를 멀리 떨어어버리고 1등으로 건너온 다른 학교의 남학생이 다름아닌 달마산야영소에서 만났던 그 6학년생이라는것을 알아보았다.

그가 대동강수영경기에서 벌써 두번이나 1등을 한다는것을 알았을 때 놀라움과 부러움 그리고 야릇한 반발심과 질투심까지 느끼며 지켜보았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창광원 수영장의 맨 가늌주로를 두번이나 쉬어가며 헤엄치는 자기를 생각했

고 호 하고 한숨을 쉬었다. 그러자 가슴속에서 또 다시 달마산에서 느끼던것과 똑같은 승벽심이 솟아올랐다. 그리하여 그날 저녁 그 사진액틀옆에는 《수영을 꼭 배울것!》이라고 쓴 작은 종이쪽지가 세워졌다. 그날부터 부쩍 타오른 수영열은 그를 물에 대한 공포를 모르는 소년으로 만들었다. 그렇게 물을 좋아하고 산을 좋아한 성미때문이었는지 혜선은 중학교를 졸업한 자기에게 아버지가 탐사대생활을 해보지 않겠느냐고 했을 때 선뜻 해보겠다고 대답했다. 보람차고도 힘겨운 로동생활이었다. 몇년간의 로동생활끝에 대학으로 왔다. 그런데 그 대학에서 혜선은 뜻밖에도 리명훈을 다시 만났다.

《우리 학부 리명훈동진 말이야, 그 경력이 참 멋쟁이더구나.》

학부의 한 녀동무가 녀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큰 비밀이나 알려주듯이 소곤거린 말이었다.

《명훈동지가 입급살 났을적에 대동강에 놀러나갔다가 그만 물에 빠져죽을뻔 했대. 마침 지나가던 인민군군관이 보고 구원해주었기망정이지 큰 일날뻔 했는지 뭐. 그때 온 일가친척들이 모여들어 물을 주의하게 한다는게 그만 지나쳐서 <너 이제 다시 물에 들어가면 그뻔 아예 죽고만다.> 하구 으름장을 놓았다는거야. 그저 만나는 친척마다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소리뿐이었대. 그 소리가 얼마나 귀에 박혔던지 인민학교(당시)때까지 강에는커녕 수영장에두 못 들어갔대. 그런데 열살 차넘겨선가 우연히 명훈동질 구원해준 그 인민군군관을 만났는지 아니. 아직도 수영을 못한다는 얘길 듣고는 <물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했었는데 그건 수영을 잘하면 살수 있다는 소리가 아니냐? 이것봐 친구, 오늘 자기앞에 닿은 일이 힘들구 겁난다구 피할 생각을 하면 태일은 영낙없이 못난이모양으로 살게 돼. 하지만 그걸 제일 훌륭하게 해내버릇하면 영웅이 되는거야.> 라고 말해줬다는거야. 얼마나 훌륭한 말이니? 그래서 학교수영소조에 들어갔대. 대동강수영경기에서 두번이나 1등을 했는지 아니.》

그 순간 혜선의 눈앞에는 대동강에서 본 그 얼굴이 떠올랐다.

아, 그였구나! 그 6학년생.

하지만 지금은 반대로 혜선이 졸업을 앞둔 《6학년생》이었다.

《군대에 나가서도 항공육전병으로 복무했다지 아니. 락하산을 타고 꼭 뛰어내리는...》

그 녀동무는 자기 말의 효과성을 강조하느라고 두팔을 활짝 펼치고 떨어져내리는 동작을 해보이기까지 했다.

《물을 정복하구 하늘을 정복하구... 그런 인생체험을 했으니 뭘 두려운게 있구 막히는게 있겠니? 지금두 집에서부터 대학까지는 절대로 빠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온대, 외국어를 암송하면서... 이젠 그 날 하루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하나의 정신 료법이라나.》

동무들이 모두 야야 하며 감탄할 때 혜선의 가슴 속에서는 왜서인지 어린시절에 느꼈던 야릇한 질투와 반발심이 그대로 살아올랐다. 그는 저도 모르게 뾰족한 소리를 내뿔고야말았다.

《너희들은 정말 우물안의 개구리로구나.》

혜선은 자기를 바라보는 동무들앞에 동화책을 읽을 때와 같은 얼굴을 해보였다.

《어느날 우물방틀에 앉은 갈매기가 우물속의 개구리에게 물었대.

〈개구리야, 거기서두 뭐가 보이니?〉

〈넓고넓은 하늘이 보인단다.〉

〈하늘이 어떻게 생겼니?〉

〈네모나게 생겼지 뭐.〉 우물방틀이 사각형이었거던.

〈그 하늘에 뭐가 있니?〉

〈별 열두개.〉》

너동무들은 소리내어 웃었다.

《그만큼두 강하구 훌륭하지 않은 남자가 어디 있겠니? 그런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면 난 이 자리에서 열명두 더 할수 있어. 그 얘기를 들으면 너흰 아마 반해서 당장 달려가자고 할거야.》

《!!》

《중요한건 그 남다른 지향이나 기질이 완전히 자기의것으로 굳어졌는가 하는거야. 혹시 젊은 혈기나 한번 뽐내보려는 객기가 아닌지?》

모두들 어리둥절하고 의아해진 시선으로 혜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살피는듯 한 그 시선들앞에 혜선은 웬일인지 당황해지고 부끄러워졌으며 다음순간 가슴을 간지럽히는듯 한 즐겁고도 알곳은 충동에 저도 모르게 웃고말았다.

《좋아! 다른것은 시험해보지 못할수 있어도 그 하루의 정신료법이라는데 대해선 한번 시험해볼 자신이 있어. 두고봐, 내 3일내로 그 동지가 빠스를 타고 대학에 등교하게 하는걸.》

너동무들은 처음에는 눈썹이 이마에 올라가볼을 정도로 놀랐고 다음순간에는 알곳고도 장난스러운 희열에 모두 손뼉을 치며 소리내어 웃었다.

《너 정말 자신있니?》

《팬히 그러지 마.》

《한번 해보라구 하자꾸나.》

《그래, 만약 네가 정말로 그 동지를 빠스에 태운다면 난 네가 제일 부러워하는 조선말대사전을 아주 주겠어.》

《좋아, 약속했어. 그럼 어디 래일 아침부터 두고봐.》

처녀대학생들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었다. 다음날 아침 혜선은 리명훈을 빠스에 태우기

위하여 출근길에 서있었다....

캄캄하고 괴괴한 고굴속에서조차 추억은 생생하고 감미로웠다. 결국 달마산에서부터 시작된 승벽과 반발심은 이 보습산에까지 이어진것이다. 전지불빛속에 석수에 젖은 퍼스스름하고 비죽비죽한 굴벽이 언뜻거린다. 보습산의 전설을 들려주던 아버지의 얼굴이 떠오른다. 그 전설이 사실인지 아니면 아버지가 자기의 고굴탐사를 정당화하기 위해 지어낸것인지 혜선은 지금도 알수가 없다. 하지만 그 전설이 가져다주는 의미심장한 기운앞에 그때도 지고말았고 오늘도 이렇게 어쩔수없이 제발로 고굴속에 들어선것이였다.

혜선의 아버지 김근삼은 수많은 광산들을 개발한 경험과 공로가 있는 오랜 탐사대원이였다. 바로 그런 로탐사대원이 명천지구에 흥광체가 존재한다는 주장을 하였을 때 사람들은 그 주장의 과학성보다도 그의 경험과 판록을 먼저 믿고싶어했다.

흥광석은 인민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희유광석이다. 높은 온도와 압력을 이겨내야 하는 인공지구위성 운반로케트의 본체와 부분품에는 그 흥광석에서 뽑아낸 금속화합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들속에서는 흔히 그 광석이 《처녀광석》이라는 낱말로 통했다. 알려진것보다 알려지지 않은것이 더 많은 미지의 광석, 남이 볼세라 숨기를 잘하고 약간한 자극에도 변하기를 잘해 찾아내기가 험치 않은 광석이라는 뜻으로 생겨난 말이다. 바로 그런 흥광체가 명천지구에 존재한다는 리론과 물증들을 혜선의 아버지는 제기했던것이였다.

모두가 그것을 환영했으며 믿고싶어했다. 관리국에서는 곧 안중배부과장을 책임자로 하는 실무성원들을 명천지구에 파견하여 새로운 광체탐사를 돕도록 했다. 시추탐사가 시작되였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시추탐사의 결과는 그리 낙관적인것이 되지 못했다. 수십개소에 달하는 시추구멍에서 채취한 시료중에 광산개발의 수치에 닿은것은 고작 몇개의 시료뿐이였다. 시추탐사에서 나타난 객관적인 자료들은 거기에 광산을 개발할수 없다는것을 말해주고있는것이였다.

심중한 론의들이 벌어졌다. 많은 자금과 로력, 시간이 투하되는 시추탐사를 계속할것인가 아니면 그만둘것인가 하는 론의였다. 많은 사람들이 시추탐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을 반대하는 론조도 만만치 않았다. 그런 속에서 사람들의 시선이 리명훈의 단층탐사설비에 쏠리기 시작했다.

단층탐사설비는 전자기파를 지층속으로 발산하고 반사되어나오는 파를 받아 그것으로 지층의 상태와

광석의 유무를 알아내는 첨단탐사설비였다. 그것은 탐사부문에서의 일대 혁신이었다. 그것은 종래의 탐사방법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리명훈은 대학시절부터 이 설비를 연구해왔다고 했다. 그의 오랜 기간의 피타는 노력과 관리국기술 집단의 아낌없는 방조로 하여 단층탐사설비는 완성 단계에 이르고 있었다.

명천지구의 증광체문제는 어느덧 로탐사대원의 판독과 경험이나 아니면 새 세대 기술일군의 첨단설비나 하는 문제로 초점이 모아지고 있었다. 안종배부과장을 책임자로 하는 명천지구광체탐사조와 리명훈을 조장으로 하는 단층탐사설비개발조 사이에는 은근한 경쟁이 벌어졌고 사람들도 어느 사이에 두편으로 갈라져 서로 도우며 결과를 기다렸다.

혜선은 아버지와 리명훈사이에 벌어지는 이 야릇하고 피치 못할 경쟁에 조바심이 났다. 그래서 아버지를 도와 문헌자료들을 연구하고 증광석들을 연구분석하며 도와나섰다. 어느덧 그는 증광석전문가가 되어버렸다. 그런데 어느날 안종배부과장이 관리국에 왔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명천지구의 지배적인 산인 보습산에 있는 고굴을 탐사할 준비를 한다는 것이었다.

탐사과정은 흔히 광석의 로두나 또는 그 광맥과 함께 존재하는 암석을 발견하는 지상탐사로부터 시작된다. 그 지상탐사에 이어 시추탐사나 갱도탐사를 통해 광석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고굴에 대한 탐사는 그 일대의 암석상태와 광석의 흐름길을 알아낼 수 있게 하는 그중 효과적인 탐사방법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것은 커다란 위험을 동반하는 모험적인 탐사였다. 오래된 고굴일수록 그 위험은 더하다. 그것은 자기의 한몸을 내대는 것과는 같은 결사적인 탐사인 것이다. 바로 그 고굴을 아버지가 탐사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었다.

《원, 나이두 적지 않은분이 정신이 나갔지. 아무리 일이 중하구 체면이 중하기로서니 제 몸을 가지구 모험을 한단 말이요? 그게 다 저두 남두 편 안치 못하게 하는 일이라는걸 왜 모르는지... 혜선 동무, 제발 그만두어달라구 단단히 막아서야겠소. 알겠소?》

안종배부과장은 열이 올라 다짐을 받아냈다. 혜선은 아버지에게 달려가 고굴탐사만은 할 수 없다고 강경하게 막아나섰다.

로탐사대원은 말없이 딸을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조용히 보습산의 전설을 들려주었다. 그런 이상한 땅에 대한 전설이 나올만큼 이곳의 지층과 암석상태는 특이하다고 했다.

《아무래두 여긴 여느곳과는 좀 다른것 같구나. 특이한 곳이야. 한번 들어가봐야 모든게 명백해질 것 같다. 누구든 해야 할 일이니 막지 말아라.》

《안돼요, 아버지! 그럴바엔 차라리 단층탐사설비에 모든걸 다 양보하고말자요. 나이많은 사람한테 이겼다고 그 사람이 우쭐해지는걸 한번 보지요.》

문득 아버지는 열을 내어 부르짖는 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다. 수천길 땅속도 살펴내는 그 눈길앞에 혜선은 당황해졌다.

《아버지, 왜 그런 눈으로 보세요?》

아버지는 빙그레 웃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우쭐거릴 사람이 아니라는걸 네가 잘 알면서도 그러누나.》

혜선은 말을 못하고 굳어졌다. 아버지의 말이 옳았던 것이었다. 아버지는 그러는 딸애의 어깨를 잡아 자기곁에 앉혔다.

《그래, 나도 단층탐사설비로 하면 모든것이 쉽고 무난할줄 안다. 내 방법이 뒤떨어졌다는거야 나한테두 뻔한걸. 하지만 그 실통한 첨단설비가 래일에 모든걸 다 하라하고 난 오늘 두손들고 나앉아있으라는거냐? 안될 일이지. 래일에 꿀을 먹기위해선 누군가가 오늘 벌에 쓰일줄도 알아야 하는 거다.》

혜선은 아무 말도 못한채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여기 명천지구처럼 지질상태가 복잡하구 증광석처럼 속내가 까다로운 광석은 드물어. 여긴 기성관념과 리론으루 쥔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는 곳이야. 모르긴 하겠지만 이런 곳에서는 단층탐사설비도 제 능력을 다 뽐수 없을거야. 이를테면 여긴 특수지대인데 단층탐사설비에도 특수정보가 있어야 하거던. 그러니 내가 고굴탐사를 해서 이 일대의 지질상태와 증광석에 대한 정보를 하나라도 더 밝혀내면 그게 명훈이네 탐사설비에도 리로울게다. 내 그래서 굳이 고굴탐사를 하자는게다.》

《아버지!》

혜선은 목이 메여올라 이 한마디만을 부르짖었을 뿐이었다. 아버지를 막아설수도, 설복해낼수도 없는 자기를 느꼈다. 그는 모든것을 포기하고 시인하듯 아버지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아버지의 웅근 목소리가 어깨를 통해 들려왔다.

《혜선아, 수천길 지하막장에서 동지들을 구원하고 희생된 영웅이나 자기가 맡아 기르던 한마리의 소를 구원하자고 사품치는 물속에 자기 몸을 내던 농민영웅이나 놓고보면 다 자기의 하루하루를 후회없이 보낸 사람들이다. 그들은 설사 자기앞에 닥친 오늘의 일이 죽음으로 해내야 할 일이라고 해도 피하지 않았거던. 난 설사 달구지를 끄는 일이라고 해도 그들처럼 자기가 맡은 일을 가장 훌륭하게 해내는 사람이 진짜 애국자라고 생각한다. 네 말을 리해하겠니?》

혜선은 아버지의 어깨에 기댄채 머리를 끄덕였

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그럼 나하구 함께 들어가자요.》

《원, 제집애가 무슨 고굴탐사냐?》

혜선은 아버지의 어깨에서 고개를 들고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난 뭐 탐사대원이 아니었나요? 나두 고굴탐사에 참가했던 경험 있어요.》

열을 내며 자기의 고굴탐사전적을 폄아내리려는 딸을 만류하며 김근삼은 웃어버렸다.

《그래, 그래, 넌 우리 집의 자랑이다. 하지만 체네가 할게 있구 갈데가 있지 이게 무슨 총각을 만나러 가는 일이라구 네가 부득부득 나선단 말이나.》

《아니, 아버지!》

아버지의 얼굴에 능청스러운 기운이 어렸다.

《너 혹시 리명훈이 그 사람을 돕고싶어서 은근히 판판을 쓰는게 아니냐?》

《어마, 아버지!》

혜선은 아버지의 어깨를 종주먹으로 쳤다.

《어이쿠!》

아버지는 엄살을 했다. 혜선도 웃고말았다.

아버지는 즐겁고도 그윽한 눈길로 혜선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혜선아, 넌 아직 마음에 드는 총각이 없느냐? 네 나이가 이제 적지 않은데...》

혜선은 아버지의 시선을 피했다. 얼마전에 만났던 총각을 생각했다. ... 안경을 낀 얼굴에 어려있던 조용하고 어쭈어보이던 미소.

《너성들이 가정보다 사회와 집단을 위해 헌신하는건 찬양받을만 한 일이지요. 동문 앞으로도 그렇게 살겁니다. 난 그런 너성을 도울 마음속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치마를 두르는 일이라도.》

《고마워요.》

혜선은 진심으로 인사를 했지만 구슬픈 마음으로 돌아섰다. ...

《아버지, 너성을 위하구 돕겠다는 마음은 분명 미덕이에요. 가정생활에선 고마운 일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늘을 찌를듯 한 포부와 리상을 가지고 살아야 할 젊은 남자가 벌써부터 가정과 안해에게 자기를 바치겠다고 하는건 왜 그런지 싫고 허무하군요.》

아버지는 딸애앞에 소박하고 마음편해보이는 미소를 지었다.

《아무래도 너한텐 이미 마음을 정한 좋은 남자가 있는것 같구나.》

혜선은 아리송해서 고개를 가로저어보였다. 아버지는 웃었다.

《없다면 이제 생길거다.》

아버지와 딸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그후 아버지는 안중배부과장을 비롯한 몇사람과 함께 들어갔던 고굴탐사에서 그만 수직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떨어져내려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 생명은 구원되었으나 중앙병원으로 후송된 아버지는 다시는 탐사를 할수 없는 몸이 되고말았다. 자기 생의 마지막기력마저 나라의 자원탐사에 짱그리바친 로탐사대원의 희생적인 노력은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명천지구의 새로운 광체탐사는 로탐사대원의 유연처럼 신성시되었다. 다시금 시추탐사가 시작되고 혜선이가 아버지의 일을 대신하기 위하여 명천지구로 정식 파견되어왔다. 그러나 혜선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자신이 없어지는 자기를 느꼈다.

시추탐사는 계속되었으나 광체의 존재여부는 점점 더 희박해졌다.

어느날 밤, 열두시가 지나도록 시약처리한 시료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던 혜선은 끝내 지쳐서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더는 견딜것 같지 못했다.

온 방안이 휘휘 도는것과 같은 어지럼증마저 느꼈다. 끝내 자리에서 일어서 실험실문을 나섰다.

하늘에서는 배부른 반달이 너그러운 표정을 짓고 땅우의 모든것을 내려다보고있었다. 처녀는 멍하니서서 교묘한 정적이 깔린 산천을 처음이라도 보듯 바라보았다. 문득 자기가 혼자라는것을 느끼는 처녀다운 고독과 비애가 쓰르르하니 가슴속을 흘러가는것을 느꼈다. 저도 모르게 호 하고 한숨을 내쉬었다. 반발하듯 그 운무속으로 발걸음을 내짚었다. 그러다가 흠칫 놀라 벗어섰다. 마당앞 미루나무아래 있는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서는 사람을 보았던 것이었다. 그는 다름아닌 리명훈이었다. 두사람은 서로를 지켜보며 달빛속에 굳어진듯 서있었다. 명훈이 천천히 그에게로 다가왔다.

《퇴근하러오?》

《예.》

명훈은 혜선의 얼굴을 이윽도록 바라보았다.

《힘든 모양이구만.》

《힘들어요.》

가는 한숨같이 혜선은 속삭였다. 그리고나서는 반발하듯 리명훈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명훈은 대답을 하지 않았다. 혜선은 그가 여기에 오래 앉아있었다는것을 느꼈다. 그의 옷은 밤이슬에 젖은듯 거뭇해보였고 축축하고 서늘한 탱기를 풍기고있었다. 명훈은 한참후에야 무겁게 입을 열었다.

《증광석에 대한 자료들과 수값들을 컴퓨터에 입력시키자고 왔소.》

그것은 명훈의 연구가 마지막계선에 있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다. 두사람은 다시금 할말을 잇은 사람들처럼 달빛속에 말없이 서있었다. 그들의 발부

리에서 미루나무그림자가 애뜻하게 설렁거렸다. 이윽고 혜선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젠 저더러 포기하라는 말을 하고싶지 않습니까?》

리명훈은 혜선의 눈앞에서 천천히 고개를 가로저어보였다.

《아니요! 혜선동무, 아니요!》

조용하나 열렬한 부정이었다.

《혜선동무, 누가 옳고 누가 먼저 성공하는가의 뒤의 문제요. 동문 지금... 훌륭하오!》

달빛속에 선 리명훈의 온몸에서 인간의 마음을 어루쓰는듯 한 그윽하고도 절절한 기운이 질게 풍겨왔다. 왜서인지 그것이 싫지 않았다.

힘겹고 고독한 밤이어서 그런것일까?

하지만 다음순간 혜선은 반발하듯 고개를 쳐들었다. 웃으며 물었다.

《혹시 뻔한 승부를 놓고 고생하는 날 보면서 자기 우월감을 느끼는건 아닙니까?》

리명훈은 빙그레 웃었다.

《아무렇게나 생각하오. 하긴 언젠가 이런 시구절을 본 생각이 나누만.

경쟁자가 많으면 사기가 나지

경쟁자가 강하면 더더욱 신바람》

명훈은 어둠속에서 소리없이 웃었다. 그것은 참으로 솔직하고 마음후련한 웃음이었다. 어둠속에서 그 미소는 어떤 향기나 시원한 바람결처럼 혜선에게 와닿는듯 했다. 혜선은 불현듯 지겨운 피로가 다소 가셔지는듯 한 느낌을 받아안았다. 저도 모르게 따라웃었다.

《자, 그럼 내가 숙소까지 바래다주겠소.》

《고마워요!》

숙소는 가까웠다. 숙소앞에서 그들은 잠시 서로를 마주보았다.

문득 혜선은 자기의 가슴속에 아쉬움같기도 하고 미련같기도 한 야릇한 감정이 감도는것을 느꼈다. 이 달밝은 밤 시간의 촉박감이나 서로에 대한 경쟁심리를 떠난 평범하고 유정하기까지 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나누고싶었다. 그것은 처음으로 느껴보는 이상하면서도 유혹적인 충동이였다. 그 충동에 혜선은 한순간 헤여지지도 못하고 이야기를 나누지도 못한채 굳어진듯 서있었다. 그들사이에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다음순간 혜선은 자격지심에 가까운 심정으로 자기를 다잡았다. 혼연히 눈인사를 나누고 헤여졌다. 잠시 나는 그 이야기외에 그 어떤 미련도 없는것처럼...

하지만 침대에 누웠어도 잠이 잘 오지 않았다. 그는 새록새록해지는 눈을 천정에 준채 명훈이 하던 말들을 되새겨보았다. 문득 명훈이 이밤 그대로 자지 않으리라는 생각을 했다. 그 무엇으로써도 설 명할 길이 없는 확연한 예감으로 혜선은 그것을 느

꼈다. 혜선은 끝내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시료분석실로 나갔다. 그들은 다같이 자기 일에 열중하여 밤을 새웠다. 바로 그런 과정속에서 혜선은 증광석 시추탐사와 관련한 새로운 사실을 밝혀내고야말았다. 시추탐사는 특수강으로 만든 금속환이 수직으로 돌아가면서 암반을 갈아 그속의 시료를 채취한다. 그런데 증광석은 상대적으로 무른 광석이다. 만약 증광석이 자기보다 굳은 암반속에 존재한다면 그 암반을 뚫기 위하여 높은 속도와 압력으로 돌아가는 금속환에 갈려서 소모되거나 류실될수 있으며 특성도 변할수 있다.

따라서 광맥의 극소부위에 속하는 시추시료상에서는 함유량이 적은것으로 나타날수도 있다. 광산 개발의 수칙에 가닿지 못한 시추구역의 암반들은 증광석보다 정도이상으로 굳센 암반들일수 있다. 하지만 한겹 종이를 가려놓아도 앞을 볼수 없는 인간이 수천길 땅속을 정확히 들여다본다는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 아닐수 없는것이였다. 만약 혜선의 견해가 정확한것이라면 마지막으로 남은것은 탐사용공도를 뚫어서 광석의 유무를 확인하는것이였다. 시추탐사에 비해 그 탐사는 가장 정확하고 명백한 결과를 안겨주는것이였다. 하지만 굴을 뚫는 그 일은 막대한 자금과 로력을 들여야 하는 심각한 문제였다. 만약 막대한 자금과 로력을 들여 뚫은 탐사용공도에서 부정의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을 뚫을것을 결심한 당사자가 모든것을 책임져야 하는것이다. 많은 일군들과 사람들이 처녀에게 그것을 책임질수 있는가고 물었다. 그 막중한 책임감앞에 처녀는 한순간 당황했고 망설였다.

《만약?!》 하는 섬찝한 생각이 처녀의 가슴을 차갑게 얼구는듯 했다.

바로 그때 처녀는 보습산의 고굴에 대한 생각을 했다. 아버지가 왜 굳이 고굴에 대한 탐사를 하려 했는가도 그때에야 비로소 똑똑히 깨달았다.

명청지구의 심부에서 뻗어간 고굴에 대한 탐사는 그 일대의 지질상태와 광석의 유무를 정확히 알아낼수 있게 하는 그중 확정적인 조건이었던것이다. 하지만 처녀의 이야기를 들은 안종배부과장의 얼굴은 공포와 경악으로 허영게 질리는듯 했다.

《정신있소? 도대체 무슨 일을 못 처서 그러오?》

아버지와 함께 고굴에 들어갔다가 혼이 난 다음부터 안종배부과장은 고굴소리만 나와도 후덜후덜 몸을 떨었다.

《원, 무섭다무섭다 한들 그 고굴만 한데가 또 있겠소? 산채로 무덤속에 들어가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고굴속에 한번 들어가보라구 하오. 예잇, 을씨년스럽소. 고굴애긴 더 꺼내지두 마오.》

사람들은 수직굴에서 떨어지기는 혜선의 아버지가 떨어졌지만 더 상하기는 부과장이 상했다고 말

하곤 했다. 그렇게 질겁을 한듯 한 얼굴로 안종배 부과장은 혜선을 바라보았다.

《무슨 족구살구하는 판에 맞다들었다구 자기를 그렇게까지 확대한단 말ियो? 제 몸을 아프게 굽어야 피나 나오지. 안되오! 될 일은 거기에 눈물이 배지 않아도 되는 법ियो.》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글쎄...》

부과장은 애매하게 중얼거렸다. 그러더니 슬그머니 눈을 감아버렸다.

《좀 더 생각해보지요. 좀더 깊이...》

그는 오래도록 눈을 뜨지 않았다. 혜선은 그가 쉽게는 눈을 뜨지 않으리라라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행동보다 생각을 더 중시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깊은 생각끝에 간혹 잠들기도 잘하는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혜선에게는 다분히 어버이다운 그의 반대와 침묵이 은연중 고맙고 다행스럽기까지 한것을 어쩔수 없었다. 혜선은 자기도 눈을 감고싶었다.

속수무책의 안타까움속에 날과 날이 흘렀다. 바로 그때 충격적인 소식이 날아왔다. 리명훈이 끝내 단층탐사설비개발에 성공한것이였다. 관리국은 명절분위기에 휩싸였다.

《이젠 돌아가야지?》

안종배부과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벌써 관리국에선 단층탐사설비로 이 명천지구를 탐사하는 안을 검토하고있다는구만. 이런 날이 올줄 알았소. 어찌겠나. 세상엔 박수를 치는 사람도 있고 받는 사람도 있는걸.》

당연한듯이 울리는 말이다. 체념한듯 한 그 태연 자약함에 혜선은 다소 의아해지고 지어는 허무해지기까지 했다. 나무람하는듯 한 그 시선앞에 안종배는 사람 좋게 웃어보였다.

《도래떡이 왜 잔치상에 잘 오르는지 아오? 안팎이 없이 둥글둥글한게 아무데나 놓기 쉽구 보기가 좋아서 그런거지. 그것처럼 사람두 자기뿐만아니라 남두 편안하게 해주는게 사실은 제일 잘하는 처신ियो. 우리가 괜히 안달복달해야 그건 새 기술에 대한 무지로 되구 또 잘못하다간 시기질투를 하는 사람들로 인식될수 있거든. 그럴바엔 차라리 사람 좋단 소리를 듣는게 낫지.》

혜선은 언제나 성공에도 실패에도 다 준비되어있는듯 한 그 얼굴에서 천천히 눈길을 떨구었다. 사실은 자기도 지금의 이 막막하기까지 한 처지에서 벗어날수 있는 유일한 출로로 명훈의 성공을 은연중 기다리기까지 했다는것을 시인하지 않을수 없었다. 어찌면 그것이 흥광체문제를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인지도 모른다. 알길 없는 좌절감과 죄의식을 안고 혜선은 명천지구에서 돌아왔고 결국 안종배부과장이 끄는대로 발전소를 건설하는 돌격

대로 나갈것을 탄원했던것이였다.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일종의 반발이였고 또 제 나름의 마음속 위안이였다. 하지만 그때 리명훈이 그를 자기 방으로 불렀던것이였다.

그들은 기사장방에서 마주섰다. 어제날까지만 해도 함께 발길을 걸었던 그들은 기사장과 부원이라는 직무상차이를 안고 다시 만난것이였다.

리명훈은 다소 거북해진듯 한 얼굴로 명천지구에서의 광체탐사과정에 대하여 물었다. 단층탐사설비로 명천지구를 탐사하기 위한 실무적인 문제들을 묻고있었지만 김혜선은 알지 못할 마음속 부담을 느끼며 허둥거렸다.

《혜선동무, 이제 명천지구를 탐사하는데서 내가 뭘 참고해야 할진 없겠소?》

김혜선은 왜서인지 숨이 막히는듯 한 심정이였다. 아버지의 얼굴이 눈앞을 날아지나갔다.

《이를테면 여긴 특수지대인데 단층탐사설비에도 특수정보가 있어야 하거든.》

귀밑에서 푹푹떡떡 뛰는 피줄의 흐름소리가 너무도 크게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혜선은 필사적으로 자기를 변명하려고 애썼다.

꼭 고굴탐사를 해야만 모든것이 정확해진다는 법은 없지 않은가?

첨단설비인 단층탐사설비로 하면 모든것이 편안하고 명백해질것이 아닌가?

하면서도 리명훈에게 그 고굴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수 없는 자기를 느꼈다. 알지 못할 모멸감과 부끄러움이 온몸을 태우는듯싶었다.

혜선은 뼈근한 압박감을 느끼며 침묵속에 서있었다.

바로 그 순간이였다. 창밖에서 폭풍이 몰아쳐왔다.

감격과 환희의 열띤 폭풍이...

우리의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성공적발사를 전하는 방송원의 목소리가 구내를 울렸던것이였다. 누군가가 방문을 열고 《기사장동지, 들었습니까?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우주에 올랐답니다. 만세에-》 하고는 다시 뛰어나갔다.

리명훈이 달려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환호를 울리고싶은듯 한 얼굴로 푸른 하늘을 올려다본다. 마당가에서 울려퍼지는 열띤 환호성이 폭풍우마냥 방안으로 날아들었다. 돌격대원들은 출발을 기다리던 마당가에서 환호를 울리고 춤을 추고있었다. 그들은 창문가에 나타난 젊은 기사장을 향해 손을 흔들고 발을 굴렀다.

《기사장동지, 오늘에 할수 있는 일,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 말라고 했지요? 그럼 이런 경사의 오늘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말 좀 해주십시오.》

《기사장동지, 나오십시오. 춤을 춥시다. 오늘갈

은 날은 춤을 춰야 합니다. 단층탐사설비도 우리 탐사분야의 위성이나 같지요? 동무들, 옳지요?》

《옳소요!—》

환성소리, 박수소리, 발구름소리...

그 순간 혜선은 인공지구위성 운반로켓의 제작과 발사에 반드시 필요하다던 증광석에 대한 생각을 했다.

고굴에 대한 생각이 다시금 떠올랐다.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이 갈마들어 이 자리를 피해버리고 싶었다.

문득 리명훈이 마당가에서 풍겨오는 열띤 기운을 피하듯 천천히 창문을 닫았다. 창문을 등지고 혜선에게로 돌아섰다.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은 투박한 바줄마냥 혜선의 온몸을 칭칭 비끄러매는 듯싶었다.

리명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선동무, 동무도 알겠지만 그 어떤 첨단설비도 인간의 노력과 경험을 완전히 대신하지는 못하오. 내 견해에 의하면 명천지구의 지층이나 암석상태는 그 어느곳보다도 복잡하고 또 증광석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은것이 너무 많기때문에 단층탐사설비라고 해도 정확히 밝혀낼수 있는 확률은 70프로를 넘지 못하오. 그리고...》

명훈은 말을 더듬었다.

《그리고 또 뭘니까?》

처녀는 당황하여 가까스로 중얼거렸다. 그의 말 한마디한마디가 심장을 아프게 조이는듯싶었다. 명훈은 잠시 대답이 없었다. 이윽고 혜선의 눈을 주의깊게 들여다보며 조용히 말했다.

《중요한건 나나 동무나 명천지구에서 자기가 해야 할 일들을 다 못했다는 그것이지요.》

그 순간 혜선은 흠칫 놀랐다. 자기를 바라보는 리명훈의 침통하고도 근엄해진 눈을 보았다. 별안간 아무런 까닭도 없이 리명훈이 고굴탐사문제를 알고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문을 알지 못할 두려운 예감이 온몸을 달려지나갔다. 명훈은 그의 살피는듯 한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동무 아버지가 병원에서 나에게 편지를 보내왔소. 간호원을 통해 써보냈더군요만.》

김혜선은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더는 아무것도 숨길수 없다는것을 깨달았다.

한없이 초라해진 자기를 느꼈고 이 순간 그를 피해 어디론가 달아나고싶기까지 했다.

그들사이에 오래도록 침묵이 흘렀다. 리명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선동무, 물론 나도 그 70프로의 확률로 찾아보다 못 찾으면 할수 없다고 생각했댔소. 하지만 난 방금 인공지구위성을 쏘아올린 우리의 과학자들을 생각했소. 그들이 자기들의 연구를 무엇보다 먼저 시작했을까 하고. 어느 누가 우리가 발전

하기를 바래서 기술을 넘겨주구 도움을 주었겠소. 오히려 방해하고 비난하고 생억지를 부리며 가로막으려 했을거요. 바로 그런 속에서 모든걸 우리의 힘, 우리의 기술로 처음부터 시작했을 과학자들이 아니요. 설사 그들이 날아가는 팔매돌부터 연구했다고 해도 과연 그들이 힘이 없고 뒤떨어진 사람들이었겠소?》

리명훈은 말을 멈추고 창가로 돌아서더니 예대로 푸르기만 한 하늘을 뜨거운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혜선도 저도 모르게 그 시선을 따라 푸른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그 하늘에서 울려오는듯 한감을 느꼈다.

《그들은 성공의 하루를 위해 백날, 천날을 흘롱하게 산 사람들이요. 단 한순간의 공백도 없이... 난 우리가 다름아닌 그들처럼 살아야 한다는걸 말하고싶소.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든 그들의 정신, 그들의 본때로 오늘의 하루하루를 완성해야 하오.》

문득 마당에서 찾고 부르는 활기롭고 떠들썩한 소음이 창문을 넘어 날아왔다. 어느덧 돌격대원들이 떠나려고 하는것이였다. 독촉하듯 울리는 자동차의 경적소리가 들려왔다. 그러나 혜선은 굳어진듯 서서 움직이지 못했다. 무엇인가 커다란 바위돌같은 기운을 풍기는듯 한 명훈의 잔등을 접먹은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문득 가슴속으로 알길 없는 전율이 날아지나갔다. 그것은 그가 아버지처럼 고굴속으로 들어갈수 있다는 생각이였다. 아무런 근거도, 조건도 없었지만 왜서인지 자꾸만 그런 생각이 갈마들었다. 그것은 오랜 세월을 보아오고 느껴온 리명훈에 대한 그로서의 확신이였다.

아프고도 두려운 생각으로 처녀는 질린듯 서있었다. 자기의 그 생각을 입밖에 내기도, 물어보기도 겁이 났다. 리명훈이 무슨 말인가 해주었으면 하고 바랐으나 명훈은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다.

그 무시해버린듯 한 침묵이 못 견디게 가슴을 옥죄이는듯 했다.

아, 무슨 말인가 해주었으면!

차라리 엄하고 모질게 고굴탐사를 해야 한다고 꾸짖어주었으면!

그러나 명훈은 여전히 그를 등진채 침묵을 지키고있었다. 혜선은 한없는 모멸감과 아픔을 느끼며 굳어진듯 서있었다. 창밖에서 독촉하는듯 한 자동차경적소리가 다시금 울리고 방문이 조심스럽게 울리며 열리더니 조금해진 안종배부과장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떠나야 하는것이다.

혜선은 자기를 잊어버린듯 창문쪽에서 돌아서지 않는 리명훈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며 서있었다.

《됐소. 어서 떠나가오.》

밀치는듯이 느껴지는 목소리. 눈물이 콧 솟구칠 것만 같은 심정을 느끼며 굳어진듯 서있었다. 천천히 몸을 돌려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처녀는 끝내 달리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고말았다.

안종배부과장이 눈이 둥그래서 왜 그러는가고 물었다.

《아무래도 전 명천지구에 다시 가야겠습니까. 돌격대로 가더라도 고굴탐사를 하고야 가겠습니다.》

안종배부과장의 얼굴은 놀라움과 불안으로 하여 거뿔게 굳어지는듯싶었다.

《갑자기 왜 그러오? 다 끝난 일에... 그렇게 너무 심하게 굴 필요가 없단니까.》

혜선은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닙니다. 전 오늘 자기가 할바를 못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는 싫습니다. 자기가 할일을 남이 하는 건 더욱 싫고요.》

안종배부과장은 말문이 막힌 사람마냥 혜선의 얼굴을 멀거니 지켜볼뿐이었다. 그의 얼굴에 어린 단호한 빛을 읽은듯 무겁게 한숨을 쉬며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다. 다소 주눅이 든듯한 목소리로 사정하듯 중얼거렸다.

《알만은 한데... 꼭 그럴 필요가 있겠소? 그리구 동무가 이제 고굴탐사를 하면 난 또 뭐가 되오? 허나새나 그곳 일을 책임지고갔던 사람인데... 내 립장두 좀 생각해줘야 하지 않겠소.》

혜선은 새삼스럽게 부과장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왜서인지 너그럽고 성실하게까지 여겨졌던 자기의 상급이 한없이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졌다. 알길없는 런던과 동정이 솟구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혜선은 조용히 말했다.

《부과장동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난 누구에게 소문이나 내고 자기를 시위하고싶어 이러는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해야 할 일을 단지 무서워서 하지 못한 보잘것 없는 존재가 되는것이 싫어서 그러합니다.》

혜선은 킁킁해진 얼굴로 서있는 부과장을 등지고 돌아서 걸어갔다. 명천지구로 가는 로상에서 그는 그곳 탐사대의 일군에게 전화를 걸었다.

자기의 고굴탐사를 도와줄 인원을 보장해달라고 부탁했다. 시간이 촉박하니 미리 보습산고굴앞으로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부탁했다.

탐사대의 일군은 선선히 그러마고 약속했다. 그런데 타고오던 자동차가 고장나는 바람에 퍼그나 지체되었다. 보습산고굴앞에 이르니 탐사대일군이 보내주겠다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다.

기다리다가 가버린것일가? 아니면 아직 도착하지 않은것일가?

처녀는 고굴앞에 서서 안타까이 바재였다. 그러

나 아무리 기다려도 사람들은 오지 않았다. 깊은 산속이니 전화도 통하지 않았다. 처녀는 어쩔바를 몰라 서성거렸다.

그 순간 왜서인지 리명훈의 얼굴이 떠올랐다. 무시하듯, 꾸짖듯 자기를 향해 돌려졌던 무심한 잔등이 아프게 떠올랐다.

아버지의 얼굴과 아버지가 들려주던 보습산의 전설도 떠올랐다.

수많은 사연과 세세년년의 소원을 품어안은 보습산이 의미심장하게 설레이고있었다. 처녀는 저도 모르게 고굴속으로 발걸음을 내짚었다.

바로 이렇게 되어 홀로 고굴속에 들어서게 된 혜선이었다. 처녀는 전지불빛을 앞세우고 빨려들어가듯 고굴속으로 전진해갔다. 이곳 암석이 잘 무너지지 않는 질기고 굳은 암석이라는것으로 자기를 위안하려고 애쓰며 천천히 전진해갔다. 차츰 마음이 진정되어가는것을 느꼈다.

필요한 시료들을 따서 배낭속에 넣었다. 특이한 자료들을 수첩에 적었다. 문득 처녀는 고굴바닥이 비탈길처럼 경사가 저서 아래로 뻗어내려간것을 알아보았다. 굴천정이 뻗하도록 무너져내린 돌들이 그 비탈길에 깔려있었다. 좁고 비탈진 검은 구멍모양의 고굴은 끝을 알수 없는 어둠속으로 무시무시하게 내리뻗어있었다.

혹시 여기가 아버지가 떨어져내렸다는 그 수직굴이 있는 곳은 아닐가? 한순간 몸을 가누지 못해 미끄러지며 수직굴로 떨어져내렸다고 했지.

처녀는 가슴속에서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공포와 손가락 하나 까딱할것 같지 못한 무력감을 이겨내느라 오래도록 서있어야 했다. 그러나 처녀는 끝내 자기를 다잡았다.

용기를 내야 한다.

처녀는 흐느끼듯 숨을 들이그으며 석수에 젖은 비탈길에 한발을 들여놓았다.

온몸에 힘을 주고 허리를 굽힌채 경사면에 서슴없이 들어섰다. 조심스럽게 아래로 내려갔다. 하지만 한걸음을 잘못 짚어 그만 비칠했다. 와르르 미끄러져내리는 돌과 함께 허둥거리기 시작했다. 온몸이 한쪽으로 쏠리는것을 느꼈다. 몸을 바로잡으려고 두팔을 휘저으며 허둥거렸으나 끝내 굴벽에 부딪쳐 전지를 떨어어버리고는 비명을 올렸다. 발 밑에서 요란한 소리를 내며 밀려내려가는 돌들을 느꼈으며 그 돌과 함께 검은 구멍같은 굴속으로 자기 온몸이 사정없이 빨려들어가는것을 느꼈다. 뒤번져지는 영화의 화면처럼 모든것이 눈앞에서 휘돌아가는듯 했다.

《아!-》

절망에 빠진 처녀의 비명소리가 길게 울렸다. 뒤이어 모든것이 캄캄해졌다.

처녀는 끝없는 활기와 드바쁨이 넘쳐나는 아침거리에 대학생치마저고리를 입고 서있었다.

그는 자기가 아름답다는것을 알고있는 그런 처녀들중의 하나였다. 바로 그 아름다움으로 인한 사람들의 호감과 친절 그리고 복종에 거의 습관된 처녀였다. 바로 그 모습으로 처녀는 자그마한 수첩을 들여다보며 천천히 걸어오고있는 명훈의 앞을 막아나섰었다.

《아, 혜선동무로구만.》

《명훈동진 왜 걸어서 갑니까? 저기 저 정류소에서 버스를 타면 바로 대학정문앞에서 내리는데...》

명훈은 대답이 궁한듯 웃기만 했다. 그러다가 대답했다.

《난 주머니에 버스표를 넣고 다니는 성미가 아니요.》

《어마나! 버스표가 없으면 어떻게 다닙니까?》

혜선은 자기가 멘 가방의 한뼘만 한 자크를 소리나게 열어제꼈다. 그속에는 차곡차곡 접은 버스표들이 가득 들어있었다.

《제가 매일 아침 버스표를 드리겠으니 버스를 타고갑시다. 아침마다 할일도 많겠는데 걷는 것보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절약할수 있는지 모릅니다.》

명훈은 그저 웃기만 했다. 그 웃음앞에 혜선은 저도 모르게 조급해졌다.

《그리구 버스줄이나 버스안에서도 외국어단어를 암송할수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 복잡한 대중집합장소들에서 독서를 하며 주의력 집중훈련을 했다는데... 그리구 또 그렇게 버스줄이나 버스안에서도 공부를 하는 모습이 얼마나 돋보입니까? 마치 평양의 아침풍경처럼.》

그 순간 혜선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말에 반해버리고 스스로없이 도취되어버리고말았다.

버스를 타는것은 얼마나 유익한 일이며 매 사람들의 기쁨과 드바쁨으로 채색된 평양의 아침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명훈동지도 버스를 타보십시오. 어마나! 저기 벌써 버스가 옵니다.》

혜선은 제잡담 몇걸음 뛰기까지 했다. 그러다가 움직이지 않는 명훈을 돌아보고는 안타까와 그만 울상을 지어보이며 발까지 동동 굴렀다.

《야 참, 명훈동지!》

다분히 웅석기까지 섞인 그 독특하고 야릇한 청원에 명훈은 그만 웃고말았다. 혜선은 달려와 명훈의 손을 잡아끌었다. 명훈은 어쩔수 없다는듯

소리내어 웃으며 혜선과 함께 버스정류소로 뛰었다.

웃음소리, 혼풍인양 그들의 얼굴에 와닿는 청신하고 상쾌한 아침공기...

그들을 위하여 한없이 유쾌해지고 다심해진 거리와 생활이 쏜살같이 마주 달려오는듯 했다. 혜선이 명훈과 함께 대학앞 정류소에 내리자 그의 동무들이 놀랍고 즐거워 떠들썩 소리를 지르며 그들에게로 달려왔다.

《야, 명훈동지!》

《명훈동지!》

명훈의 두손까지 잡고 쿵쿵 뛰며 깔깔 웃는 그들을 보고 오히려 명훈이 의아해졌다.

《아니, 동무들은 왜 그렇게 좋아하오?》

《명훈동지와 함께 등교하는게 좋아서요.》

《예! 정말 좋아요.》

모두가 명훈을 둘러싸고 허리가 아프도록 깔깔 웃으며 돌아가던 그 아침.

그날부터 혜선은 명훈의 아침등교길에 나와서 그를 기다리다가는 버스정류소로 이끌어가곤 했다.

하지만 그 아침들이 늘 즐겁기만 했던것은 아니었다.

어느날 아침, 늘 만나던 자리에서 명훈을 기다리던 혜선은 등교시간이 다 되도록 그가 나타나지 않는 바람에 속이 새까맣게 타버렸다. 무슨 사연이 생긴거라고 생각하고 정류소에 섰는데 버스가 통 오지 않는다.

급해맞아 뛰어서 대학으로 가는데 그렇게도 기다리던 버스가 그를 앞서서 썩하니 가버린다. 안타깝고 분해 눈물이 다 나올것만 같았다. 어깨가 축 처져 지각해 들어서는 그를 본 동무들은 휴식시간에 입을 모아 그를 돌려주었다.

《결국 실패했구나.》

《그래! 파탄된 버스작전이야.》

《너 명훈동지가 아침에 버스를 타면서 암송 못 한걸 보충하느라고 저녁에는 아침에 못 걸은만큼 빙 돌아서 걸어간다는 소릴 들었니? 오늘도 걸어서 들어오더라.》

《애, 그럼 내 사전을 도로 돌려줘야 하지 않겠니?》

《너희들 정말 약올리겠니?》

혜선은 정말로 성이 나서 소리쳤으나 웃음소리만 더 커졌을뿐이었다. 그날 저녁 토라져서 동무들과도 떨어진채 혼자 걸던 혜선은 대학정문에서 그를 기다리고있은듯 한 명훈과 마주쳤다.

《성났소, 혜선동무?》

고개를 외로 돌리고선 혜선을 보며 명훈은 웃었다.

《자, 오늘은 나와 함께 버스를 타지 말고 걸어

서 가가요. 얘기나 하면서.》

그가 이러며 앞장서 걷는 바람에 혜선도 어쩔수 없이 따라섰다. 그들은 활기로운 저녁거리를 말없이 걸었다. 명훈이 먼저 입을 열었다.

《혜선동무, 내 이야기를 하나 할가?》

《하십시오.》

명훈은 자기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있는듯 한 골똥한 표정을 지은채 조용히 입을 열었다.

《혜선동무, 내가 제대되어 대학에 온지 얼마 안 되었을 땐데 난 일요일에 어딜 갔다와야 할 일이 생겼댔소. 걸어서 한시간이면 갔다올 거리였지. 난 시간을 절약하자고 버스를 타기로 했소. 그런데 금방 제대되어오다나니 그 버스로선이 달라졌다는걸 몰랐지. 결국 걸어서 한시간이면 될 거리를 나는 버스를 타고 한것이나 빙 돌아서 갔다올수 있었소. 난 그날에 복습하기로 했던 과제를 채 못했고 다음날 지적을 당했소.》

리명훈은 마치 그 순간이 눈앞에 있기라도 한듯 얼굴을 붉혔다.

《혜선동무, 사회의 물질문화수준이 높아지고 사람들의 편리와 편의를 도모하는 수단들이 발전하는 건 좋은 일ियो. 시간도 절약할수 있소. 하지만 나의 경우엔 군인시절에는 혼연하게 걸어서 가던 길을 꼭 버스를 타야 가는것으로 여기게 되는 안온한 태도가 두렵소. 나야 대학생이 아니요. 래일에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오늘에 몸과 마음을 억척으로 준비해야 할 내가 벌써 그런 나약한 정신에 포로되기 시작한다면 그건 좋은 일이 못되오. 그래서 난 굳이 걸어다니기로 결심한거요. 어떤 사람들은 웃을지도 모르오. 하지만 혜선동무는 내 마음을 이해해주리라 믿소.》

혜선은 자기가 결코 이 강인하고 열정적인 청년을 목적이외의 다른 길로 이끌어내거나 시험해낼수 없다는것을 똑똑히 깨달았다. 문득 자기가 아직도 이 청년앞에 10여년전 강물을 줌저리던 연약한 소녀로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한 인식은 자기자신에 대한 모멸감으로 솟구쳤고 뒤이어 알지 못할 반발심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리하여 명훈이 《어떻소, 혜선동무? 날 버스에 태우느라고 하지 말고 동무도 나와 함께 걷지 않겠소?》라고 반통답삼아 이야기했을 때 반발이나 하듯 머리를 가로저어보였다.

《아닙니다. 전 꼭 버스를 타고다니겠습니다.》

명훈은 놀란듯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앞에 혜선은 다시금 고개를 가로저어보였다.

《전 지금도 명훈동지에게 버스를 타면서도 모든걸 다 할수 있다는걸 말하고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버스를 타자는걸 다시한번 부탁하고싶습니다.》

명훈은 어쩔수 없다는듯 소리내어 웃었다. 모든

것을 리해한다는듯 고개를 끄덕여보였다. 그러더니 다소 서운한듯 말했다.

《알겠소. 하지만 난... 버스를 타지 않겠소.》

《좋습니다.》

반발심으로 하여 튀어나온 그 대답이 하나의 결심으로 굳어졌다. 혜선은 자기도 명훈처럼 아침 등교길에 제2외국어를 습득하리라 마음먹었다. 그것도 명훈처럼 걸으면서가 아니라 버스를 타고다니면서 해내리라 결심했다. 자기자신에 대한 반발인지 아니면 명훈에 대한 반발인지 알수 없는 그 결심이 처녀의 가슴속에 대추씨마냥 단단히 박혔다.

그날부터 처녀는 명훈을 그대로 두고 버스정류소에 서있었다.

버스가 오는것도, 사람들이 설레이는것도 인식하지 못하며 수첩만 들여다보고 서있는 처녀대학생. 버스안에서조차 결눈 한번 파는 일 없이 외국어단어를 암송하거나 레시바록음을 듣는 처녀대학생의 모습은 차츰 사람들에게 변하지 않는 아침풍경처럼 되어버렸고 그는 결코 방해하거나 범접할수 없는 신성불가침의 존재처럼 되어버렸다.

어느날 아침 정류소에 서서 외국어단어를 암송하던 혜선은 어느날처럼 걸어서 등교하다가 멈춰서서 자기를 지켜보고있는 명훈을 보았고 그 순간 왜서인지 알지 못할 부끄러움마저 느끼며 고개를 숙였었다. 더더욱 다급했던것은 명훈이 다가오며 무엇이라고 묻는 순간 대답을 한다는것이 저도 모르게 암송하고있던 외국어로 대답한것이였다. 사람들도 웃고 명훈도 웃었지만 혜선은 얼굴이 활짝 붉어졌었다.

대학졸업후에도 그들의 생활은 두줄기의 레루처럼 그렇게 흘러갔다. 리명훈은 걸어서 출근하고 혜선은 여전히 버스줄에 서있었다.

5

온몸을 옥죄이는듯 한 아픔과 공포속에서도 추억은 야릇하고 즐겁기까지 했다. 혜선은 캄캄한 어둠속에 묶이운듯 쓰러져 그 모든것을 되새겨보고있었다. 리해나 화합의 아기자기한 이야기보다는 경쟁과 승벽의 어마처마한 이야기로 가득찬 지난 시절이다. 그 시절은 서로가 서로를 용납 못하면서도 끊임없이 앞으로 떠밀어온 이상하고도 야릇한 관계로 이어진것이다. 결국 그것때문에 이 위험한 고굴속으로 홀로 들어섰고 지금은 생사조차 위태로와진 절망적인 처지에 빠진것이다.

처녀는 흐느낌마냥 온몸에 퍼져가는 급한 숨결을 가다듬으며 눈알이 빠져나간듯 한 어둠속에 까딱않고 누워있었다. 본능처럼 손이 닿는 곳을 어루머듬어보았으나 닿는것은 차갑고 언뜻언뜻한 돌뿐이었

다. 차거운 어둠과 고적만이 숨이 막히도록 처녀를 내리누르는듯 했다.

캄캄한 혼돈의 세계에 내버려진것만 같은 무섭고 지겨운 느낌.

처녀는 드디어 무서운 공포를 느꼈다. 저도 모르게 목구멍으로 치미는 흐느낌같은것을 느꼈다. 이 발을 악물고 온몸을 떨며 어쩔수없이 나직이 부르짖었다.

《도와줘요!》

처녀는 목청껏 그 말을 부르짖고싶었다. 하지만 그 말은 겨우 입술언저리를 스쳤을뿐이었다. 첫 순간 처녀는 자기가 전화를 걸었던 탐사대의 일군에게 호소한다고 생각했으나 자기자신을 속일수는 없었다. 그는 웬일인지 다름아닌 그 사람, 자기를 이 고굴속에 떠밀어넣은 리명훈을 향하여 그 말을 부르짖고싶어졌던것이었다. 처녀는 위험에 처한 이 순간 명훈에 대한 어쩔수 없는 공감과 이해, 지어는 알길없는 그리움마저 느끼게 되는 자기를 깨달았다. 부끄러움과 눈물이 솟구칠것만 같은 서러움을 느끼며 처녀는 다시금 흐느끼듯, 속삭이듯 부르짖었다.

《도와줘요!》

그 순간 처녀는 자기의 가슴속에서 지겹던 공포와 절망이 한결 옅어지고 한줄기의 위안과 기대가 갈마드는것을 느꼈다. 마치도 무더운 여름날 열려진 창문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들듯이...

불현듯 가슴이 활랑거려지는것을 느끼며 혜선은 자기자신을 부정하듯 고개를 가로저었다. 절대로 나약해져선 안된다고 입술을 깨물었다.

먼저 우로 삼십보, 아래로 삼십보 움직여보리라 결심했다. 손전지를 찾아야 하는것이다.

처녀는 입속으로 가만가만 셈을 세며 캄캄한 어둠속을 무릎걸음으로 움직여갔다. 사방을 손더듬하며 손전지를 찾았다.

《스물둘, 스물셋...》

입속으로 셈을 세는 처녀의 목소리는 흐느낌소리처럼 떨렸다. 그러나 캄캄한 어둠속에서 손에 닿는것은 차갑게 날이 선 돌뿐이었다.

차츰 무릎이 아프고 손이 얼벌벌해왔다. 이발을 악물고 참아가며 그냥 움직여갔다. 그러나 우로도, 아래로도 손전지는 없었다. 이번에는 다시 오십보 움직여보리라 생각했다.

《서른셋, 서른넷...》

그것은 필사적인 몸부림이었다. 언뜰뜰한 돌우를 움직여가는 두무릎이 몹시도 아팠다. 차츰 무엇인가 뜨끈하고 끈적끈적한것이 내배는듯이 느껴졌다. 돌우를 쓰다듬어가는 두손도 불에 닿은듯이 화끈해온다.

그래도 처녀는 몸부림치듯이 그냥 움직여갔다.

하지만 그 순간 처녀는 모르고있었다. 바로 처녀

가 향해가는 아래로 오십보앞에 아버지가 떨어져내린 그 수직굴이 있다는것을...

처녀는 몸부림치듯 하며 아래로 움직여갔다, 수직굴을 향하여...

《마흔다섯, 마흔여섯...》

두무릎이 몹시도 아파온다. 손은 이미 감각을 잃은듯 했다. 무릎쪽에서 돌들이 굴러내려 어딘가 아득한 속으로 떨어져내리는듯 한 소리가 들려온다. 그래도 움직여갔다.

《마흔일곱, 마흔여덟...》

수직굴은 바로 앞에 있었다. 그 순간 문득 손끝에 무엇인가 돌파는 다른 매끈한것이 느껴졌다. 화닥닥 고괘치는 심장을 느끼며 얼없이 그것을 두손으로 감싸쥐었다. 그것은 손전지였다. 확하고 비쳐나오는 불빛을 느끼는 순간 처녀는 자기가 소리내어 울어버릴것만 같았다.

그 손전지를 가슴앞에 감싸쥔채 기쁨인지 서러움인지 알수 없는것에 몸을 떨며 처녀는 그냥 앉아있었다. 이윽고 빨리 움직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비칠거릿듯 일어섰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처녀는 자기 발앞에 검은 구멍같은것이 입을 벌리고있는것을 알아보았다. 온몸으로 줄달음쳐가는 공포의 전율, 수직굴을 알아본것이었다. 아버지를 삼켰던 수직굴이 한결음도 채 안되는 앞에 있었다. 공포감으로 온몸이 굳어져 버리는것을 느꼈다. 그것을 피해 뒤로 물러서고싶었으나 어찌된 영문인지 온몸이 그쪽으로 기울어져 가는것만 같았다. 발치에서 돌이 구울러 그 검은 구멍속으로 삼키워져 들어가는것이 똑똑히 보인다. 처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러면서 그속으로 빨리위 들어가듯 기울어졌다. 처녀는 눈을 감아버렸다. 바로 그 순간 처녀는 자기의 앞에서 돌풍과도 같이 빠르고 억세며 화끈한것이 몰려와 자기를 덮쳐안는것을 느꼈다. 여러 사람들의 목소리가 고굴속을 찌렁 찌렁하니 울린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어떤 화끈한 기운이 숨길을 막으며 그를 팽포하게 싸안고 어둠속으로 날아오르는듯 했다. 자기를 힘껏 그러안은 두팔이 참을수없이 크고 뜨거운듯 했으며 어딘지 알수 없는 곳으로 떠가는 그 시간이 참을수없이 긴듯이 느껴졌다.

이윽고 혜선은 자기가 얼굴을 들이찌르는 전지 불빛속에 서있는것을 깨달았다. 안도감과 고마움을 느끼며 자기의 얼굴을 물고 놓아주지 않는 전지 불빛속에서 웃어보이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는 애처롭게 얼굴을 이지러뜨렸을뿐이었다. 문득 눈부신 불빛속에서 억이 막힌듯 한 목소리가 울렸다.

《왜 혼자서 여길 들어왔소, 왜? 죽자고 그래?》

그 순간 혜선은 흠칫 놀랐다. 가슴이 이상스럽게 후두두 떨려오는것을 느꼈다. 격분과 당황함으로

하여 투박하게 울린 갈린 목소리였지만 혜선은 자기앞에 서있는것이 다름아닌 리명훈이라는것을 깨달았던것이었다.

놀라와 눈을 홑뜨채 굳어졌다. 주변에 금색 그림자마냥 우뚝우뚝 서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우린 고굴앞에서 기다리고있다가 이 동지가 와서 고굴에 들어가겠다고 하길래 따라왔는데...》

《글쎄 내 뭐래. 분명히 너자가 온다고 했잖아.》

《그래두 먼저 들어가는 사람을 따라가야지.》

《거 괜히 막혀있는 결굴을 모르구 들어갔다 나 오는 바람에 뒤에 오는 사람을 못 알아봤어.》

《하두 이 기사장동지가 뒤에서 무슨 비명소리같은게 들렸다구 해서 돌아섰으니 그렇지...》

모든것이 헤아려졌다. 불현듯 서러움과 노여움이 알각 솟구치고 목이 콕 메여올랐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금색불빛속에서 끝없는 아픔과 모멸감이 날아와 가슴에 박히는듯싶어졌다. 처녀는 모지름쓰듯 물었다.

《그러니 명훈동진 애초에 이렇게 혼자서 고굴탐사를 할 작정이였는가요?》

대답이 없었다. 불현듯 눈언저리를 화끈하게 하는 눈물을 걸잡지 못하며 처녀는 소리쳤다.

《자기가 할바를 다 못한 연약한 너자하고는 더 상대하고싶지 않아 혼자 들어왔겠지요?》

《혜선동무!》

리명훈이 당황한듯 중얼거렸다. 혜선은 부르짖었다.

《그래요! 난 무서워서 고굴탐사를 못했었어요. 바로 그런 너자보다 자기가 몇배, 몇십배 강하고 우월하다는걸 그렇게도 꼭 확인시키고싶었나요? 왜 차라리 고굴탐사를 꼭 해야 한다고 엄격하게 요구하지 못했나요? 함께 탐사하자는 말은 아예 생각도 못했겠지요? 그랬을거예요. 제가 너무 보잘것 없어서 그랬겠지요. 좋아요, 이젠 동지가 여기까지 와서 절 구원해주었으니 동진 땀땀하고 훌륭해요. 이젠 나만이 남았어요. 고굴탐사는 내 일이에요. 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젠 날 내버려두고 동진어서 여기서 나가줘요. 나가주세요!》

눈앞을 가로막은 눈부신 금색불빛은 까딱하지 않는다. 함께 서있던 탐사대원들이 웅색한듯 수군거리며 한쪽으로 슬그머니 물러선다. 금색불빛속에서 명훈의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혜선동무, 미안하오. 나도 동무에게 고굴탐사를 함께 하자고 부탁하고싶었소. 하지만 너무도 힘겹구 위험한 곳이라는 생각에 차마 말을 못했소.》

《그래요. 동지는 너무도 훌륭해요, 흠잡을데없이 무서울만큼. 오늘도 그렇고 래일도 그래요. 하

지만 동진 너무 자기만 생각해요. 리기적이고 독선적이에요. 동진 너무 차고 모질어요.》

혜선은 솟구치는 모멸감과 설움으로 하여 자기를 건잡지 못한채 부르짖었다.

《혜선동무, 미안하오.》

눈부신 금색불빛속에서 불현듯 남의 목소리처럼 낮설게 느껴지는 목소리가 들려온다.

《난 동무와 빠스를 함께 타자는 말은 할 생각이었지만 고굴속에 함께 들어오자는 말만은 정말 할수가 없었소.》

문득 처녀의 눈앞에 빠스에 함께 타고있는 자기들의 모습이 떠올랐다. 불현듯 가슴이 활랑거리고 온몸이 굳어져버리는듯 했다. 저쪽에 물려가있는 탐사대의 사람들중에서 누군가가 소리를 내어 웃는것을 가려들었다. 다음 고굴속을 이상스럽게 웅웅 울리는 유쾌한 목소리들을 들었다.

《윈, 듣고보니 뻔한걸 그림니다래. 배운 사람들은 다 그런가? 콩이면 콩이구 팔이면 팔이지 뭘 자꾸 따지며 그러시우. 듣구보니 더 말할것없이 들어서 고굴탐사를 함께 하면 되겠수다.》

온몸을 화끈하게 하는 기운을 느끼며 처녀는 몸둘바를 몰라 허둥거렸다.

《뭘 억대우같은 기사장동무의 품에 안겼됐으니 더 말할것도 없지 않소. 우린 나가겠수다.》

《하긴 싸우면서 정이 드는 사람들도 있더라구요.》

《조꼬만게 뭘 안다고 그래.》

《그저 말보다 행동이 제일이우다. 꼭 말이 필요하다면 기사장동지가 남자답게 먼저 하시우. 나하구 함께 삼시다 하구요.》

그들은 흐하흐하 웃으면서 밖으로 몰려나갔다. 당황하고 부끄러운 기운에 온몸이 확 달아오르는것을 느끼며 혜선은 몸둘바를 몰라 찢찢했다.

굴안을 울리던 그들의 말소리며 웃음소리, 발자국소리들이 사라져버리자 굴안에 고요가 깃들었다. 불현듯 그 고요가 참을수없이 느껴지고 입안이 타들어오는듯 했다. 온몸을 뼈근하게 압박하는듯 한 그 침묵의 중압속에서 자기가 저도 모르게 비칠한것처럼 느껴졌다. 바로 그때 허가 굳어져버린듯 한, 그래서 낮설게까지 느껴지는 명훈의 목소리가 들려다.

《내가 하고싶은 말은... 혜선동무, 우리... 함께 하가요.》

당황함과 일을 치르어낸듯 한 안도감이 느껴지는 목소리.

명훈과 자기사이에 덮여있던 애매몽롱한 모든것이 명훈의 그 한마디 말로 하여 불시에 생생하고도 예리하며 적라라하게 드러나는듯싶어졌다. 세차게 뛰는 자기 심장의 고동소리를 분명히 들었다. 누군가가 자기 귀가에 대고 커다랗게 소리쳐주는듯 한

감이 들었다.

《이 사람은 너를 사랑하고있다.》

얼굴이 화끈 달고 귀안이 멍멍해지는데 했다. 부끄러움과 당황함으로 하여 아니라고 반발하고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피는 너무도 뜨거웠고 반발은 너무도 미약했다. 마치도 자기가 오래동안 그 말을 기다려온듯이 느껴졌다. 눈물을 흘리며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알갭게도 또다시 가슴을 꼬집어뜯는듯 한 이상한 반발심을 느꼈다. 그는 이 순간 리명훈앞에 나약하고 감상적인 처녀로 나서고싶지 않았다. 왜서인지 자기가 그를 쉽게 용서할것 같지 못했다. 그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가로저어보였다.

《아니, 난 싫어요. 전 일생 명훈동지같이 독하고 무정한 남자나 그런 상급과 같은 일을 하지 않게 되기를 빌겠어요.》

여전히 굳어진듯 서있는 명훈을 느끼며 처녀는 어두운 고굴속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었다. 그 순간 처녀는 자기가 소리내어 울어버릴가봐 겁이 났다.

또다시 가슴속을 울리는 숲의 웅근 속삭임과 돌을 굴리는듯 한 강물의 세찬 흐름소리...

처녀는 자기가 다시금 백석천에 맨발로 들어서는데 한 느낌이였다.

처녀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곧추 쳐든채 어두운 고굴속을 향하여 걸어갔다.

...

두사람은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고굴속에서 끝내 명천지구의 새 증광체의 존재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들을 찾아내었다. 서로를 자제하는 모지름속에서 느끼는 기쁨과 환희는 어딘가 모르게 고통과 류사했다. 그들은 한없는 기쁨과 안도감, 서로에 대한 고마움을 안고 어둠속에서 말없이 시료들을 떼고 말없이 탐사일지를 정리했다. 리명훈도 고굴속에서 우리 나라 중부산간지대의 새로운 지질상태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하였다.

일을 끝마치고 밖으로 나섰을 때 해선은 눈부신 햇빛앞에 현기증을 일으키며 쓰러질듯 비칠거렸다. 뒤따라오던 명훈이 한팔로 그의 어깨를 꼭 잡아주었다. 뜻밖에도 그들은 그렇게 서로를 의지한채 한참을 서있었다. 그들은 다같이 너무도 지쳤던것이였다. 그들은 반쯤 잠에 취한듯 한 느낌으로 까딱 않고 서있었다.

아, 내가 이래도 될가?

해선은 겁이 났지만 움직일수가 없었다. 온몸이 한없이 따스하고 아늑하며 편안한 곳으로 등 떠가는듯 했다. 그 느낌이 기대인 어깨를 떠편 순식간에 사라질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다음순간 팽성한 리성의 도움으로 자기를 다잡았다. 먼저 밖으로 나온 이곳 탐사대의 사람들이 자기들을 지켜보고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소

스라치며 눈을 떴다.

문득 멀리서 자기들을 향해 웃고있는 그들의 얼굴이 햇빛을 받아 환하게 빛나는것을 똑똑히 보았다. 부르르 몸을 떨며 성을 내듯 온몸을 흔들며 명훈의 어깨를 뿌리쳤다. 온몸을 확 달구는 부끄러움을 느끼며 고굴앞 오솔길에 내려서서 도망치듯 달려가고말았다. 행복감인지 부끄러움인지 모를것이 온몸을 활활 태우는듯 했다. 하지만 정신없이 달리다 끝내는 멎어섰다. 저도 모르게 리명훈과 사람들이 서있을 고굴쪽에 눈을 돌렸다.

소나무와 참나무가 드문드문 서있는 오솔길우에 그들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얀 노끈오리처럼 뻗어간 그 길우에 한겨울치고는 드문 아지랑이가 곱게 피어오르고있었다. 태양과 대지사이에 오고가는 따스하고도 은밀한 말처럼 그냥 솟아오른다. 그 아지랑이에 싸인 주변은 소리없이 웃는 어린 소녀의 체취인양 정결하고 따스하며 고요하게만 느껴진다.

힘겹고도 처절하기까지 했던 방금전의 고굴탐사가 있은듯 없은듯 자연은 예대로 고요하며 아름답기까지 한것이다.

자연에는 언제나 이렇듯 아름다움과 엄혹함이 함께 존재하는것일가?

그런들 어떠랴? 자연의 비밀을 밝혀내며 인간에게 복종시키려는 오늘의 모지름으로 하여 이 순간부터 자연은 그 엄혹함쪽에서 아름다움쪽으로 한걸음 더 전진하였을것이다. 것처럼 우리의 조국도 부강과 번영을 향해 한걸음 더 전진하였을것이다.

저도 모르게 따스한 햇빛이 줄줄이 쏟아져내리는 하늘을 향해 고개를 쳐들며 살며시 눈을 감았다. 저 햇빛 내리는 하늘가에 우리의 위성이 날고있다는 생각이 가슴을 뿌듯하게 한다. 그 위성이 이 순간의 모든것을 다 보고있으며 전하고있는듯 한 기꺼운 느낌이 들었다.

이제 우리가 이곳에서 무진장하게 캐내는 증광석은 그 고맙고도 궁지로운 우리의 위성들을 계속 쏘아올리게 할것이다.

처녀는 햇빛속에 고개를 쳐들고 모든것을 시인하듯 소리없이 웃었다.

따스한 햇빛속에서 오늘의 힘겨움도, 눈물도, 가슴다는 고백도 패일을 위한 우리의 생활이고 투쟁이며 사랑이라는 따스한 목소리가 그냥 들려오는듯싶어졌다.

그것은 우주에서 내리는 햇빛속에 숨배인 우리의 희망과 사랑의 별, 위성의 말이였다.

처녀는 그렇게 위성앞에 온몸을 맡긴 심정으로 오래도록 서있었다.

행복과 사랑의 가쁜 숨소리마저도 고스란히 싣고 보습산은 설레이고있었다.

원수님과 미래

홍 민 식

날마다 텔레비존화면에서
우리 원수님 뵈올 때면
희망에 싸여 미래에 싸여 벅차지는 이 가슴
마음도 젊어지고
강산도 젊어지고
흐르는 세월마저 젊어지는듯

펼쳐주시는 하나하나
안겨주시는 하나하나
너무도 희한하고
너무도 꿈만 같아 눈을 비비며
다시다시 바라보는 내 조국의 황홀경

어른들도 아이들의 마음이 되어
웃고떠드는 물놀이장 유희장의 웃음바다
아아한 은빛스키주로우에
휘넓은 승마주로에 차넘치는 희열과 랑만
우리 나라 식료공장의 본보기 표준으로 전변된
조선인민군 2월20일공장

무엇이나 넉넉하고
평범한 날에 이루어진것이라면
이리도 뜨거움에 눈곱젖으랴
총대가 맞선 전선길에서 구상하시여
천만금을 들여 안겨주시는
하늘같은 그 사랑

하나를 안겨주시여도
하나를 건설하시여도
세상에 아직 없는
먼 앞날에나 상상해볼 꿈을
오늘에 펼쳐주시는 이 현실을
미래달고 그 무엇이라 부른단 말이나

오늘에 계시여도
미래를 호홉하시며 미래에 사시는분
누구보다 미래를 제일로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미래를 제일로 잘 아시는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

과학이 없이는 미래도 없다시며
이 행성이 아직 모르는 별세상을
이 땅에 펼쳐주시는 조선의 새 모습
은하과학자거리
위성과학자주택지구
과학자휴양소...

그것은 세멘트와 강재로 세워진
거리가 아니다 살림집이 아니다
우리 과학자 교육자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모두다 안겨주시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으로 울리는
열정 넘치시는 그이의 말씀
쿵쿵 가슴 울리는 그이 발걸음에
뛰어넘치는 신심이며
온몸에 용솟는 새힘이며

그 사랑의 싱싱한 숨결에
마음도 젊어지고 강산도 젊어지고
세월마저 젊어지는
웃음 넘치고 노래 넘치는 우리의 밝은 세상

그 사랑의 불같은 뜨거움에
나날이 앞당겨오는 눈부신 미래가
전설처럼 펼쳐지는 내 조국
인류리상의 절정우에
천하제일 문명강국으로 솟아 빛나리라

아, 원수님 펼쳐주시는
미래에 싸여 환희에 싸여
내 반백의 머리로 감어지는가
온몸에 넘치는 열정으로
조국의 황홀한 대지를 확보하노라
끝없는 미래를 확보하노라!

조선의 꿈

최 련

1

우리 마음속에 안고산
아름답고 소중한 꿈이
날마다 현실로 꽃피고
그 현실우에 다시 새 꿈이 움트는
은혜로운 이 땅에 흐르는 하나의 생각
꿈이여! 너는 진정 무엇이더냐
너 무엇이기에
이 나라 인민의 마음 이리도 설레이게 하느냐

그 설레임에 실려
날아가다오 꿈이여 다시한번 그날어로
김일성민족의 100년사를 총화하는 력사의 순간
흘러간 세월과 흘러올 미래가 서로 손을 맞잡던
환희와 격정의 그 순간에로!

만세의 환호성도 어느덧 잦고
엄숙한 고요가 깃든 드넓은 광장
온 세상이 숨죽이고 귀기울여 듣는다
조선의 위대한신 아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그 확신에 찬 음성!
만만시련속에서 당을 받든 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사회주의만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시겠다는
아, 그 뜨거운 사랑의 말씀!

그 말씀
천만의 심장마다에 흘러들 때
우리는 래일의 행복을 오늘에 그려보았다
시련의 나날속에 소중히 간직해온 꿈이
밤하늘의 별처럼 아득한 미래가 아님을
우리 원수님 마음속에 약동하고있음을
사무치도록 가슴에 새겨준
꿈이여 너는 눈물의 환희였다!

꿈이여! 그 환희속에서 다시 나래를 펴다오
그리고 날아가다오
조선의 고운 꿈이 뿌리내린 곳으로
우리의 꿈이 움트고 자라고 꽃피난 곳으로
거기서 울리는 위대한 리상과 념원의 노래를
억센 너의 날개우에 그대로 띄우고
내게로 날아와다오!
곧바로 날아와다오!

하늘은 있어도
해도
달도
별도 뜨지 않던
암흑의 세월이었다

침략의 검은구름이 몰려와
마귀의 손가락마냥
오천년 유구한 민족의 목줄을 조일 때
숨져가던 조선이 애타게 바란 소원은
망국노의 운명을 구원해줄
태양이 빛나는 하늘이었다

그 하늘이 있었다 저기
이 나라 조종의 산 백두산마루우에
청청히 들리운 그 하늘가엔
유난히 반짝이는 별 하나—

삼천리강산 어디서나 그 별을 바라보면
이상하게도 가슴이 설레이고
희망과 새 용기가 가슴에 차올라
사람들은 그 별을 가리켜
조선의 새별 장군별이라 불렀다!
그리곤 다가오는 밤을 반가이 마중해
동네방네 여기저기
초가에서 오두막에서 논밭에서
백두산전설 들으며 들메나무아래로 모여들었다

지금
그 장군별아래 깊은 원시림속에선
모닥불이 활활 밤을 태우고있었다
바람은 차고
간간이 울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
대낮에 들어도 그 소리엔
쭈뼛 머리칼 곤두서고 등골 서늘하리
하나 모닥불가는 지금 화창한 봄날인듯!

불길에 비쳐진 얼굴들엔
피로의 흔적 력력하건만
찢어진 군복자락엔

싸움의 자취 뚜렷하건만
그윽한 《사향가》의 노래소리에
온갖 꽃이 피어나고 봄이 무르녹는
모닥불가는 지금 따스한 꿈의 세상!

고향내가는 아름답게 반짝이고
종아리 걸어올린 어린 동생들
법석이며 새하얀 종이배를 띄운다
주름살 걸린 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시고
옥토벌의 낱알향기 간장을 녹여내는
아, 해방된 조선이 예서 자라나는가
모닥불가는 조선의 꿈이 펼쳐진 별세상!

꿈이란 얼마나 따스하고
또 얼마나 강한것인가
그 꿈이 추위와 주림도 이겨내고
공포와 동요를 물리쳤거니
압록강을 지척인듯 넘나들며
수령님 모시고 혈전의 길 헤쳐온
민족의 장한 아들딸들
백설속에서 밀림속에서 혈전속에서
알았다
꿈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를!
아름다운 꿈을 지닌 인간은
그 얼마나 강해지는가를!

그 꿈속에 잠겨
서로 어깨에 기대어 군집에 든 얼굴들
그중에서도 함경도내기 막내이의 얼굴에는
취한듯 미소가 사라질줄 모른다
아마도 꿈을 꾸리라 깨고싶지 않은 그 꿈을—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의 어깨에 덮어주신 수령님
사그라드는 모닥불에 나무가지를 덧놓으신다
하자 불길은 다시 기세를 올린다

그 불길우로 그윽히 눈길 드시고
어둠에 잠긴 삼천리조국강산을 바라보신다
험난한 길 그러나 기어코 가야만 할 길
이제 그 길우에
전민항쟁의 만세소리 높이 울리고
그 함성소리 불길마냥
수난의 어둠을 태워버리리라!
그리하여 맑고 푸른 조선의 하늘은
인민의 꿈을 안고 창창히도 열리리라!

그 하늘에서
태양은 눈부신 빛을 쏟아내고
그 빛발아래서
건장한 백발의 로인들

름름한 덧쟁이 젊은이들
꽃처럼 아름답고 향기로운 처녀들
두볼이 능금알처럼 빠알간 아이들이
서로 마음 다정히 행복하게 살리라

하늘도 땅도 온통 인민의것
인민이 하늘처럼 떠받들리고
인민이 대지처럼 삶의 터전을 굳힌
오, 인민이 주인된 인민의 세상!
그 천지간에
빛나는것은 정의! 높이 선것은 존엄!
홀려흐르는것은 참다운 사랑이리라—

수령님은
다정히 미소를 그리신다
인민, 그 이상의 가치가 없고
인민, 그 이상의 목적이 없었다
이민위천은 그이의 좌우명
인민이 그이의 하늘이며
인민이 그이의 별들이었다!

모닥불은 점차 사위여가는데
수령님의 가슴속엔 불길이 활활
그 불길을 타고
훨훨 날아올랐다
세기를 두고 바라고바라던 인류의 리상이
저 하늘 높이높이 날아올랐다!

온 민족이 가슴펴고 바라보리라!
온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쳐다보리라!
이 지구상에 거연히 솟아오를
기적의 나라 인민의 나라를!
인민의 지상락원 무릉도원을!

2

—인민이 하늘이다!
그것은
인간에게 불을 가져다주었다는
거인의 《신》이 창조한
그 기적우의 기적!
그 신화우의 신화!

—인민이 하늘이다!
그것은
층층 서렸던 세기적암혹을 불사르는
불멸의 화불!
가난이 뱀마냥 또아리를 틈
먼지낀 농가의 서까래지붕우에서
무거운 한숨이 꿈틀거리며 흘러나오는

음침한 공장굴뚝우에서
억눌리울대로 억눌린 인민의 어깨우에서
짓밟힐대로 짓밟힌 그 마음우에서
새로운 희망 새로운 삶이
솟음치며 융솟음치며
억압의 장막을 몰아내는 불길!

—인민이 하늘이다
그것은 세상이 처음 들어보는 소리!
새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제끼는 소리!
이 지구상에
푸르른 하늘을 번쩍 치켜올리는 소리!

얼마나 애타게 찾았더냐 인류는
모든것이 밝고 따뜻한 나라
사람마다 화목하고 풍요가 차넘치는
꿈같은 이상향을
그래서 공장속에서나마 세워보았더라
《유토피아》를 《태양의 도시》를
수난많은 세월의 풍파속에서도
잊지 않고 가슴깊이 간직해왔더라
그 아름다운 꿈만은!
꿈이 없다면
오늘도 없고 래일은 더욱 없기에!

그 꿈이 이제
세상제일의 위인을 만났으니
인민을 하늘로 떠받드시고
수령님은 억척같이 헤쳐오시였다
시련많은 영광도 많았던 혁명의 길을!
조선의 꿈 인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한
위대한 투쟁의 길을!

새 조국건설의 초행길에서
전화의 불길속에서 전후의 폐허속에서
쇠물흐르는 공장구내길에서 논두렁길에서
바다가 도래굽이에서 거리에서 마을에서
언제나 인민들과 함께 계신 수령님
인민의 힘을 믿으시고 그 힘을 일으키시여
이 땅우에 일떠세우시였나니
인류의 이상향—인민대중중심의 지상락원을!
주체의 사회주의강국을!

3

웁—웁—
휘웅—하양—
산이라도 뿌리채 뽑아버릴듯
눈바람소리 사납다
철령의 높고낮은 고개고개도

큰 들숨 한입에 삼켜버릴듯
깎아지른 절벽들에 들이닥치고
얼음덮인 눈길우를 회오리쳐굴며
휘우웅—하이양—
이밤은 자연의 제왕이 펼치는
횡포하고도 화려한 무도의 밤!

허나 그 모든 소란은 다 잊은듯
그 어느 굽이에선가
조용히 타고르고있었다
모닥불 모닥불이...
그 작은 공간에 서린
무겁고도 엄숙한 침묵

모닥불은 조용히 타고있었다
함뼉 눈을 뒤집어쓴 야전차는
금시 굴러내릴듯
령길우에 위태로이 섰는데
이미 다 구워진 감자 몇알은
소리도 없이 그냥 타들어가는데
그도 미처 못 느끼신듯
장군님은 지금
깊은 생각에 잠기시였다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세월을 거슬러
백두산밀림속에 피어오르던
그 모닥불을 그려보시는가

무엇을 생각하시는가 장군님은
수령님을 잃고 천지가 비여버렸던
7월의 그 언덕에서 시작하여
운명의 피줄을 잇고 함께 걸어온
그 고마운 인민을 생각하시는가
력사의 준엄한 언덕을 넘는
그 인민의 아픔과 힘겨움을 느끼시는가

이제 얼마나 멀리
얼마나 더 멀리 가야만 하는가
백두산에서 시작된 조선의 꿈은
인류가 기다리는 진정한 꿈은
이제 얼마나 더 험난한
시련의 고비들을 넘어야 하는가

피에 주린 《꿈》이 피를 물고 달려든다
아름답고 참된 꿈을 물리치려고—
그렇게도 악착스럽고
그렇게도 치졸하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든다
원썩들은 서로 어깨까지 겹고

참된 꿈을 아름다운 꿈을 향해 달려든다

자주가 아닌 삶은 삶이 아니고
굴욕속의 재부는 부가 아니기에
참된 꿈은 또한 자주!
힘이 없는 자주는 자주가 아니고
총대가 약한 힘은 힘이 아니기에
자주는 곧 선군!

시대앞에 력사앞에
조선은 증명해야만 했다
이 세계를 지켜줄 정의와 힘과 량심이
파연 어떤것인가를!

장군님은 불끈
주먹을 틀어쥐신다
그리고 멀리 어둠짓는 하늘가를 바라보신다
가증스런 눈바람소리를 넘어
힘한 철령의 고개고개를 넘어
멀리 저 멀리
미래의 조선을 그려보신다
제국주의를 전률케 할
세상에서 제일 존엄높고 강위력한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바라보신다!

그 시선을 따라
룡남산마루에 불타던 그날의 해돋이
철령의 하늘가에 다시 불타올랐다
주체의 붉은 노을 지구를 덮을
휘황한 그날이 나래쳐올랐다
절세위인의 뜨거운 심장속에
맹세의 불길은 활활 타오른다!

—꽃피우리라 이 땅우에 기어이
수령님의 리상 인민의 리상을
—세우리라 이 땅우에 기어이
붉은기 더 높이 날리는 사회주의제일강국을!

오, 기상찬 바람아 불테면 불라!
허나 조선의 이 의지는 꺾지 못하리라!
눈보라야, 더 세차게 불어치라
굳센 신념에 넘치시여
장군님 모닥불앞에서 거연히 일어서시는데
순간!

장군님을 따라 함께 일어선다
조선의 래일이 억세게 일어선다!

기승을 부리던 자연의 제왕도
그 기상앞에 머리숙였는가
사위는 엄숙한 침묵에 휘감기고
멀리 산너머의 하늘가는

새날의 빛을 안고 푸름푸름 밝아오는데
부르릉—

야전차는 다시 발동을 건다
세상의 광풍을 휘여잡고
력사의 방향을 그으며
야전차는 달린다 전선을 향해!
야전차는 달린다 사회주의강국을 향해!

이제 이 모닥불을 불씨로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타오르리라
강계에서 성강에서
함남에서 라남에서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람들의 가슴마다에서
꿈이 약동하는 봄동산의 려명을 불려오며
강성국가건설의 거세찬 불길이
활활 타오르리라!

4

세상은 숨을 죽였고
마침내는 났을 잃었다
불사신의 인민
불사신의 나라를 보았다
사랑으로 푸른 하늘을 여는 나라
정신으로 기적을 부르는 나라를 보았다!

오, 꿈이여 정녕 너는 무엇이던가!
꿈이여 참된 꿈이여
너는 세상에 류례없는 엄혹한 시련속에서
불굴의 정신으로 일어선 사람들
그 아름다운 모습에만 비끼는 웃음이기예!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
초인간이 되어 헤쳐야만 했던
오,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이어
너 얼마나 많은 추억을 안고있느냐
열어보자 이 나라 매 가정의 문을
이 나라 매 한사람 한사람 그 마음의 문을
그러면 거기에 새겨져있으리라
아직 아물지 않은 지난날의 상처자국들이
아직 지워지지 않은 그날의 눈물자국들이

그러나 우리는
결코 넘어지지도 쓰러지지도 않았다
장군님을 믿듯이 우리는 꿈을 믿었다!
장군님의 리상은 곧 우리의 꿈이기예!
허리띠를 졸라매면서도
기대앞에서 쓰러지면서도
우리는 누리에 빛날 강국을 그려보았다
때로 가슴아픈 곡절과 좌절속에서

눈가에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려도
입에선 혁명의 노래가 흘러나왔다

그 노래 대를 이어 계속되거니
귀기울여 들어보자 저 소박한 처녀의 속삭임
—새싹이 돋았어요! 풀빛이에요!
그 눈물어린 속삭임에
사람들 천막에서 달려나온다
오, 오늘은 이 세포등판에 새로운 세상이 열린 날
누가 상상했던가
사람의 키를 넘는 억새풀 새초밭
인간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이 황막한 미개척지에
비포 바람포 눈포산이 광란하는 이 사람 못살 곳
락원의 푸른 들판이 펼쳐질줄을
따사로운 태양아래 양떼 염소떼 구름같이 흐르는
꿈같은 무릉도원이 펼쳐질줄을

울며 웃으며
거친 등판에 불을 비비는
저 개척자들의 얼굴에 무엇이 비졌는가
땀땀 얼어붙은 돌같은 땅을 뒤집고
악착스레도 뿌리내린 잡풀들을 들어내다가
너무도 힘겨워 너무도 안타까워
감추지 못하던 그 눈물인가
집살림은 남편에게 떠맡기고 나와
돌격대원들의 그릇마다 가득 채워주던
녀인들의 그 웃음 그 사랑인가
아니여라 아니여라 그 얼굴들에 비낀 것
그것은 심장으로 느끼며 현실로 안아보는
환희로 빛나는 조선의 꿈이었다!

청천강계단식발전소에서도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에서도
과학의 최첨단으로 가는 험난한 가시밭길에서도
이 땅 그 어디에서나
세상은 보게 되리라
인생의 참된 행복을 느끼는 조선사람들을!

그것을 어찌 향연의 식탁에 비기랴
그것을 어찌 산갈은 재부에 비기랴
오, 꿈이여!
너와 함께 우리는
인간의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지 알았고
삶의 참된 보람과 희열이 무엇인지 알았다
불길속에서도 타지 않고 폭풍에도 꺾이지 않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정신을 지녔다

보라! 그 꿈이
얼마나 많은것을
얼마나 높고 위대한것을 안아왔는가

세상을 놀래우는 사상강국의 존엄
민족의 기개로 솟구치는 인공지구위성
미래를 향해 더 활짝 열리는 마음들에
나날이 더 크게 자라는 힘과 힘...

꿈이여 너는 진정 무엇이던가!
조선은 소리높이 웨친다!
꿈이란 현신이고 창조임을
꿈이란 의지이며 신념임을
오, 꿈이란 참된 꿈이란
약동하는 현실 비약하는 그 모습!
래일속에 사는 바로 오늘임을!

5

나는 지금
꿈의 상상봉—대화봉마루에 서있다
웅장하고 통쾌하게 뻗어내린
줄기줄기 마식령스키장이여!
축포처럼 터져오르는 웃음소리여!
여기는 꿈의 천지 별의 천지
예로구나 수수천년 바라고바라던
인민의 세상 사회주의 무릉도원이!

—그림같이 황홀하여 눈이 부신 땅과 바다
금은보화 가득한 전설의 나라
노래를 부른다
인민의 꿈이 금은보화로 번쩍이는 전설의 별세상을
누가 별은 멀리에 있다고 했더냐
하늘에는 우리의 위성들이 돌고
땅우에는 별바다처럼 펼쳐지는 위성과학자주택
지구 은하과학자거리
집집의 창가마다 행복의 별을 불러들여
그 별과 속삭이며 우리는 단꿈을 꾸다

보아라
문수물놀이장의 회한한 광경속에
천만구슬로 빛뿌리는 인민의 행복을
미림벌을 울리는 행복의 말발굽소리
대동강물결에 어린 새 거리의 황홀경
송도원국제소년단야영소에 울리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그 모양
억센 기상 하늘에 닿은 이 조선
노래를 부른다
가슴이 부풀도록 이 노래 부른다
머리를 한껏 젖혀 바라본다
우리의 꿈이 창창히도 펼쳐진
맑고 푸른 조선의 하늘을!

그 하늘에 짝 차넘치는것
아, 우리의 원수님 모습이어!
저 하늘의 밝은 빛은
원수님의 환하신 미소!
저 해빛의 따스함은
원수님의 친근한 손길!

오, 꿈이어 조선의 푸른 하늘이어!
원수님처럼 세상에서 제일 뜨겁고
원수님처럼 세상에서 제일 강하고
원수님처럼 세상에서 제일 밝은
아름다운 조선의 꿈이어!
부흥하는 백두산대국이 비껴있고
강성하는 사회주의문명국이 어려있는
우리의 넓고 푸른 꿈이어!

사람마다 꿈이 있다 하라
나라마다 리상이 있다 하라
허나 조선의 꿈이어! 너는
인민사랑의 아득한 절정에서 빛나는
이 세상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꿈!

그 꿈을 안은 심장은 그대로 불덩이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세계가 우리러보게 하리라!
천만의 심장에 애국의 불길은
무한대의 열정으로 타오른다 타오른다

사랑없이는 안을수 없고
헌신없이는 가꿀수 없는
내 조국의 아름다운 꿈이어 너는
원수님의 씩씩한 보무를 따라 나아가는
우리 전진의 대오앞에
펼 펼쳐 휘날리는 승리의 기발!

—창공에는 우리 국기 무궁토록 나뭇기고
이 땅에선 모든 꿈 이루어지리
노래를 부른다
목청이 다하도록 이 노래 부른다
우리의 사상 우리의 사랑인 이 땅!
우리의 헌신 우리의 창조가 깃든 이 땅!
우리의 눈물 우리의 아픔으로 절구어진 이 땅!
우리의 기쁨 우리의 환희로 아지랑이 피는 이 땅!
오, 우리의 삶의 전부인 나의 조국이어
이 땅에서 기어이 백두산대국의 꿈을 이루리라
인민의 꿈 인류의 꿈
위대한 조선의 꿈을 이루리라!
조선의 꿈은 세계의 아름다운 꿈이 되리라!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

오 정 로

희한하다
우리의 경애하는 원수님
찾아주시고 또 찾아주시
조선인민군 2월20일 공장

한쪽의 그림처럼
황홀한 공장의 모습
수령님과 장군님의 마음속에 있는 공장
세월이 흘러도
더더욱 눈부실 공장

로동자가 없건만
자동흐름선에서 쏟아져나오는
통줄임과 갖가지 식료품들은
매일의 그날에 그려보던 그 꿈이 아닌가

내 지금 어디에 서있는것인가
자동화 무인화된 최첨단의 신비로운 음향이
노래마냥 울려오는 공장정문으로
초소로 고지로 흐름선처럼
자동차들의 행렬이 이어지고

식료품을 받아안은

병사들의 웃음소리
초소에 자식들을 보낸
부모들의 기쁨이 파도쳐와
이 가슴 뭉클해진다

우리가 그려보던 그 미래를
한가슴에 안으시고
백화만발한 행복의 화원에
우리를 세우시려던 장군님의 리상을
우리 눈앞에 현실로 펼쳐주신 원수님

기쁘시여 만족하시여
식료품의 맛도 개선되었다고 하시며
우리의 기술로 과일향기 바다향기
사회주의 대가정에 안겨주시려
식료품공장의 본보기 표준공장으로
로동당시대의 본보기공장으로 꾸려주셨거니

미래는 멀리 있지 않다
우리가 그려보던 미래를
우리는 오늘 현실로 보고있다
우리는 그 미래속에 살고있다

고향에서 부르는 노래

장 선 국

나에겐 소중하여라
산높고 골깊어
해님도 잠간사이
저 산너머 사라지는
머리를 잊혀야
하늘을 볼수 있는
계곡많은 나의 고향

내 어린시절 풀메뚜기 잡던
그 산기슭 그 밭머리
거기서 보여주었더라
당이어 그대는
그 현명한 손길로
우리의 인공지구위성이 아득한 우주로 향해
장엄히 날아오르는 그 모습

우리가 머리를 수그리고 사는
그런 나라 아님을
뒤떨어져 사는
그런 인민
더욱 아님을
세계에 보여준 그대

그날 그때
나는 보았더라
그대의 손길아래 울린 그 한번의 폭우에
번쩍이는 섬광에
지구가 흔들리는것을
원썬들의 아비규환을
하늘에서 세계를 내려다보는
내 조국의 위대한 모습을

하기에 당이어
내 고향의 깊은 골짜기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
나는 더욱 사랑하노라
위대한 우리 땅
그대의 전사된
크나큰 긍지로
언제나 가슴 불타노라

불타노라
그대 품에 자라난
나의 피더운 심장
그대의 뉘러는 숨결에
박동을 맞추려

그대의 밝은 빛 더하려

불타노라
그대의 뜻
더운 땀으로 받들리라
황금과 돈에 량심을 파는
시정배되지 않으리라
그대의 밝은 빛
그늘지우는 일 없으리라

불타노라 내 심장
이 시각 원썬들
그대의 빛을 가리우려
핵폭동기와 돈주머니를 흔들어도
나는 두렵지 않노라

언제나 와-와-
백두의 열기로 끓는 이 땅
꺾을수 없고 태울수 없는 그 기상
분분초초 나라의 키와 힘을
우줄우줄 솟구는 그 진군의 노도
원썬들 우리 혁명의 횡방군들
제아무리 총검의 울바자를 둘러도
그대의 그 노도앞에선 물거품

그리하여 당이어
이 땅 이 하늘아래선
세세년년
우리의 많은 위성들이
하늘로 오르고 또 오르리라

별나라 달나라에
우주탐험집을 지어놓고
내 고향 사람들
온 나라 인민들
손자손녀 다같이
세계를 손금같이
굽어보며 살리라

오, 길이길이
영광스러우라
날마다 내 나라 내 민족을
세기의 하늘가에
우뚝우뚝 세우는
우리의 오늘이고 앞날인
아아, 조선로동당이어!

딸에게 주는 시

박 영

운다
저렇듯
세상이 다 보는 단상에서
내 딸이 운다

언제였더냐
혼련이 너무 힘들어
눈물 떨구는 딸에게
울보는 체육선수 못된다며
혼련장으로 떠밀던 어릴적 그날은

세계패권을 거머쥔 그 손으로
삼가 거수경례를 올리며
타국의 국기들을 누르고 솟구쳐오르는
내 나라의 국기를 우러러 울고

울면서 국기를 우러르고...

오늘은 저렇듯
온 세상 사람들 다 우러르게
조국의 국기를 높이 띄우고
온 세상 사람들 다 듣게
애국가를 장중히도 울린 내 딸

이 땅에 태를 묻은이
흘리는 눈물의 진가는 무엇이더냐
세계패권자로 내 조국의 국기 높이 띄운
그 딸을 낳은 이 어머니도
그만해야 못사람들 부러워하는
울보가 되었구나!

강철전선은 새 주로를 차지하였다

위 명 철

새해의 첫 쇠물 후련토록 부으며
불기둥 더욱 치솟구어가는 이 시각
전기로앞에 선 우리 가슴
이름 못할 희열로 들뛰여라

얼마나 창창한 앞날앞에 우리 섰는가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차다
지동치는 전기로와 함께
경사많은 조국을 위한 길
당창진 70궤명절로 마중가는 길

강철은 혈액마냥 멈춤이 없으리니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믿고계신 강철은
온 나라 전선들 떠밀며
이해에도 눈부신 비약의 나래로
세월을 주름잡아 번쩍이리

부흥강국을 위한 새 주로에 올라
증산의 열풍 휘몰아가는 금속전선은
올해에도 자력갱생으로
결사관철의 정신으로
끝없이 달아 뜨거우리니

누구도 의심치 못하리라

결심하면 무조건 하는 강철전선의 배짱
강철로동계급의 투철한 정신력은
세인을 놀래울 기적으로 치솟으리니

안아볼수록 숨막차라
층층으로 일떠서는 계단식발전소건설장
청춘들의 더운 숨결로 펼쳐지는
새포지구 축산기지건설장
우리 차지한 주로와 련결된 창조물들

우리 떠민 강철을 품안고
더 튼튼하게
더 웅장하게
무릉도원의 세계로 변모되리라
원수님 세워주신 이 주로에서
그날을 눈앞인듯 환히 보는 우리들이거니

오, 쇠물을 마중가는 이 주로에서
신심 백배해 자부하노라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철로동계급의 참모습
새해여 너는 보게 되려니
기억하라
강철전선은 새 주로를 차지하였다

민아카시아



주 설 응

1

도무지 기울것 같지 않던 여름날의 지나긴 해가 드디어 서산마루로 떨어졌다. 낮동안 따가운 피약 별에 달아올랐던 포장도로에서 뿜어져나오는 열기로 후끈한 바람이 슬슬 기여다니고있었다.

나는 보초병마냥 공장울타리결에 꼳꼳이 서있는 아카시아나무들앞에서 할일없는 사람처럼 오락가락하고있다.

늘 바쁜 속에 뛰어다니는 내가 이렇게 한가하게 서있는것을 본다면 아마 공장사람들의 눈이 커질 것이다.

별로 크지 않은 기업소이다보니 회계부원이 경리 사업까지 겸하여 정말이지 장마 앞둔 개미보다 더 분주한 나였다. 월말이나 명절을 앞둔 때면 숨돌릴 새 없이 뛰어다니다가 집에 들어와서는 그만에야 장난에 지친 소녀마냥 어머니에게 매달려 축 늘어 지곤 한적은 그 얼마였던가?

그러면 어머니는 아버지를 향해 레의 잔소리를 해댔다.

《에그, 외동딸을 보낼데가 없어 하필이면 발췌 텐 망아지처럼 쿵당쿵당 뛰어다녀야 하는 세멘트공장 경리루 보낸단 말이요?》

군인민위원회 사무장을 하시는 아버지는 도리어 어머니를 나무랐다.

《거기가 어드래서 그래? 젊어 한철 뛰어다니지도 않으면 늙어서 영치가 쳐져요, 로친네처럼.》

《그래두...》하고 어머니가 대꾸할라치면 아버지는 텔레비죤음향을 잔뜩 높인다. 그것은 어머니의 지청구에 대한 아버지의 예방책이었다.

《어머니두 참... 내가 하고파 하는 일인데 괜히 아버지 성나시게 구네.》

어머니는 종알거리는 나의 불을 찰싹 때리며 짐짓 화나신체 한다.

《이 애 봐라. 엄마 무르팍에 누워서두 제 아버지 역성만 드네.》

그 다음말을 외우다싶이 한 나는 어머니와 거의 동시에 고아댄다.

《에이— 시집이나 보내야겠다.》

그리고는 어머니와 함께 큰소리로 웃어댄다. 그럴 때면 아버지는 언제나와 같이 혀를 차며 《어미딸이 잘은 놀구있다.》하시면서도 껄껄 웃으시곤 했다.

정말이지 나는 내가 하는 일이 힘들다고는 생각 했어도 싫증을 느낀적은 한번도 없었다. 그만큼 분주한 나의 사업에 대하여 자부심을 가지고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마치도 배부른 고니가 더위를 피해 슬슬 자맥질하듯 한가하게 울타리결에서 시계 추모양으로 왔다갔다하고있다. 그러다가도 사람들이 지나갈라치면 책을 펼쳐들고 애써 들여다보는 체 했다. 누구를 기다리는가고 물을가봐 겁이 더러 생겨났던것이다. 벌써 몇번이나 손전화기를 꺼내들었지만 시간을 보는것으로 그치고는 인츰 전원을 꺼버렸다.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올가봐 두려웠기때문이었다.

나는 다리도 쉴겸 걸음을 멈추고 빨리도 자란 민아카시아나무들을 이윽도록 쳐다보았다.

아카시아는 나무들중에서도 빨리 자라는 나무이고 거기서도 민아카시아는 으뜸이라더니 과연

올봄에 심을적엔 허리까지도 못미치던 애리에리한 나무들이 이제는 내 키를 훨씬 넘었고 제법 가지까지 펼쳐며 야들야들한 잎사귀들을 흐느적이고있었다.

《판리자 리수정, 강필남》이라는 글이 씌여진 자그마하고 하얀 패쪽을 보느라니 문득 올해 식수절에 이 나무들을 함께 심으면서 하던 그 동무의 말이 되새겨졌다.

《사실 아카시아나무엔 가시가 필요없지요.》

시간은 또다시 흘렀다.

불안스러운 가슴에서 새어나오는 긴숨을 애써 누르는 나의 눈앞에 지난 몇달동안의 일들이 환등막의 그림들처럼 언뜻언뜻 지나갔다.

2

맴똥 하늬바람이 지동치던 1월말 어느날이었다.

나는 공장지령실에 앉아 전자수산기를 부지런히 두드려대며 월생산액에서 지출액과 소득액을 계산하고있었다. 그때 지령실안에는 기사장을 비롯하여 공장관리성원들 여럿이 있었다. 때때로 바람같이 이를 하는지 난로의 아구리로 연기가 이따금 뿜어져나왔다.

지난해말까지만 하여도 관리성원들방에서는 탄나로들이 이글거렸었다. 그러던것이 올해 첫 전투날에 지배인동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신년사사상을 강조하고나서 절약투쟁의 첫 사업으로 자기 방의 석탄난로부터 실어내갔다.

당정책에 민감하고 과단성이 있으며 활동범위도 넓은 지배인동지를 남다르게 존경하고 따르던지라 나도 즉시 난로불을 죽였었다. 하나밖에 남지 않은 지령실의 난로도 나무난로로 개조하게 했다. 하여 벌써 십여년전부터 공장선배들이 석회석광산박토처리장에 착실히 조성하기 시작하여 이제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우거진 아카시아림에서 땀나무를 해다가 지령실의 열을 보장하고있었다.

그래서 나는 파란 내굴과 전화종소리, 사업토의로 인한 웅성거림이 짝 찬 이 지령실을 떠나지 못하고있는것이다.

갑자기 방안의 사람들이 흥성이는 바람에 나들문쪽을 흘깃 쳐다본 나는 얼른 얼굴을 돌리고말았다.

오늘 도착한다며 모두가 기다리던 도건재관리국에 있다는 지배인의 아들이 들어온것이였다.

자세히 보지는 않았어도 흰칠한 키에 얼굴이 환한 그 사람이 눈앞에서 얼른거렸다.

풍채좋은 대들인 아버지를 닮아서인지 체격이 큰데다 길쭉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그쏘하여 누가 말했듯이 아주머니들조차 다시한번 쳐다본다는 미남

아였다.

《안녕하십니까, 그간 수고가 많았겠습니다.》

결절한 목소리마저 아버지였다. 그러나 살결만은 어머니를 닮았는지 흰하고 멀쭉하여 아버지보다 더 멋있어보이는 청년이었다. 들어서자바람으로 담배를 한대씩 권하면서도 자기는 피우지 않는것을 보니 언젠가 은근히 아들자랑을 비치며 지배인이 하던 말이 되새겨졌다.

《도에서 몇해 지내는 동안 이젠 어른이 다 됐더군. 글썽 아래단위에 내려갈 땐 피우지는 않아도 담배를 꼭꼭 가지고 다닌다는거야. 뭐 일군은 그래야 한단나, 허허.》

멀지 않아 성으로 소환될것 같다는 말도 그날 들은 소리였다.

《아버지와도 대충 토의했는데 이번에는 석회석 반출기와 운광설비에 대한 컴퓨터조종화를 하는것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의 말에 기사장은 무릎까지 치면서 수긍했다. 그 말은 내 귀까지 솔깃하게 하였다. 이번 기회에 내가 지금껏 꿈꾸던 관리부서의 컴퓨터화에 대한 방조도 받을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가?

《그저 좋다고만 하지 말고 기사장동지의 의견을 이야기해주시시오. 물론 나도 주어진 심정에서 생각해보느라 했지만 진짜 주인들만이야 하겠습니까?》

《원, 그런 소리 말게. 자네가 어련할려구.》

모두가 하는 말에 그 사람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공장이 너무도 구태의연합니다. 10년전 내가 공장을 떠나 대학으로 갈 때와 달라진것이란 저기 버럭산에 키높이 자란 아카시아나무숲과 목청높은 경비원뿐이더군요.》

아마 지배인 아들인줄을 모르는 경비원아바이에게 걸려 시간을 빼앗긴 모양이었다.

그런데 그의 말은 어딘가 모르게 듣기에 기분이 좀 좋지 않았다. 여기엔 그래도 자기의 로동생활선배들이 앉아있지 않는가? 그래서인지 기사장이 모두가 듣기 좋은 말로 야릇한 분위기를 해소시키듯 변명조로 말했다.

《어찌겠나? 여기야 읍에서도 10리나 떨어진 산골인데.》

기사장의 말을 그는 밀막듯 대꾸했다.

《지금 다른 곳들에서는 생산현대화와 설비갱신의 된바람이 불고있습니다. CNC바람이 인지가 언제인데... 읍에서는 10리지만 시대와는 100리나 떨어진것 같습니다.》

어쩐지 방안의 공기가 영성해진것 같았다. 기사장을 비롯한 관리성원들은 그의 말을 공손히 듣고만 있었다. 마치도 방조나 지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검열이나 관정을 위하여 내려온듯 한 그의 태도를 마주하기 거북하였던것인지...

《국에서 이 공장 현대화에 기대가 큰데 일사분기전으로 와닥닥 끝냅시다.》

이렇게 말하고난 그 사람은 현장을 돌아보자마자 자리에서 일어섰다. 모두가 졸레졸레 그를 따라 방에서 나갔다.

오래간만에 정숙을 보장받았건만 고요는 오히려 사업을 방해하며 나의 정신을 왕창같은데로 몰아갔다.

지배인이 나에게 아들자랑을 한것은 썩 오래전부터였다. 처음엔 그저 아들 가진 아버지의 심심풀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지난해말부터는 그가 할 일없이 아들에 대한 말을 하는것이 아님을 육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나의 짐작이 반증된것은 새해 첫 전투날 아침이었다. 설을 쇠고 나온 나를 바라보는 지배인의 눈엔 탐독의 빛이 확연했다.

《아무래두 수정인 내 며느리감처럼 생겼거든.》

나는 부끄러운 속에서도 어이없어 웅알거렸다.

《지배인동지 며느리감은 뭐 정해진 형태가 있는가요?》

《물론이지. 로친네와 합의해놓은 형타가 있단니까. 그런데 수정이가 그 틀에 꼭 맞을것 같거든.》

《아이참...》

나는 활짝 붉어지는 얼굴을 책으로 가리웠다.

그러거나말거나 지배인동지는 걸걸한 목소리로 불판우에 고기를 굽듯 나를 계속 그슬려왔다.

《하긴 그 틀거리는 수정이를 보고 만든것이니 그럴수밖에 없지.》

지령실이 떠나갈듯 한 웃음소리에 더 앉아배길수 없어 나는 그만 나와버리고말았다. 그날 무안스런 속에서도 진담인지 룡담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지배인의 말이 싫지는 않은것이 이상스러웠었다. 아마 지배인동지에 대한 좋은 견해가 한번도 본적 없는 그 아들에게 그대로 옮겨진것이었던지...

《지배인동지가 어디 갔습니까?》

별안간 머리우에서 떨어지는 묵직한 말에 나는 화들짝 놀라 명상에서 깨어났다.

《에-에... 잘 모르겠는데-요.》

내앞에는 진곤색로동복차림의 젊은 노동자가 서 있었다.

《그럼 기사장동지는요?》

《글쎄요, 아마 현장에...》

얼빰한 나의 말에 그 청년은 미간을 찌프렸다. 길쭉하게 찌진 눈에서 불만의 빛이 가시마냥 날아와 나를 찔렀다. 그의 눈길에서 관리일군들의 행처

도 모르면서 사무실에 들어박혀 뭘 하느냐는 비난을 읽는 나는 당황한 속에서도 불쾌해졌다.

모자를 움켜쥔채 문쪽으로 걸어가던 그 청년은 문득 돌아서더니 나를 곧추 쳐다보며 그루박듯 말했다.

《지배인동지가 오시면 현대화는 운광계통이 아니라 조합계통에서부터 해야 한다고 말해주십시오. 그것이 노동자들의 의견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바람처럼 사라졌다.

나는 어안이 병병하여 한동안 멍청해 앉아있었다.

(운광계통이 아니라 조합계통?...)

그 말들은 귀에 설지 않았지만 방금 나타났단 사라진 그 청년은 펴 낫이 설었다.

아니, 어디선가 몇번 본듯도 한데 도무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지배인이 기사장을 달고 들어온것은 얼마후였다. 들어서자마자 어처구니없다는듯 기사장이 증얼거렸다.

《말하면 견마잡히고싶다더니 반출공정의 콤퓨터화만도 빠근한데 소성과 조합계통까지 해달라는군요.》

《그 동무들 말은 그게 아니라 반출계통보다 먼저 소성조합계통을 해야 한다는거요.》

《글쎄, 그게 어디 될말입니까?》

기사장이 책상우에 모자를 탁 놓으며 어성을 높였다.

《현대화가 무슨 조개껍질 가지고 노는 처녀애들의 소꿉놀이냐 하는 모양입니다. 하두 기성이가 아버지가 있는 공장이라고 발벗고나서서 도에서 설비들을 그만큼이라도 받아냈으니망정이지.》...

《됐소, 됐소.》

지배인이 손을 흔들며 기사장을 녹쫓히였다.

《사실 그 동무들의 말에도 일리가 있소.》

《물론 그렇겠지요. 하지만 간단하고 단순한 운광계통의 현대화만 해도 아름답게 조합계통이야 어렵두 없지요.》

그런데 지배인이 문득 다른것을 묻는것이였다.

《그 동무가 우리 공장에 언제 왔더라? 거 석회석직장의 반출기운전공 말이요.》

《강필남이 말입니까?》

어째서인지 기사장의 눈썹이 치켜올라갔다.

《지난해 가을이었지요. 군대땐 통신병이였고 지금은 공장대학도 다닌다기에 기둥은 못돼도 보짱감으로는 쓸만 한가 했더니...》

혀를 차는 기사장을 보며 지배인은 꺾꺾 웃었다.

《팬찮지 뭘 그러오. 의견도 창발성이 있어야 내놓는다고. 난 사람의 장점중에서 창발성을 무엇보다 우선시해.》

《그러나 이불짓은 보며 발을 펴지요.》

기사장은 여전히 뒤틀린 어조였다.

그러나 지배인은 깍지낀 두손으로 턱을 고이며 호감이 실린 목소리로 되뇌이였다.

《강필남이라. 그렇지, 무슨 전문학교인가 졸업하고 군대에 나갔었다는 제대군인이었어.》

(강필남?)

어쩐지 아까 들어왔던 다부지고 투박해보이는 그 청년이 눈앞에서 새물거렸다.

3

공장현대화를 위하여 내려온 지배인 아들은 나에게 막연하던 소망을 풀어줄수 있는 기대를 안겨 주었다.

언제부터 나는 공장관리부에서의 행정사업을 컴퓨터로 관리하자고 기사장에게 제기했었다. 한것은 관리일군들이 여러가지 원인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 (례하면 이동작업이라든가 혹은 입원으로) 그 사람의 사업을 대신하자면 여러가지 시끄러운 문제들이 제기되어 공장관리운영에 지장을 받곤 하였기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다른 누구도 아니고 내가 하게 된것은 관리일군들중에서는 누구보다도 컴퓨터에 숙달하고있는데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일 막내이로서 그런 일이 제기되면 의례히 내 몫으로 되었다는 사정과 근본적으로 관련이 있었던것이다. 언젠가도 나는 세동등판개간전투에 작업인원을 책임지고 나간 계획부원의 사업을 맡아하게 되었는데 계획사업에 대한 파악이 적고 경험이 부족한것으로 하여 여간만 애를 먹지 않았다. 그래서 제기는 했으나 기사장으로부터 더운 밥 먹고 식은 소리 들은 격이 되고말았다.

《해야지, 헌데 그것보다 생산계통이 급선무가 아니냐? 다 순서가 있는 법이니 차차 해보자꾸나. ...》

그 말에 속이 알끈하여 보란듯이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일을 쳐보자고 했으나 욕망뿐이지 회계학교에서 배운 발은 지식과 빈곤한 프로그램작성능력을 가지고서는 어렵도 없었다.

이러한 때 나타난 지배인의 아들은 나에게 있어서 가물의 단비나 마찬가지였다. 그래서 이튿날 그 사람이 기사장과 이야기를 나누다 끊어진 틈을 리용하여 슬쩍 그 말을 비쳤었다.

그러자 기사장은 너털웃음을 치는것이였다.

《승어가 뛰면 망둥어두 편다구 했던가? 여적 반출계통이나, 조합계통이나 갈피를 잡지 못하는 판에 이젠 너까지두? ... 넌 우리가 늙었다구 현장으로 하루빨리 쫓아내고싶어 안달이 난 모양이구나.》

기사장은 웃으며 한 말이였으나 거기엔 무난히 넘기지 못할 뼈같이 굳은 그 무엇이 있었다.

화끈 달아오른 나의 얼굴을 슬쩍 건늬여본 지배인 아들이 얼른 나를 두둔해주었다.

《하긴 현대화를 하려면 꼬리보다 머리부터 해야지요. 옳은 의견입니다.》

그리고는 나에게 신심에 넘친 말을 해주었다.

《중습니다. 그럼 이번 기회에 다 해제깍시다, 까짓거. 하긴 관리경영프로그램은 도에 의뢰하면 되는거구, 별로 품들일것두 없는거니까. 단번에 두 대상을 먹어치우면 그야말로 평먹구 알먹는셈이 아니겠습니까?》

《원, 저런 ... 수정인 참 좋겠다. 호박이 넝쿨채로 떨어지는 판이구나.》

선선한 그의 태도에 나는 선망의 눈빛을 담은채 호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하면서도 실없는 소리를 하며 웃는 기사장을 밋지 않게 흘려보았다.

그러나 여러날이 흘러도 행정사업에서 컴퓨터관리문제는 물망에 오르지도 않고있었다. 생산계통의 설비현대화때문에 바쁘겠거니 하고 리해도 했지만 조바심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럴수록 막상 그런 일에 부탁치면 주인으로서 궁색함을 보여주어선 안된다는 자격지심에 그 분야의 책들을 불들고 씨름질 하면서도 나는 초조히 그 사람을 다시 만나 진지하게 속을 터놓을 기회만을 기다렸다.

그무렵 나는 이따금 지배인의 심부름으로 현장에 나가곤 했다. 지배인은 전화로도 할수 있는 지시도 나에게 위임하곤 했는데 물론 나는 그의 속마음을 모르지 않았다. 알면서도 우둔한채 하자니 낮간지러운 생각도 없지 않았다. 허나 그때마다 나는 마음속으로 그저 컴퓨터문제로 그 사람을 만나볼 적당한 틈을 마련해보자는 의도에서였다고 위안하게 되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랐다.

현장에 나갈 때마다 지배인 아들은 첫눈에 띄우곤 했다.

밤색반외투차림새에 틀진 거동, 장대한 키와 자신만만하고 의젓한 모습에 이르기까지 로동자들과 표가 난데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이 손세를 써가며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금테안경을 번쩍거리며 기술도면을 짚어간다든지 여하튼 지도 일군으로서의 체취를 력연히 내뿜었기때문인지도 모른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로동자들과 점차 간격을 두게 하는것만 같았다. 처음엔 호의를 가지고 저마다 찾아와 기술적인 문제들을 물어보던 로동자들이였지만 점차 발길이 뜨음해지고있다는것을 느끼게 되었다.

좀더 소탈하고 허물이 없었으면 그들과 더 잘 융합되었을텐데 ...

무척 아쉽게 여겨질뿐이였다. 그러다간 아이참,

내가 무슨 상관이란? 하고 얼굴을 붉히기가 일쑤였다. 그러나 이것이 한편으로는 다행스럽기도 했다. 그와 조용히 단둘이서 만나 내가 의도하는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토론해볼수 있었으니 말이다. 그래서 어느날 나는 기사장에게 전달할 도면을 가지고 현장에 나갔던 길에 그에게 일전에 약속했던 문제를 조심히 비쳤다.

지배인 아들은 갑자기 번듯한 자기 이마를 소리 가 나게 쳤다.

《아참, 컴퓨터프로그램을 하나 부탁했었지요?》

까맣게 잊고있었던듯싶었다. 가슴속에 자르르 실망이 고여올랐다. 그러나 언제 섭섭한 생각에 사로잡힐새도 없었다. 그러거나말거나 그 사람은 연송머리를 끄덕이면서 대꾸했다.

《인차 합시다. 지금 시끄러운 문제들이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 말에 의문을 표시하자 그는 쓰거운듯 입을 다시켰다.

《여기 사람들은 판리국의 성의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괴상한 자존심을 가졌는가봅니다.》

그 사람의 눈길을 좇아보니 반출기결에서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있었다. 기사장과 석회석직장장은 얼른 눈에 띄었으나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은 진곤색로동복차림을 한 보통키의 청년은 잘 알수 없었다. 기계동음으로 하여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는 가려들을수 없었지만 기사장의 목대에 피줄이 돌아있는것으로 보아 역증을 낸다는것은 알수 있었다. 목소리들이 높아지자 지배인 아들은 아무래도 안되겠다는듯이 머리를 흔들며 그쪽으로 걸어갔다. 나도 지배인이 기사장에게 전하라고 한 도면을 들고 발뻘발뻘 다가가었다.

가까이 가서야 나는 그 노동자가 전번에 찾아왔던 그 청년임을 알아볼수 있었다.

기사장은 그 청년에게 목청을 돋우고있었다.

《엇그제 공장에 들어온 동무가 설비나 생산공정을 알면 얼마나 안다구 그렇게 우겨대오?》

청년은 기사장의 목소리에 청년은 낮으나 고집스러운 어조로 대꾸했다.

《웁습니다. 제가 기술에 대해 다야 모르지요. 하지만 한가지만은 똑똑히 알고있습니다. 이것이 극도의 형식주의라는것을 말입니다.》

(극도의 형식주의?)

그 말에 별안간 가슴이 두근거리었다. 우리 공장의 책임일군이며 본토배기로장인 기사장에게 저렇게 망랑 말하고있는 청년이 놀라게 느껴졌다.

《동무! 그 말을 책임질수 있소?》

기사장은 얼굴까지 불그레 상기되었으나 그 청년은 팽정하게 잘라말했다.

《물론입니다.》

결에 서서 기사장과 청년을 번갈아보며 미묘한 웃음을 짓고있던 지배인 아들이 분위기를 조정하려는듯 끼어들었다.

《됐습니다. 조용히 논의할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이게 뭐니까? 로동자들이 다 보는데서...》

《로동자들이 다 보는것이 어쨌다는겁니까?》

청년은 찌르는듯 한 시선으로 이번에는 지배인 아들을 바라보았다.

《로동자들에게 숨기면서 무엇을 토론해야 한다는건데 난 도무지 이해할수가 없군요.》

지배인 아들의 회여멀끔한 얼굴에 붉은 반점들이 나타나는것을 띄어본 나는 못 볼것을 보기도 한듯 황급히 고개를 수그렸다. 눈에 달이 뜬 그 청년이 무척 고깝게 생각되었다. 공장을 도와주자고 온 옷단위일군앞에 너무도 무례하게 행동하고있는 것이었다.

지배인 아들은 무엇인가 말하려 했으나 인츰 생각을 바꾸었는지 입귀를 실긋하며 웃는것이였다. 지성과 풍격에서의 지나친 차이를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사장은 온몸의 피가 얼굴로 다 쏠린듯 했다.

《이 동무가...》

분위기가 몹시 팽팽해졌다. 이때 키가 꺾두룩한 석회석직장장이 그들의 대화짚새기로 비집고 들어섰다.

《털어놓고 말하면 나도 찬성하지 않수다.》

그리고는 돌아가는 반출기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보시우. 운전공인 이 동무가 여기서 말다툼하는 시간에도 저 기계는 무탈히 잘 돌아가고있지 않쨌까? 사실 반출기나 콘베아야 운전공이 단추만 누르면 그만이지요. 아마 공장적으로 우리 직장만큼 자동화가 잘된 곳은 없을거쨌다.》

《그래두 현대화하면 더 좋겠는데요.》

지배인 아들이 너그러운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그 말에 직장장이 꺽꺽 웃었다.

《물론 그렇겠지요. 그러나 지금 소성조합계통에서는 경험이 지숙한 기능공도 석회석과 전판암의 비를을 맞추기 힘들어 능히 높일수 있는 세멘트의 질을 올리지 못하고있지요. 아직 칼대로 조절하니깐요. 현대화를 하려면 거기를 먼저 해야 하우다.》

그리고는 기사장의 팔소매를 툭 쳤다.

《그 비싼 컴퓨터들을 여기다 쓰는건 랑비우다.》

《아닙니다.》

뜻밖에도 청년은 여직껏 자기를 두둔해준 직장장의 말까지 부정하는것이였다.

《여기도 해야 합니다. 다만 선후차문제에서 후차일따름이지요.》

기사장과 지배인 아들은 입을 꼭 다문채 덩덤히 서있었다. 다혈질적인 기사장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있었고 목에는 굵은 피줄이 부풀어있었다. 그와 대조적으로 지배인 아들의 얼굴은 더욱 창백해졌다. 그는 겨우 자제력을 발휘하고있는듯싶었다. 기사장과 지배인 아들이 궁지에 몰린듯 한 형편에서 나는 도면을 내미는 생색을 내기 따분하여 돌아서고말았다.

도면을 다시 들고온 나를 보자 지배인동지가 의아해 쳐다보았다. 그러나 나의 거동에서 무엇인가 눈치챘는지 이내 호인다운 웃음을 지었다.

《거기 일이 잘되지 않는 모양이군. 내가 나가 보지.》

너렁청한 지령실에 홀로 남은 나는 컴퓨터를 켜놓은채 멍하니 앉아있었다. 자기들의 불편보다 공장실태를 먼저 걱정하는 그들의 마음은 참으로 훌륭한것이였다. 만약 나라면 그렇게 행동할수 있을까? 방금전까지만 해도 나는 관리부서의 컴퓨터화에 대해서만 생각했었다. 헌데 이걸 알면 중뿔나게 나서기 좋아하는듯 한 그 청년이 나에게도 극도의 형식주의자란 어마어마한 딱지를 붙였을지도 모른다. 나에게는 어쩐지 그 청년의 언행이 온당치 않게만 생각되였다.

하여 그날 저녁 집에서 식사가 끝난 뒤 아버지가 우리 공장현대화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저도 모르게 기사장과 지배인 아들을 두둔하는 립장에서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버지의 낯빛은 몹시 심각해져는것이였다.

나는 입을 다물고 아버지를 슬그머니 살피고있었다.

잠시후 아버지는 심중한 어조로 되뇌이였다.

《형식주의... 그런 악성종양에 걸린 일꾼들이 한둘이 아니거든.》

내가 형식주의에 대한 아버지의 예상외의 예민한 반응에 대해 그럭저럭 리해하게 된것은 도에 강습갔던 초급당비서동지가 돌아온 이틀후였다.

그날 저녁 지령실에서는 관리일군들의 협의회가 있었다.

맨 뒤쪽 긴의자를 차지한 나의 옆에 공교롭게도 지배인 아들이 조용히 다가와앉았다.

관리일군협의회였지만 공장현대화문제때문에 진행되는지라 국지도일군인 그도 참가한 모양이였다.

나는 머리를 약간 숙이는것으로써 각듯이 례의를 차렸다.

회의분위기는 시작부터 격렬한 양상을 띠였다. 그런데 회의에 참가한 지배인 아들의 태도가 나를 자극하였다. 처음에는 단정한 자세로 회의를 정중

히 대하던 그 사람은 시간이 흐르고 기사장을 비롯한 운광계통현대화제창자들의 목소리가 점점 낮아지자 심기가 불편한듯 태도도 부자연스러워지는 것이였다.

이따금 알릴듯말듯 쿵쿵거리는 코소리가 들려왔다. 지금껏 그에게 그런 버릇이 있다는것을 나는 감촉 못했었다. 하긴 내가 얼마나 그 사람과 지내봤다구?...

기사장이 마지막까지 자기 주견을 내세웠다.

《뭐나 처음에는 쉬운것부터 하는것이 옳지요. 지금실정에서 소성조합계통현대화가 이발도 나오지 않은 아이가 통강nię를 씹겠다는거나 마찬가지가 아니요?》

어째서인지 나의 가슴은 옥죄여들었다.

《기사장동무, 자기와 공장을 너무 낮추지 마시오.》

행정부지배인의 빈정거림에 웃음이 터졌다.

그러나 기사장은 자기 주장을 고집하였다.

《운광계통현대화가 형식주의라고들 하는데 어쨌든 벨트콘베아 한대라고 해도 로동자들을 위한 것이니 까놓고 말하면 바로 우리 공장을 위한것이겠지요?》

이때 로동부원아바이가 불쑥 물었다.

《공장을 위해 형식주의를 용인한다는거야 말이 안되지요. 그제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로동자들에게? 아니면 우리 일군들에게?...》

기사장이 고개를 번쩍 추켜들고 목청을 돋구었다.

《그럼 현대화를 하면 이 기사장만 좋다는거요? 우리 일군들보다 현장에서 직접 기계를 돌리는 로동자들에게 더욱 좋겠지요?》

하지만 어쩐지 그 열변은 이미 불꺼진 소성로처럼 식기 시작한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속에서 우선우선한 비서동지의 목소리가 울렸다.

《그러나 바로 덕을 보게 된다는 로동자들자신이 반대하는데 문제가 있지요.》

당비서는 회의장을 둘러보았다.

《로동자들은 그것이 아무리 현란하다 해도 걸치레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량심을 속이는것은 질색이지요.》

당비서의 말은 낮았으나 거기서는 반박하지 못할 쇠소리가 울렸다.

방안의 공기가 달아올랐다. 난로안에서 빠지직거리는 아카시아나무에서 불찌라도 튀면 금시 불이라도 확 당길것만 같았다.

당비서는 회의시작때부터 곰처럼 웅크리고 묵묵히 앉아만 있는 지배인에게 물었다.

《지금 진행하는 현대화를 립시 중지하는것이 어떻습니까?》

늘 호인같던 지배인의 얼굴도 이때에는 장마를 앞둔 하늘같았다.

《그렇게 해야지요, 노동자들이 바랄 때까지… 연기합시다.》

어딘가 편치 않은듯 한 음성이었다.

결에 앉은 그의 아들이 또다시 코를 쿵쿵거리는 소리가 왜서인지 나에겐 가시처럼 속을 쿵쿵 찌르는듯이 느껴지는것이 몹시도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다.

《잘못 생각하십니까, 지배인동지.》

전등빛에 당비서의 눈이 번쩍이었다.

《그들은 언제나 현대화를 바라고있습니다. 단지 일꾼들의 형식주의적인 일본새를 바라지 않을 뿐입니다.》

모두가 잠잠해있었다. 내 귀에는 지배인 아들이 허둥대며 들여다보는 손목시계의 초침소리가 들리는듯 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당비서는 낮으냐 신중한 어조로 말했다.

《형식주의는 우리 사회를 쪼먹는 위험한 비루스라는것을 명심합시다.》

지배인 아들의 가슴불안하게 하던 코소리도 더는 들리지 않았다.

회의가 끝난 후 지령실안에는 나와 지배인 아들 두사람만이 남아있었다. 당비서의 방에 가있는 아버지를 기다리는듯 한 그 사람은 여직 회의분위기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한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회의여운에 대하여 생각해볼새가 없었다. 그날중으로 월통계를 내야 했던것이다. 까다로운 문서작성인지라 이따금 애를 먹었다. 그럴 때마다 머리속에는 공장관리경영컴퓨터화 생각이 꼭 차올랐다. 하지만 이제 와서 망두석처럼 앉아있는 그에게 그 약속을 상기시킨다는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할수 있었다.

《참, 미안하게 되었습니다. 기껏 나섰던 일에 형식주의체책을 휘둘러대는 판이니 그 문제까지 들고나왔다간 똥둥이를 들고 접어들자고 했을지도 모르지요.》

정말 예민한 사람이였다. 내 속생각을 어쩔 저렇게 꼭 들여다본듯 말할가?

분명 그냥 있기는 따분하여 점잖은 목소리로 터놓은듯 한 말이겠지만 왜서인지 이번만은 그를 두둔하고픈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나에게는 그 말이 자기의 궁색한 처지를 변명하는것만 같이 여겨졌다. 아울러 그에 대해 산같이 쌓아놓았던 기대가 와르르 무너지는것만 같았다.

문득 그 사람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피우지도 않는다는 담배를 쥐고 난로로 다가간 그는 숯덩이를 끄적거리며 불을 붙이는것이였다. 몹시 속이 타는 모

양이다. 곧 기침이 터져나올것이라고 짐작하였는데 뜻밖에도 그는 아주 자연스레 연기를 길게 내뿜는 것이였다. 담배연기속에 그의 모습이 뿌옇게 안겨왔다. 갑자기 등골로 서늘한 오한이 스쳐지났다. 뭔가 속히운듯 한 기분이였다.

나는 산란해지는 속마음을 감출양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난로뚜껑을 열었다. 나무는 다 타고 재무지속에 몇개의 불씨가 겨우 살아있었다. 그래서 방안이 썰렁했던것인가?

결에 쌓여있는 나무를 집어들던 나는 그만 흠칫 놀라며 손가락을 싸쥐었다. 아카시아나무가시에 찢린 연한 손끝에서 빨간 피방울이 툭 튀어오르듯 솟구치는것이였다. 입술을 옥물고 장작을 집어넣은 나는 난로앞에 쭈그리고앉아 자그마한 풍구를 돌렸다.

《내가 뭘가요?》그걸 띄여본 모양 그 사람이 다가설 자세여서 나는 딱 잘라말했다.

《아니, 팬찮아요. 이젠 습관이 되였는걸요.》

《가만, 이게 아카시아나무가 아닌가요? 허, 내가 이 나무들을 심던게 엇그제같은데 벌써 이렇게 뭉감으로 쓸만큼 자랐는가? 헌데 술한 석탄을 쌓아놓고 이건 뭘가요? 더우기 처녀에게 이런 험한 일을 시키다니?...》

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다. 그래서 참지 못하고 저도 모르게 한마디 툭 내쏘았다.

《시킨 사람은 누구도 없답니다. 그리고 이 아카시아는 판상용이 아니라 뭉감으로 심은 나무였으니까요.》

불현듯 며칠전엔가 석회석직장장이 노동부원과 함께 출근하며 하던 말이 떠올랐다.

《저참, 무슨 사람이 그런지. 학식이 있구 일꾼이 되면 다 그런가? 옛날 일을 배워준 자네는 물론 우리 말 같은건 별루 새겨들지두 않는다니까. 자긴 종합된 의견만 받는다나. 매일 같이 있으면서 두 맘은 도무지 통하지 않더라니까. 아버지완 판판이야.》

내가 보기에도 그랬다. 나와 의 약속도 결국은 빈종이장으로 남지 않았는가?

술직한 말로 우리 지배인동지야 얼마나 너그럽고 점촉성이 좋은 호인인가?

그런데 그 아들은… 아들이라면 어째서 우리가 사무실난로들을 줄이였고 석탄이 아닌 이 나무를 때야 하는지 누구보다도 더 잘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고보면 그 아버지에 그 아들이라는 속담도 언제나 꼭 들어맞는것은 아닌것이다.

난로안에서 휘파람소리가 나더니 불길의 확 일어 번지는것과 동시에 불땀이 쏜 아카시아장작이 타들어가기 시작했다. 몇가치 더 쭈셔넣으면서 나는 태연히 앉아 담배를 피우는 그의 모습을 슬쩍 곁눈

질하였다. 지금까지의 존경심이나 선망의 마음대신 믿음에 가지 않는 대상에 대한 미타함의 매운 연기가 나의 가슴에 쓸어드는것만 같았다. 또다시 집어든 나무개비에 삐죽삐죽 나온 가시들이 아프게 나의 눈썹리를 찔렀다.

4

식수절이 다가왔다.

그날 공장안에서는 관리성원들까지 다 펼쳐나 울타리에 나무를 심었다.

처음에 당비서동지와 한조가 되었던 나는 상급당에서 찾는다는 전갈을 받고 그가 떠나는 바람에 그만 외로리가 되었다. 자존심에 남의 손을 빌리고 싶지 않아 혼자 꿑꿑거리던 내가 문득 인기척에 돌아보니 옆구리에 두툼한 책을 낀 강필남이라는 그 청년이 다가오는것이였다.

《비서동지가 보내서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그 청년은 마치 내가 범접하기 어려운 가시울타리이기라도 한듯 조심히 다가섰다. 크지 않은 키에 어깨가 짝 버그러지고 가늘고 작은 눈에 몽툭한 코가 고집스레 느껴지는 청년이였다.

진장한 일군이 찾아온것은 무등 기뻐지만 나는 될수록 심드렁한 기색으로 대하려고 애썼다.

쌀쌀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강필남은 웃동을 벗어 책과 함께 한쪽공지의 넓적한 돌우에 올려놓았다. 그리고는 내의바람으로 걸싸게 곡괭이를 휘둘러댔다. 다부진 체격속에서 진장한 기운이 흘러나오는듯 한 그는 잠간새 걸충만 얼어붙은 땅을 뚜저놓은 다음 마치도 게가 감탕을 퍼내듯 삽으로 삽사리 굳은땅을 척척 파چه끼는것이였다.

내가 삽을 잡을라치면 그는 빼앗듯이 삽을 앗아취고 뚜저놓은 흙을 퍼냈다. 마치 내 손엔 흙 한점 묻히지 않을 심산같았다. 넘쳐나는 기운이 부러운속에서도 어찌 보면 자신이 호외로 취급당하는것 같아 은근히 부아가 돋았다.

어느새 구멍이 하나를 다 파놓은 그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는것이였다.

내가 의아해서 쳐다보자 필남은 멋적은듯 뒤더수기를 굽더니 양묘장쪽으로 가는것이였다.

나는 얼른 웃거고리에 가리운 책걸가위를 훑쳐보았다. 컴퓨터배경에 나도 알수 없는 영어글자로 제목이 씌여진 목직한 기술원서였다.

무척 놀란 나는 손을 가슴에 모두어잡았다. 그가 이런 수준이라는것을 알게 된것이 너무도 천만 뜻밖이었던것이다.

잠시후 돌아온 그의 손에는 열그루도 되나마나할 손가락두께의 나무뭉음이 들려있었다.

뿌리와 잔가지가 상할세라 조심히 나무모를 한대

갈라낸 그는 방금 파놓은 널직한 구멍이에 그것을 놓고 이리저리 돌려보며 방향을 가늠해보는것이였다. 조금 더 긴 가지를 남쪽방향으로 돌려놓는것을 보고서야 나는 청년의 의도를 가늠할수 있었다.

(참, 꼼꼼두 하네. 담배씨로 뒤통박을 팔 위인이라는 말은 바로 이런 사람을 두고 하는 소리가 아닐가?)

그가 나무에 흙을 덮는새에 나는 물을 길어왔다. 물을 붓느라 허리를 굽히다보니 콩자갈을 주어내던 그의 이마에 드리운 머리카락이 나의 입김에 내 불리였다. 그가 몹시 숫저어하는걸 보니 내 얼굴도 화끈 달아올랐다.

따분해진 분위기를 능쳐버리듯 그는 또다시 다음 구멍이를 파내기 시작했다. 지금의 침착하고 간간한 성미를 보아선 자신을 이겨내지 못한채 과격하게 행동하며 함부로 기사장에게 형식주의감투를 뒤집어씌우던 그답지 않았다.

다른 조들에서는 웃고 떠드는 소리가 그칠줄 몰랐다. 나이많은 아바이들조차 흥겨운 룡으로 아주머니들을 즐겁게 해주고있었다.

그러나 내앞의 청년은 병어리인양 묵묵히 곡괭이질만 해대는것이였다. 시간이 흐르면서 발가는 황소처럼 거친숨을 쉴쉴거리는것을 보니 그도 무쇠로 빚은 기계는 아닌듯싶었다.

기회를 엿보던 나는 그가 드디어 삽질을 멈추고 허리를 펴는 순간에 슬쩍 말을 비쳤다.

《듣자니 공장대학에 다닌다던데… 무엇을 배웁니까?》

얼핏 돌아보는 그의 눈에 의아함이 언뜻 비졌다.

아마 자기에 대해 그만큼이라도 아는것이 무척 놀라운 모양이였다.

《예, 기계를 배우지요.》

《그래요? 몇학년입니까?》

《인차 3학년에 진급합니다.》

《어마, 3…학년?! 아니, 작년에 제대되었다는 말을 들었던것 같은데 어떻게…》

허리퍼는 청년의 눈동자가 딱 굳어진듯싶었다.

《예-예… 군대에 나가기 전에 고등기술전문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밀천이 있다보니 경총 뽕뽕기를 좀 해보았다구 할가.…》

나는 속으로 환성을 질렀다. 운수 좋으면 뒤로 넘어져도 떡함지에 엮어진다더니 골머리를 앓던 관리부서의 컴퓨터화문제를 방조받을수 있다는 환희때문이었다. 그러니 그는 다 자기 나름의 생각이 있어 그런 고집 아니, 배짱을 부린것이였구나.

나는 독에 금이 간새에 물목을 터치고싶었다.

《통학거리가 멀어 꽤 불편하시겠어요.》

《난 다리 켜 통신병이였습니다.》

통명스러운 대꾸와 불편한듯 한 거동에서 그가

시끄러워한다는것을 짐작했지만 나는 그만두지 않았다. 어릴 때부터 응석반이로 자라난 나는 피동은 아예 질색이었다.

《그래도 수업시간을 보장하자면 힘들겠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지קות는 나에게 어쩔수 없다는듯 청년은 한마디 툭 던졌다.

《마음에 먼 길이 힘이 들지요.》

우습게 봐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움쳐들었다. 그러나 두려운것은 아니었다.

《그건 무슨 뜻인가요? 전 이해가 잘 안되는군요.》

내가 원새끼를 꼬자 청년은 물끄러미 쳐다보는 것이었다.

《눈치가 무디다보니 던져 말하는건 미쳐 주어들 수수가 없군요.》

갑자기 청년은 머리를 젖히며 웃어댔다. 그제서야 나도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고 웃었다.

어성버성하던 분위기는 이 한번의 웃음으로 해뜬 뒤 안개결히듯 가뭇없이 사라진것 같았다.

그다음부터는 내가 묻는 말에 곰상곰상히 대꾸했다. 그의 말중에서 특히 인상에 남은것은 대학에서 배우는 지식과 그것을 활용해야 하는 직업사에 불일치가 생겼기때문에 상업관리소에서 세멘트 공장으로 직종을 옮겼다는 사실이었다. 상업관리소라고 하면 가졌다는 사람은 많아도 나오겠다는 사람은 없어 아버지의 말처럼 국가계획보다 파잉종업원때문에 일꾼들이 고민하는 기업소였다. 그런데 이 청년은 지식도 직업도 모두 형식에 지나지 않을것 같아 생각하던 끝에 지식을 선택하여 세멘트공장으로 왔다는것이 아닌가?

《내용에 형식을 복종시키는것이야 응당한 일이지요.》

그는 이렇게 간단히 그리고 쉽사리 말했지만 나의 가슴속에선 무수한 파문들이 일렁거렸다. 비록 생김처럼 투박하게 말했어도 그 이야기에는 산나물처럼 오래 씹게 되는 감칠맛이 들어있었다.

그날 오후에 강필남과 나는 열그루의 나무를 심었다. 피가 한동이씩 끓는 두사람이 고만큼 심는다는것이 어쩐지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마지막나무를 덮은 흙을 발로 뚫뚫 다지는 그의 얼굴엔 만족한 기색이 어려있었다. 일을 끝마칠무렵에 필남은 물을 주는 나에게 불쑥 물었다.

《이 나무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아무리 뜯어봐도 알쏭달쏭해서 머리를 갸웃거렸다.

《글쎄요, 아카시아나무같기도 한데...》

《같기도 한데가 아니라 아카시아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시가 없잖아요?》

《민아카시아나무이니까요.》

나는 눈이 울롱해서 나무를 쳐다보았다. 민아카시아라는 말은 들었어도 이날에야 비로소 처음 보게 되었기때문이었다.

그 청년은 그럴수도 있다는듯 너그러운 미소를 지어보였다.

《원산지가 우리 나라가 아니니 잘 모를수도 있지요. 이 나무가 우리 나라에 들어온것은 40년전이지만 널리 퍼진것은 20년안팎이니까요.》

청년은 나무를 중심으로 둥그렇게 흙담을 지어 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하면서 나무에 갖든 사연을 조용히 이야기했다.

민아카시아는 위대한 수령님 탄생 60돐을 맞으며 총련에서 보내온 나무로서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빨리 자라면서도 곧고 속이 치밀한 이 나무는 좋은 용재라고 하시면서 씨를 많이 받아 온 나라에 심도록 가르쳐주시었다.

우리 인민에게 이 세상 좋은것은 다 안겨주시려 한평생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열화와 같은 헌신과 뜨거운 애국심에 의하여 민아카시아는 중앙식물원의 울타리를 벗어나 1980년대말에는 우리 나라 중부지대에 널리 퍼지게 된 것이었다.

나는 학교때 생물교원을 쳐다보던 그런 감정을 안고 필남을 바라보았다. 하여 그가 말을 마친 뒤에는 놀람이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나의 물음에 청년은 멋적어하였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며 나무를 많이 심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게요?》

내가 재차 묻자 그는 흠짓 바라보는 것이었다.

바늘틈새로 비쳐드는 광선이 더 세보이듯 가늘고 작은 그의 눈에서 내뿜는 빛은 별스레 강렬하게 느껴졌다.

내가 눈길을 슬그머니 피하자 그는 군손질하듯 티검볼을 끌라내며 대답했다.

《저의 아버지는 ... 산림감독원이였습니다.》

그는 내가 부어주는 물에 손을 씻으면서 말을 이었다.

《아버지는 늘 나무를 얼마나 심는가가 아니라 어떻게 심는가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곤 했지요.》

나의 가슴속에서는 무엇인가가 흥벽을 쿵 두드려 그 여진이 전신으로 가볍게 그러나 짜릿하게 퍼져갔다.

그래서였구나. 별스레 구멍이도 나무형편을 봐가며 파던것이란 나무모를 열그루정도밖에 가져오지 않은것이랑... 하긴 나무가 차차 자라면 그 열그루라도 이 빈공지를 짝 채울것이다.

공장뒤 버럭산의 저 무성한 아카시아나무림처럼.

《그러나...》 왜서인지 그의 어조는 그 무슨 회오에 젖어있는듯싶었다.

《내가 그 말의 참 뜻을 이해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걸려야 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었는가? 채 더놓지 못하는 그 속말을 무척 듣고싶었지만 사나이들의 그 세계를 넘겨다보는것이 실례로 되는것 같아 나는 허끝을 꼭 깨물었다.

《이 나무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나무이름도 금방 알았는데 그 특징을 어찌 알수 있으랴. 그래서 나는 우정 뽀로통하니 대꾸했다.

《빨리 자라는거겠지요.》

그는 싱긋 웃으며 머리를 끄덕이였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필남은 우리가 심은 나무들을 내려다보며 상념에 잠긴것 같은 어조로 말했다.

《가시가 없는 아카시아라는겁니다.》 그리고는 혼자소리로 중얼거렸다.

《사실 아카시아나무엔 가시가 필요없지요.》

그 어조는 마치 자기에게 그 사실을 납득시키려는것 같았다.

그때에는 미처 다 몰랐으나 퇴근길에 낮에 심은 민아카시아나무들을 보며 다시 상기해보니 참으로 의미가 깊어졌다.

장미에게는 가시가 없어서는 안될 무기이다. 아름다운 꽃송이를 탐내는 무리가 얼마든지 있으니까. 산딸기나 분지도 마찬가지로이다. 딸기는 달디단 열매로, 분지는 기름과 약재로 쓰이는 자기의 열매들을 소중히 지켜야 하니까.

하지만 아카시아나무에게 가시는 이렇다할 용도가 없는것이였다. 탐람만큼 아름다운 꽃도, 군침이도는 열매도 없는 나무에 바늘끝같은 가시란 불필요한 결치레가 아니겠는지...

나의 생각은 가지를 치며 뻗어갔다. 나에게도 저런 필요없는 치장들이 있지 않을까? 없다고 단정할수 없는것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였다.

불현듯 강필남은 그런 사람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것이였다. 가시가 없고 대가 곧으며 수종이 좋아 쓸모가 많은 저 민아카시아처럼 위선도 허위도 없이 진실하고 또 무슨 일에서나 책임적일것이라는 믿음이 밀도끝도 없이 불쑥 생기는것은 나로서도 이상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었다.

희여말쑥한 지배인의 아들과 다부지고 얼굴은 검실하여도 강단이 느껴지는 청년이 동시에 겹쳐져 얼른거렸다. 그런데 놀랍게도 지배인 아들의 형상은 물에 떨어진 잉크방울마냥 점점 희미해지고 왜서인지 서로 통성할 생각도 못하고 헤어진 청년의 모습이 뇌리에 더욱 선명하게 부각되는것이 아닌가.

기억속에서 쉽사리 희색되는 인간과 또렷해지는

사람...

왜 그럴가?

5

중단되었던 기술개선이 다시 시작된것은 봄빛이 무르익는 4월이였다.

그때 우리 공장은 지배인으로부터 정문경비원아바이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바빴다.

생산공정의 기술현대화에 2중3대혁명붉은기관정까지 겹치여 온 공장은 그야말로 룡북은 남비속처럼 분주했다.

나는 공장현대화를 책임진 기사장동지가 관리부성원들과 나누는 이야기들속에서 강필남이라는 그 청년이 공장과학자, 기술자돌격대에 망라되어있음을 귀동냥으로 알게 되였다.

《지내놓고보니 팬찮은 젊은이더군. 통신병을 했다가에 약전에만 밝은가 했더니 제관이요, 용접이요 막히는데가 없소. 군사복무때 희천발전소건설에 동원되어서도 가치있는 발명들을 했다더니 과연 헛소문이 아니였소.》

기사장은 그 청년이 공부하는 공업대학 교원들까지 발벗고나서서 도와주어 기술적인 난문제들을 그시그시 해결받는다며 언제 육했더냐싶이 그를 칭찬했다.

나는 저도 모르게 방싯 웃음을 지었다. 내자신이 칭찬이라든 받든듯 가슴이 흐뭇해왔다.

이제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끝나면 그때는 이 기세로 관리부서의 컴퓨터화까지... 그러자면 나도 틈틈이 만전을 기해야 할것이다.

어느날 은행이며 공급소들을 행이모양으로 돌다가 정문으로 들어서던 나는 공장속보판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이름이 참 좋다》라는 제목우에 별썬 웃는 주인공의 측면모습이 그려진 배경판에다 현대화의 어디서나 찾고 부르는 필요한 사람이라고 그 청년의 이름이 크게 소개되어있는것이였다.

(필남... 필요한 남자라, 정말 이름이 그럴듯한데? 현대 그림은 영 비슷지도 않아. 이왕 손덜바엔 꼭갈게 그릴것이지 저렇게 대충 그릴건 뭐람?)

이런 생각에 움해있던 나는 누군가의 절절한 목소리에 깜짝 놀랐다.

《아하, 총각의 모습앞에 너무 오래 서있다? 혹시 그 속보의 주인공에게 훌쩍 반한건 아니냐?》

뜻밖에도 지배인동지였다. 나는 못할 일을 하다 들키기라도 한듯 몹시 게면쩍어졌다.

《아이참, 지배인동지두... 난 지금 우리 공장에 저렇게 생긴 강필남이란 청년두 있던가? 하고 생각하던중이에요.》

《허허… 판전을 피우진. 하긴 네 말따따나 이젠 속보원두 틈틈이 기량을 높이지 않았단 자기 밥통을 지켜내기두 험치 않겠구나.》

이윽히 바라보는 지배인의 시선앞에서 나는 어쩔바를 몰라했다. 더구나 지배인 아들의 공장결음이 뜨움해지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별로 서먹서먹한 감정도 없지 않아 공식적인 자리를 내놓고는 될수록 의식적으로라도 그를 피하던 나였던것이다.

《하긴 우리 수정이같은 처녀들의 관심을 끝만한 훌륭한 총각이지. 나도 그의 정열에 반할 정도니까.… 언젠가 나를 찾아와 군사복무시절에 있는 이야기를 할 때 난 자신이 한줌만 해지는것 같더라. 한방망이 얻어맞은 기분이었지만 내가 옳바른 결심을 내리는데선 아주 결정적역할을 한셈이었지.》

그런 일이 있었는가? 이 순간 나에게는 식수절날 자기 아버지의 이야기를 하며 자책에 겨워 말끝을 흐리던 청년의 모습이 떠올랐다. 무척 듣고싶었지만 차마 묻지 못했던 그 사연…

《대체…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오, 그건… 아니, 그걸 왜 나한테 묻는단 말이지? 요새 너희들사이가 범상치 않은것 같던데…》

《어마나? 지배인동진 못하시는 말씀이 없네.… 누가 들으면 진짜로 믿겠습니까.》

나는 익은 감처럼 붉어진 얼굴을 감출양으로 고개를 수그렸지만 오히려 목덜미까지 빨개진것을 통채로 드러내보인다는 생각은 꼬달만큼도 못하고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지령실에 가기 전에 밤잠도 잇고 투신하는 공장과학자, 기술자자격대에 가져다줄 사과며 파배기와 같은 음식들이 묵직히 담긴 보통이를 들고 생산건물쪽으로 발걸음을 떼었다.

이걸 받아들고 기뻐할 모습들을 그려보며 발걸음을 재우치던 나는 현금씨금 따라서는 발자국소리에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강필남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찾아갔던 참입니다.》

《나를요?》

왜서인지 긴장해졌다. 놀라는 나를 보자 그도 입이 굳어진듯 말을 못하는것이였다.

《저… 지령실에 가니 지배인동지가 이리로 갔을거라고 알려주더군요. 내가 만나자는건…》

청년은 닭알침을 꿀꺽 삼키는것이였다.

나는 팬스레 바빠맞았다. 지배인동지와 한 말이 생각나며 이 청년이 그 모든걸 알지 않을가 하는 의심이 들었던것이다. 속이 빠질빠질 타끓었다. 시간도 없거니와 처녀앞에서 주뿔거리는 총각의 모습도 눈에 차지 않았다.

《전 우유부단한 사람은 질색이에요.》

새침한 말에 청년은 얼굴이 활짝 붉어지는 속에서도 위압적인 투로 말하였다.

《좋습니다. 조합계통의 시험을 진행해야겠는데 컴퓨터가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기사장동지가 하는 말이 회계부원동무가 공장현대화를 위해 집에서 내온 컴퓨터가 있을거라면서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나는 경악했다. 그 컴퓨터로 말하면 인차 추진시켜야 할 관리부서의 컴퓨터화를 위해 또 질질 늘구는 기사장에게 자극을 주자는 내판의 감쪽한 생각에 미리 집에서 토론하고 내뿜었던것이다. 기사장도 이것을 모르지 않는다. 하지만 소성계통과 조합계통의 현대화가 마감단계에 이르자 제일 걸린것은 설비들이였다.

관리국에서 열수감장치를 비롯하여 설비들을 내려보내주었지만 워낙 기대가 많고 공정이 복잡한 생산의 심장부인지라 컴퓨터만 하여도 여러대나 모자랐다. 하여 지배인부터가 사무실의 컴퓨터를 현장에 내왔고 기사장은 가정에서 리용하던 전기제품들까지 공장에 회사한 상태였다. 관리성원들만이 아니라 종업원들모두가 펼쳐나섰다. 헌데도 작지않게 공장관리일군의 명색을 지닌 내가 리기주의를 부리며 이 모든걸 아닌보살하기는 어려웠다.

이왕 이렇게 된바엔 나도 욕심을 차려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다.

《좋아요. 헌데 조건부가 있어요.》

《그게 뭘니까?》

《난 학교때 영어공부를 제일 힘들어했어요. 수학은 필짝 난다는 소릴 들었지만… 그래서 동무가 저에게 영어공부랑 컴퓨터프로그램작성법이랑 적극 도와준다면 그 요구에 선뜻 응할수 있답니다.》

《하긴 공짜가 있을수 없지요. 합시다. 그러나 권고하고싶은건 동무도 공장대학에서 배우는게 좋을텐데요? 젊음이 아깝지 않습니까?》

모두가 뛰었다. 분주한 속에서도 힘든줄을 모르는 나날이였다.

낮에는 현대화를 위해 들끓었고 밤이면 2중3대혁명불은기판정준비로 복적거렸다.

어느날 지배인동지가 불쑥 물었다.

《수정이, 복을 칠줄 아나?》

모른다고 하자 꺾꺾 웃는것이였다.

《비서동무가 관리일군들로 복제창을 하겠다는데 야단났군. 그전에 배워두긴 했던것 같은데 어디 손이 굳어서 말을 들어야 말이지.》

나도 몹시 난감하였다. 기라는 그럭저럭 통탕거리도 복제는 잡아보지 못했던것이다.

정말 그날 저녁 비서동지가 두손에 복을 쳐들고 나타났다. 그뒤로 복을 한아름 안은 필남이라는 그 청년이 함께 들어섰다.

《북과 생판인 사람들도 더러 있겠는데 이번 기회에 친해봅시다. 북을 배워줄 선생님은 이 동무입니다. 군무자예술축전에도 참가한 경력이 있지요.》

《그럼 먼저 한번 재간을 보여주오, 선생.》

《선생님!—》 하고 행정부지배인의 말을 정정해준 당비서가 청년더러 한번 본때를 보이라고 추동하자 그는 처녀처럼 얼굴까지 붉히는 것이었다.

예능에 소질이 있다고는 상상해보기 힘든 그가 북을 친다는 것이 어쩐지 부자연스러운 일갈아 눈길을 돌리었던 나는 뜻밖에도 어깨를 들썩거리며 박력있고 기백이 넘치는 장단을 흥겹게 뽑아내는 번개같은 솜씨에 놀라 그를 땡해서 쳐다보았다.

그때 나는 투박스러워보이는 그가 땡시있게 북을 두드리는 것을 보며 섬세한 감정이나 세련된 매력은 결코 형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었다.

그날 저녁부터 지령실은 북때리는 소리에 전화종소리마저 듣지 못할 지경이었다.

그 청년은 땀을 철철 흘리면서 열성껏 가르쳤건만 령감님들은 대부분 얼렁뚱땅식으로 북을 두드렸다.

로동부원아바이가 북을 치며 아동영화 《소년장수》의 주제가를 부르는통에 배꼽이 떨어져나갈 정도로 웃다보니 눈이 둥그래서 놀라는 청년의 모습 앞에 사뭇 속스럽기도 했었다.

하여간 며칠후에는 복제창으로 노래를 맞추게까지 되었다.

《이제부턴 자체로 숙련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남기고 훌쩍 떠나는 그를 뒤쫓아 문앞에 세워놓은 나는 단도직입적으로 들이쳤다.

《그러니 래일부턴 안 온다는거예요?》

《예, 그만하면 괜찮습니다. 정말입니다.》

그답지 않은 상냥한 말에 왜서인지 부아가 돌아났다. 그래서 별로 생각할 사이도 없이 내쫓았다.

《요령주의식으로 배워주구선... 뭐가 괜찮다는거예요? 그것두 형식주의야요.》

뺨아놓고보니 부끄러운감도 없지 않았다. 필남은 얼굴이 빨개지도록 놀라는 것이었다. 전등을 등지고선 것이 나로서는 참으로 다행이었다. 하지만 나도 철면피한감이 없지는 않다. 지금도 내가 때를 쓸 때는 아버지까지도 두손을 드시는 것이다.

이때 지배인이 내편을 들어주었다.

《우리 수정인 팬히 필남에게는 가시처럼 콧코를 쏘면서 그러는구나. 이보라구, 필남동무, 처녀말두영 틀리지는 않은것 같구만. 숙련이야 해야지. 헌데 자각성에 떠맡기기엔 뭔가 아직 모자랄것 같지 않나? 사상교양사업이야 하구 가야지. 차라리 언젠가 내게 해준 말을 한번 더 해주지. 아마 모두들

정신이 번쩍 들거란 말이요.》

《나두 지배인동지한테서 그 이야기를 듣고 정신이 펴졌 들었다네. 어서 이야기하게나. 참 교훈적인 이야기인데...》

기사장까지 이렇게 부채질하는 바람에 나는 온몸이 귀가 되어 필남의 입을 주시했다. 필남은 멋적은듯 뒤더수기를 썩썩 문지르더니 떠듬떠듬 말쑥지를 떼었다.

《사실 난 아직 이 말을 듣고다닐만큼 떼떽한 인간이 못됩니다. 그때는 하두 속이 상해서 지배인동지와 당비서동지에게 터놓았던것인데...》

그 말은 사람들의 몫시선을 더욱 바짝 당겨놓았을뿐이었다. 이것을 거절하기 바쁘다는것을 이내 깨달은듯 청년의 눈가에 짙은 회억의 빛이 어리었다.

《이건 내가 제대되기 한해전에 있는 일입니다. 다 알고있었지만 몇년전 식수절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어느 한 부대를 찾으시여 나무를 심으신 현지보도소식이 전해진적 있었지요? 그게 바로 우리 부대였습니다.》

나는 어마지무 놀랐다. 그러니 저 청년의 가슴속에 저렇듯 소중한 추억이 간직되어있단 말인가?

...식수절 전날이었다. 부대에서는 다음날 식수준비로 구멍이를 파는 일이 벌어졌다. 부대장을 비롯하여 지휘관들까지 직접 나서서 조직하고 군인들과 함께 구멍이들을 파다.

필남이도 온갖 정성을 다하여 산림감독원의 아들답게 적지에 필요한 구멍이들을 큼직하게 파놓게 되었다.

그날 밤 필남은 부대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만나뵙는 꿈을 꾸게 되었다.

그런데 그 꿈이 현실로 펼쳐질줄이야.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나라일에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부대에 식수를 하시기 위해 찾아오셨던 것이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신 그이께서 우선 우리가 가져온 나무를 심을 좋은 땅을 골라보자시며 걸음을 옮기실 때 필남은 가슴이 막 두근거렸다.

행운은 이렇게도 찾아오는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바로 그가 어제 구멍이를 판공지쪽으로 걸어가고계셨던 것이다.

그이께서는 문득 걸음을 멈추시었다.

《허, 이 동무들이 엉큼하구만. 어느새 김새채고 벌써 우리가 심을 나무구멍이를 미리 파놓았구만. 난 이 부대에 와서 식수를 하겠다는 전갈을 한것 같진 않은데... 혹시 총정칙국장동무가 비밀을 로출시킨건 아니요?》

뒤따르던 총정칙국장이 당황하여 말을 얼버무렸다.

《저… 전 그저 오늘이 무슨 날인가고 부대장에 물어보았을뿐입니다.》

《그러니 장본인은 동무였구나.》

수행일군들은 가벼운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다음말씀을 하시는 그이의 안색은 밝지 못하시었다.

《지금 일군들이 식수절에 나무를 심는것을 보면 자기들이 구멍이를 파고 심는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사식으로 남들이 이미 파놓은 구멍이에 심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것이 바로 형식주의입니다. 형식주의, 이게 바로 큰 문제입니다. 이제는 이런 형식주의에 경종을 울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까지도 형식주의냄새를 피우다 가면 되겠습니까? 우리는 제 손으로 직접 구멍이를 파서 나무를 심어 놓고 갑시다.》

그이께서는 뿌리가 상하지 않게 큼직한 흙덩어리가 그대로 매달린채로 정히 떠서 가마니와 새끼오리로 칭칭 동여매어 포장을 짚짚히 한 종비나무와 목련나무를 가리켜보이시었다.

《저 나무를 보시오. 동무들의 성의는 고맙지만 이렇게 큰 나무를 심을 타산을 미리 하지 않고 파놓은 구멍이이다보니 저 뿌리를 앓힐 자리가 낮고 좁지 않습니까? 그래서 식수란 엄연한 의미에서 자기가 직접 구멍이를 파고 심어야 진정한 식수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여 식수는 단순히 나무를 심고 말고 하는 실무적인 문제가 아니라 온 나라를 수림화, 원림화하기 위한 **김정일**애국주의의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그러니 뜻깊은 오늘 이 종비나무와 목련나무를 심으면서 우리가 직접 온 나라 천만군민의 심장속에 불길로 번져질 **김정일**애국주의의 불씨를 지펴봅시다.》

이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점심시간이 지나도록 땀을 흘리시며 결사게 삼질을 하시면서 구멍이를 파시었을뿐아니라 가지가 많은쪽이 남쪽 방향으로 향하게 나무를 심어야 하며 흙을 잘 다져 뿌리에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등 나무심는 방법까지도 하나하나 가르쳐주시었다. …

《그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다녀가신 후 부대장동지로부터 이런 사연을 전해들으며 제가 받은 충격은 참으로 컸습니다. 내뻘엔 지난 시기 나무를 적지 않게 심어왔다고 자부해왔지만 언제한번 그 일에 이렇듯 숭고한 의미를 부여해본적이 없었기때문이었습니다. …》

(바로 그래서였구나. …)

나는 경탄의 눈길로 청년을 바라보았다. 물기가 그러한 그의 눈가에선 사소한 가식도 꾸밈도 없는 맑고 진실하고 보석같이 아름다운 빛발이 황황 내뿜기고있었다.

나는 너무도 감동되어 두손을 가슴에 포개잡고

눈길을 내려갈았다. 지나간 나의 생활이 주마등처럼 뇌리에 언뜻언뜻 스쳐지났던것이다. 나의 생활에 알게 모르게 형식주의요소가 다분한 나날은 없었던지 …

나는 전에없이 거인의 모습으로 비껴드는 그에게서 매혹의 눈길을 땔수 없었다. 그결에 도저히 다가설수 없다는 말하기 어려운 허전함이 가슴을 산란하게 하였다. 26년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섬세한 불안이었다.

그후 어느날 저녁 현대화정형에 대한 보고서를 타자치던 나는 기사장과 지배인이 나누는 말에 귀가 쏠렸다.

《이번에 기성이는 왜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기사장의 물음에 지배인은 손을 뻗뻗 내저었다.

《전번처럼 말썽이나 일으킬려구?》

그리고는 창밖에서 용접불꽃이 명멸하는 소성로를 가리키며 침통한 어조로 말을 이었다.

《저것 보오. 그녀석이 없어두 현대화는 잘돼가고있지 않소? 그러니 불필요한…》

말끝을 맺지 못하는 지배인을 보기가 딱했던지 기사장은 위안조로 한마디 했다.

《그래두 불꽃은 그가 지원샘이 아닙니까?》

《반디불처럼 나타났다 스러질 그런 형식주의불꽃은 없느니만 못한 법이지. …》

침통한 빛을 가리지 못하는 지배인을 피하여 기사장은 슬그머니 자리를 피하고말았다.

방안에는 지배인동지와 나, 둘만이 남아있었다. 언뜻 쳐다보니 그 어간에 얼굴의 주름이 더 깊어진 것처럼 느껴졌다.

지배인은 어딘가 쨌리우는듯 이따금 입귀를 쉼록 거렸다. 아버지로서 아들에 대한, 그것도 처녀앞에서 총각인 아들을 비평한다는것이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를 그의 안색에서 심분 리해할수 있었다.

잠시후 타자친 문건을 받아들던 지배인동지가 나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다.

《수정아, 때를 놓치지 말고 마땅한 대상이 있거들랑 시집을 가거라. 그렇다고 절대로 나무라지 않을테니.》

나는 나의 심정을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도무지 알수가 없었다. 내우한다고 생각했는지 지배인동지는 껄껄 웃더니 불쑥 묻는것이였다.

《그 필남이라는 친구가 어떠냐?》

《아이참, 지배인동지도 …》

나는 얼른 컴퓨터뒤로 몸을 웅송그렸다.

호탕하게 웃고난 뒤 지배인은 상급이 아니라 아버지의 음성으로 부드럽게 말했다.

《너에겐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너에겐 그 친구가 참 필요한 사람이다. 정확히 말한다면 우리 공장에 말이다.》

나는 지배인동지의 너그럽고 호방한 인품에 마음이 확 쏠렸다. 이런 호인을 닮지 못한 그 아들이 나로서도 야속스러웠다.

그날 밤 퇴근길에 나는 어머니가 싸들고온 밤참을 들고 소성로현장에 가보았다. 완성단계에 이른 현대화공사장은 그야말로 절정을 장식하고있었다. 눈을 시그럽게 하는 용접불꽃도, 귀를 멍멍하게 하는 소란스러움도 그밤에는 피를 끓게 하고 툭툭 뛰게 하는 청춘의 박동을 새삼스레 느끼게 하였다. 이 벅찬 전투장에서 밤을 꽤도 피곤할것 같지 않았다. 나는 머리수건을 꼭 눌러썼다.

나에게는 소성로우에서 용접봉을 갈아대는 청년이 펴 눈에 익었다. 그는 망치로 금방 용접한 부위를 탕탕 두드려보고나서 유심히 살펴보는것이였다. 마치도 식수절날 민아카시아나무의 가지방향을 살피며 꼼꼼스레 심을 때처럼...

이어 용접면을 다시 쓴 그는 불꽃을 날리기 시작했다.

나는 용접불꽃으로 밤하늘을 번쩍번쩍 놀래우는 그를 이윽도록 바라보며 생각했다.

저런 사람이야말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나 필요한 사람이 아닌가. 우리 시대에, 우리 사회에, 우리 생활에 그리고...

6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추억에 잠겨있노라니 나는 사위가 어둑어둑해지기 시작한것도 미처 느끼지 못하고있었다.

하지만 전전공공하던 마음은 그와 함께 어둠속에 잠드는듯 가라앉았다. 필남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또다시 나의 생각은 곁을 찾은듯 현재에서 미래로 줄달음치고있었다.

누가 말했던가, 처녀들은 현재보다 미래에 박수를 보낸다고...

일시 들뜨는적은 있어도 정작 일생을 의지할 반려자를 결정할 때에는 물감장사이상으로 속구구를 해보는것이 처녀들이다. 아마도 이런데서까지 형식주의를 하려는 부모나 당자는 한사람도 없을것이다. 조금 리기적인데가 있어도 그것은 비난할수도 놀려댈수도 없는 처녀들의 권리이다. 미끈하고 웅장한 흠담벽이 아니라 금시 떨어질듯 하면서도 몇 백년동안이나 끄떡없는 금강의 귀면암처럼 억척의 바위에 의지하고싶은것이 처녀들의 심리이며 또 그것을 결정할 당당한 권리도 그들에게 부여되어있는것이다.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있다. 아니, 확신한다. 굴굴은 나무는 아무리 크다 해도 팽풍을 이겨내지 못하는 법이다.

그러나 이 민아카시아나무는...

오늘 아침 어머니는 출근하는 나를 붙들어놓고 또다시 성가시게 굴었다. 저녁에 인민위원회 부위원장의 아들이 온다는것이였다.

(아버지가 부위원장이지 아들이 부위원장이나 뭐.)

셀쭉해서 대답을 하지 않자 어머니는 대문에까지 따라나오며 구구히 설명했다. 키크고 인물이 잘나고... 배경이 프르르하고... 전도가 양양하고...

나는 대문을 사이에 두고 침착하게 물었다.

《어머니, 맛있는 무우를 어떻게 가려보는지 아세요?》

나의 말에 어머니는 눈이 떴흔해서 소리쳤다.

《그게 무슨 동판지같은 소리냐?》

《아버지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는 빨리 퇴근하라고 웨치는 어머니말에 대답도 하지 않고 씩 하니 달아났다.

공장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말로 아버지에게 물어본 모양이였다.

《애, 너 요새 댜애를 하니?》

런애라는 말에 나는 깔깔 웃어댔다.

《아니요, 왜요?》

《거짓말말아. 아버지가 그러더라. 왜 엄마에겐 속였니? 남의 딸들은 다 엄마편이라는데 넌 어쩔...》

어머니는 오해하고계셨다. 아버지는 짐작으로 알고있었던것이다. 한가정을 돌보는 어머니 못지 않게 한개 군의 살림을 책임진 아버지가 더 세심하고 현명한것은 당연한것이다. 어머니의 욕설은 웃음으로 넘겼지만 하루종일 싱숭생숭한 마음을 잠재우지 못한채 보냈다. 의자에 앉아 재정통계를 내면서도 시간이 좀 있어 과학원서를 펼쳐놓고서도 도무지 정신을 집중할수 없었다. 왜, 어째서?...

나는 어떻게 하나 매년부턴 그 동무처럼 공장대학에 다니리라 결심하고있었다. 요즘은 아버지도 늘 신칙하고계신다.

《지금은 지식이 없이 한결음도 전진할수 없어. 언제까지 네 일을 남의 머리를 빌리면서 하겠냐?》

그런데 막상 대학에 가자니 기초가 약한것이 큰 문제였다. 그래서 그 동무에게 일전에 방조를 청했던것인데 공정현대화요, 2중3대혁명붉은기관정이요 하면서 들끓는 정신에 까마득히 잊어먹은것이 분명했다.

(언제까지나 미룰수 없어. 물론 그에게도 시간은 없겠지만...)

그러나 그의 사정을 봐줄 형편이 못되였다. 더군다나 그에 대한 생각만 하면 훌쩍훌쩍 뛰기 시작하는 나의 심장이 그것을 묵인하지 않았다. 하

지만 정작 말을 하자니 처녀라는 체면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병어리랭가슴 앓듯 하던 나는 오후에 우연히 대학에 가려고 자전거를 끌고 나오는 그와 구내에서 마주쳤다.

꼭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 나의 눈길을 그도 짐작한 듯싶었다.

《무엇을 부탁할 것이 있는가요?》

입안에서는 술한 말들이 뱅글거렸으나 어느 하나 튀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나오서도 안타깝기 그지없었다. 그러자 필남이 한마디 통짚을 먹었다.

《저도 유유부단한 사람은 질색인데요?》

나도 손등으로 입을 가리우며 살짝 눈을 핏기였다.

《동문 지금 바쁘지 않나요?》

나는 시계를 보는 시늉을 하며 배우처럼 인상표정을 찡그렸다.

《그럼 당장 할 일이 아니라면 9시 이후에 해도 될가요?》

《예..》

나는 우리가 심은 민아카시아나무들쪽을 가리키며 기여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기서 기다리겠어요.》

《?!...》

그는 눈이 떠쨌는가싶더니 이내 웃음을 지으며 패히 승낙했다.

《좋습니다.》

그리고는 자전거를 타고 쏜살같이 사라졌다. 멀어져가는 그를 바라보느라니 내가 저질러놓은 일

이 참으로 분수에 넘치고 허망창하게만 생각되어 가슴이 울렁거렸다. 그러나 이미 주사위는 던져진 것이었다.

이제는 완전히 날이 어두워졌다. 어느때는 소란하게만 들려오던 석회석직장의 원통형분쇄기의 동음이 지금은 즐겁고 환희로운 이밤을 손저어부르는 친근한 소리로 울려오고있었다.

어둠이 깊어갈수록 아카시아꽃들은 더 짙은 향기를 풍기었다.

하나, 둘 돌아나던 별들이 내 머리우에서 은하수가 되어 흐르기 시작할무렵 소성로야의등빛에 자전거를 타고 달려오는 그의 모습을 볼수 있었다.

순간 나의 심장은 짧은 쟁개비뚜껑마냥 달그랗거렸다. 그 사람은 마치 내가 보이기라도 한듯 곧추 다가오는 것이었다.

(야단났네.)

여직껏 수십번도 외워보았을 그 술한 말들이 그를 보는 순간 바람에 불리운 가랑잎마냥 어디론가 몽땅 흩날아가버린 것이었다.

급정거소리를 내며 두근거리는 심장을 놀래우기까지 하면서 내린 필남은 바투 다가서며 물었다.

《자,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찾았습니까?》

산이 다가드는듯 하여 흠칫거리며 한걸음 물러선 나는 대꾸를 못하고 말끄러미 쳐다만 보았다. 그 몇시간사이에 그는 더욱 웅장해진 듯싶었다. 하여 저도 모르게 나는 아버지앞에서 어리광을 부릴 때처럼 웅석기어린 목소리로 속삭였다.

《난 뭐, 필요한 사람을 찾으면 안되나요?》

단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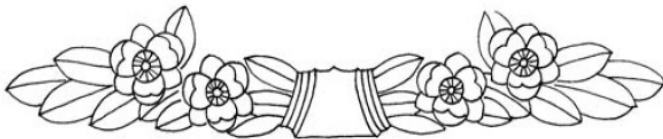
불타는 여름이여 외 1편

김 철 혁

봄은 청춘 가을은 로년기라면
여름은 열정에 넘친 중년기
그 시절을 불태우지 못한다면
아, 봄날에 피운 꽃 가을날 열매 없으리!

곧은 나무로

곧은 나무로 먼저 버릴지언정
구불통나무로 천년은 살지 않으리



별과 이야기

김 경 석

새해의 눈발속에
걸이대 총처럼 메고
격전장에 나서듯 별로 향하는
우리의 걸음걸음 생각도 깊다

이 땅을 가꾸는 주인으로 나선지도
홀러홀러 수십년세월
쌀을 위한 평화로운 농사일이
오늘처럼 치열한 싸움
생사운명의 판가름으로 되어본적 있었던가

가물과 폭우... 태풍과 회오리...
자연의 횡포 계절의 변덕보다
말살의 공간을 확대하려는
원썬들의 악랄성과 포악성이 극도에 달했거니

불밝은 창가마다 울려나오는
사람들의 맑고 명랑한 웃음소리
한사코 없애려는 무리들과 맞서
평범한 농민도 제1선병사
그 심장 그 숨결을 지니지 않을수 없는 땅

폭폭 들이박는 걸이대의 날우에
무겁게 실리는건 거름뿐이던가
자연과 계절을 길들이는 일에 앞서

사회주의전초선을 지켜선
정신력으로 자세를 가다듬으며
결사수호의 의지를 담아내나니

가없는 대지우에 뿌리내린 포기포기
하나하나 억척스레 살찌워갈 그 진정
포전마다 무지무지 키를 솟굴 때
봄도 여름도 가을까지도
한꺼번에 품어안아 가꾸고 익히며
불덩이로 줄달음쳐살고싶은 마음이다

오, 더 높은 쌀날가리로
조선로동당창건 70돐을 받들어올릴 이해
함께 높아질 사람들의 웃음소리
로동당만세소리에
원썬들은 또다시 비명 올리고
우리 모습 또다시 승리자로 빛나려니

별이여 농민의 전투진지여
너의 사시절을 운명처럼 보듬어안고
날과 날을 격전으로 이어갈 우리에게
안겨온다 네우에 무겁게 실린 억만 이삭들
승리를 경축하는
축포의 불보라처럼 눈부시게... 눈부시게...

조선문학 주체104(2015)년 제2호 (루계 제808호)

편 집 위 원 회

낸 곳	문 학 예 술 출 판 사
인쇄소	평 양 종 합 인 쇄 공 장
인 쇄	주체104(2015)년 2월 1일
발 행	주체104(2015)년 2월 5일

ㄱ— 461356

© Korea Literature & Art Publishing House 2015
D P R Korea
ISSN 1727—9437